



7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7호
(루계 제789호)

특간호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
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김 정 은

차 례

전승60돐
기념특집

----- 위대한 대원수님들 이룩하고 빛내오신 권승의 7.27

태양의 집 프락에서(시)	정 두 국(4)
장산리의 《발갈이노래》(시)	김 명 철(5)
발머리(시)	김 윤 걸(6)
전승절 경축하세(가사)	리 계 주(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7)

어머님의 새날(시) 리 연 희(7)

영광을 받으시라(시) 한 원 희(8)

단편소설 맑은 시내 흐르는 곳 강 철(9)

주체문학의 대강 (24)

우리에게 김정은원수님이 계신다(시) 김 덕 선(19)

◇ 평 론 ◇

존엄이 있어 운명도 지켜진다 김 학(20)

전승의 추포속에 어러오는 《예쁜이》들의 형상 김 러 숙(41)

조국해방전쟁종합전과(자료) (5)

수 승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김 유 권(45)

필 조선의 자리길 조 인 영(60)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전선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김정은

정애하는 원수님 받들어 영원한 승리의 7.27로 펼쳐가라 전승60돐
기념특집

단편
소설

큰 주먹	최종하(26)
노래는 남는다	류영기(47)
어머니의 품속에서	석남진(63)

◇ 시 ◇

《승리》상이 빛난다	리명근(25)
무명고지의 철쭉꽃(가사)	박철(40)
전승의 세월	홍민식(44)
로병의 추억(시 묶음)	박래설(56)
전승과 녀인들	전성호(58)
화선의 집	리명호(58)
군관의 안해들	럼정실(59)
화선그리움(시초)	리정래(74)

조국해방전쟁시기 창작된 소설문학에서

대종적영웅주의에 대한 형상 창조(자료)	리순철(61)
조벽암의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소개)	김향금(79)

표지3면: 《공화국창건 65돐, 전승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선전화)

태양의 집 트랙에서

정 두 국

내 다는 몰랐구나
영생이란 참뜻을

수수천년 인류의 념원이 담긴
이 말 이 뜻
사전의 갈피가 아닌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내 오늘 다시금 깨우치나니

정가롭게 펼쳐진 푸른 잔디
아름다운 꽃들은 피어 향기풍기고
무지개 펼쳐며 분수는 솟구쳐오르고...
대원수님들 우러러 군가 높이 부르는
군상의 취주악대...

파란색채양아래 금방석인가
나무의자 정히 쏘아보니
가슴가득 차오르는것은
대원수님들 어제와 오늘도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

내 심장속에 되새겨보노라
우리가 걸어온 어제와 오늘을
그러면
인민이 쓰러졌던 7월과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더 뜨겁고
더 열렬하게
더 눈물겹게
인민에게 안겨진 대원수님들의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 계시기때문!

인민의 심장속에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

태양의 집 트랙에
인민의 트랙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 계시여
날마다 대원수님들의 영상 뵈오며
날마다 대원수님들의 가르치심 받으며
인민은 살리라 그렇게 살아
대원수님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리

그이 계시여
오늘에 태어난 아기들도
태일에 태어날 후대들도
영생의 그 품에 안겨
영생의 그 모습 우러르며
만복속에 삶을 빛내가려니

수수천만년세월을 안은
너 력사여
흘러온 어제와 흘러갈 래일을
모두 안아 여기에 세우라

하늘이 흠어지고
지구가 흔들려도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금수산태양궁전
지구의 축이 내린 곳

오, 금수산태양궁전이어
여기 태양의 집 트랙에서
내 오늘 심장을 터쳐 웨치노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의 세월속에
대원수님들의 세월은 영원하리라
인민의 세월은 무궁하리라

장산리의 《밭갈이노래》

김 명 철

전쟁이 멎은지도 어느덧 60년
허나 우리 수령님 밤길 헤쳐오시여
당세포회의를 지도해주셨던
1952년 6월 20일
그 력사의 날을 잊을수 없어선가

여기 룡천땅 장산리
동래천기슭의 드넓은 대지에
밭갈고 씨뿌리던 때도 다 지나
벼포기 줌이 벌게 아지치는 철이건만
어디 가나 울리는 《밭갈이노래》여!

수령님 다녀가신 큰길 량쪽에
멋있게 일떠선 리상촌 문화주택
꽃향기 넘쳐나는 프락들이라
수령님 바라신대로 펼쳐진 규격포전
물소리 유정한 오리골 논들이라

그날의 민주선전실 마당을 나서서
파아란 유리집에 들어서면
왕밤알같은 우렁이들을
함지마다 그득그득 건져담는 처녀들
고운 목소리로 부르는것도 그 노래

사연깊은 두그루의 대추나무밑을 지나
콩과 감자 섞어심은 시험포전에 서니
그날의 스물여섯명 당원들
지금도 밭고랑을 타고나가는듯
록음기에서 울리는것도 그 흥겨운 선율

한밤에도 그 노래 들으면
해종일 불비속에 모를 낸 녀성들이
풍금타고 노래를 부른다시며
박수까지 크게 쳐주신 수령님
인자하신 그 모습 뵈옵는것만 같고

들을 가꾸면서도 그 노래 부르면
동무들의 노래를 들으니 힘이 난다고
혁명적인 노래야말로
가장 귀중한 길동무라고 하시던
수령님 그 음성 들려오는것만 같아

집오래에 파일나무 한그루 심어도
수령님 마을을 돌아보실 때처럼
한배미 논을 갈고 벼가을을 해도
수령님 들길을 걸으실 때처럼
노래속에 진정을 다해가는 사람들

아,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뜨겁게 이어지는 수령님 생각이
심장의 노래로 되어 메아리치기에
마을은 마을대로 사시장철 꽃피고
들은 또 들대로 해마다 기쁨지나니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따르며
날로 더 높아지는 《밭갈이노래》속에
수령님은 오늘도 장산리에 계시여라
낮이나 밤이나 환히 웃으시며
이 땅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여라!

자 료

조국해방전쟁종합전과

—적살상 및 포로 156만 7 128
그중 미제침략군 40만 5 498
파퇴군 113만 965
추종국가군대 3만 665
—적 전투기술기재
비행기로획 11
격추 5 279
격상 6 484
각종 탄환 로획 2 124만 5 071
땅크로획 374
격파 2 690
장갑차로획 146
격파 45

자동차로획 9 239
격파 4 111
각종 통신기재 로획 5 788
함선격침격파 564
선박로획 12
격파 132
격침 163
각종 포 로획 6 321
격파 1 374
각종 저격무기 로획 92만 5 152
각종 포탄 로획 48만 9 260
수류탄로획 22만 4 123
지뢰로획 1만 4 449

발 머 리

김 윤 결

두손으로 어루쓸어보는
발머리 발머리
삼복철 피약별아래
우리 수령님 오래도록 서계시던
금당벌의 작은 발머리

정녕 이 발머리에
위대한 생의 자욱이 새겨졌단 말인가
한걸음에 천리를 주름잡으시던
거룩한 그 자욱을
금당벌이여 네 이 작은 발머리로 받들고있거나

이 마음 젖누나
설참이면 분조원들의 웃음소리 어울리고
다문다문 길짱구있새 파란
이 땅 그 어테나 있는 발머리
먼길 가시다가도 그냥은 못 지나
차를 세우고 들리시던 수령님 생각에...

꼭 만나셔야 할
혈연의 정을 나눈 사람들 여기 있어
들바람 맞바람 그대로 불어오고
눈이 내리면 질적이는 이 발머리를

우리 수령님 한생 못 떠나셨던가

해방된 봄날의 첫 모를 내시며
항일전에 달아오른 군복을 벗어놓으신 곳도
이름없는 발머리였다
흙물은 손에 담배도 쥐여주시며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신 곳도
아, 의자 하나 놓아드리지 못한 발머리였다

발머리 발머리
못사람들 무심히 스쳐지나는 기슭이지만
우리 수령님에겐
인민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제일 가까이 들으신 생활의 한복판이었거니

그리운 우리 아버지의 모습
가장 가까이 뵈울수 있어
내 한생 마음속에 안고사는 발머리
푸른 이랑은 지평선에서 끝나도
그리움엔 끝이 없어
기어이 안아올 대풍작의 천이랑 만이랑도
에서 시작되는 오, 발머리 발머리

가 사

전승절 경축하세

리 계 주

경축의 꽃물결 강산에 설레고
승리의 기쁨은 가슴에 넘치네
수령님 안아오신 우리의 전승절
원수님 모시여 행복넘친 명절일세
노래하세 춤을 추세
세세년년 우리의 전승절 경축하세

싸워서 승리한 우리의 7.27
세월을 이어서 오늘도 빛나네
수령님 안아오신 오늘의 이 경사

원수님 모시여 경사중 경사일세
노래하세 춤을 추세
세세년년 우리의 전승절 경축하세

승리의 기발을 더 높이 날리며
수령님 그 업적을 천만년 빛내세
온 세상 자랑하는 내 나라의 전승절
원수님 모시여 영원한 명절일세
노래하세 춤을 추세
세세년년 우리의 전승절 경축하세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 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결 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때까지 오로지 목적인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어머님의 새날

리 연 희

파아란 잔디우에
안개도 고요히 흐르는 새벽
어머님은 벌써 나서시였는가
오늘도 초가이영 없고선 칠골고향집
사립문가에 계시는 강반석어머님

깜깜 어둠속에
남의 집 시계종소리를 기다려
새날을 그리시던 만경대의 그날을 그려보시는가
날은 밝았어도 강산은 어두웠던
그 세월을 더듬으시는가

고향을 떠나 멀리
력사의 새벽길에 나서신
김형직선생님을 따라 천리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신 아드님을 받들어 만리
이 땅의 새날을 위해 걸고걸으신 우리 어머님

기슭치는 눈보라헤쳐
이슬맺힌 새벽길 가시덤불을 헤쳐
우리 수령님을 도와
비밀련락을 안고걸으신 그 길은 얼마
어두운 가슴들 찾아 걸으신 그 밤길은 또 얼마

못 잊어라

김형직선생님의 유산
두자루의 권총을 안고
원썬들의 경계망을 뚫고오신 그 자욱
이 나라 력사의 새벽길에 새기신
위대한 어머님의 애국이여

한밤 또 한밤
조국의 아들들의 첫 군복에
한땀한땀 정성으로 수놓으신 그 소원
안도의 수림속 붉은기대오앞에
오로지 광복의 념원을 없으신 어머님

정녕 광복의 새날은 찾아와
그 이름도 광복거리
행복의 창문들 웃는 이 땅에
오늘도 또다시 떠나시려나
《새날》신문을 안으신 우리 어머님

낮익은 그 목도리 두르시고서
가야 할 떠나면 길 바라보시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혁명의 길에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 새겨주시며
어머님은 그 미소속에
통일된 삼천리
려명이 떠오르는 조국의 새날을 안아보시네

영광을 받으시라

한 원 희

우뢰처럼 봄우뢰처럼 천지를 진감하는
축포성 축포성의 메아리 메아리
별무리 별무리처럼 하늘을 뒤덮은
축포 축포의 꽃송이 불꽃송이

전승 60돐 감격의 열풍안고
솟아올라 천송이 만송이 솟아올라
천만 위훈 천만 승리 찬란히 펼쳐안고
하나같이 하나같이 만수대언덕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 드린다

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60년세월이 멀리 흘렀건만
위대한 전승위업을 못 잊어 못 잊어
한없는 감사 뜨거운 격정 터뜨리는
인민의 마음인가

터져올라 이 나라의 하늘가에 터져올라
이 나라 영웅전사들의 금별메달 다 안고
이리도 장엄히 이리도 숭엄히
아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 영광을 드리노라

영광을 드리노라 대원수님들께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세차게 굽이치는
전승의 이 감격 이 환희
하늘가득 축포로 엮어지고엮어지는
눈부신 꽃다발 꽃바구니

저 황홀경 저 눈물겨운 절경속에
오늘도 밝게밝게 어려오는 그 미소
전쟁의 첫날 준엄한 그 시각에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크나큰 신심을 복돋아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

어려온다 어려와 눈시울 뜨겁다
서울 대전... 원수들을 포위섬멸하는
그 작전도에 붉은 화살표를 그어가시던
최고사령부의 그밤 그 불빛이
가렬처절한 전선천리

깊은 밤에도 전사들을 찾아 달리던
수령님의 야전차 그날의 전조등빛이

탁월하고도 비범하신 전략전술로
미제를 쥐락펴락하신 우리 수령님
무비의 담력과 뛰어난 지략으로
놈들의 《강대성》신화를 야망을
한줌 재가루처럼 휩쓸어 날려버리신
백두의 천출명장

우리 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미국놈 백놈과 바꿀수 없다고
품에 안아 소중히 아껴주신 그 사랑
전사들 가슴가슴에 원수들 무찌를
용맹의 나래를 달아준 그 믿음

그이는 전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고
집이였고 고향이였고 조국이었나니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전사들은 한목숨 바쳐 승리하지 않았던가

포악무도한 승냥이미제를 때려눕히고
세계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승리의 상상봉에
조국과 인민을 존엄높이 받들어올리신 수령이시여
아버이수령님의 전승위업을
세기와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오늘은 핵보검을 억세계 틀어쥔
백두산대국을 안아오신 **김정일**장군님께
위대한 전승절의 이 축하
천만군민이 드리는 영광 영광을 드리노라

아, 축포가 터져오른다
대원수님들의 뜻을 후손만대에 이어갈
불같은 맹세가 터져오른다
최후승리의 그날을 부르며부르며
축포가 터져오른다

터져오르라
온 누리에 떨치라
백두의 천하제일장군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우리의 7.27은
승리와 영광의 7.27로 영원불멸하리라

맑은 시내 흐르는 곳



강 철

《류두날이란 소릴 들어봤소?》

1

몇년전,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찾아왔다는 나의 말을 들은 장령 강덕수는 잠시 생각하던 끝에 불쑥 이런 동당지 않는 물음을 던졌다.

인상적인 수북한 장미아래서 예리한 눈이 나를 주시하며 빛을 내뿜고있었다. 진중하면서도 어찌보면 어린애를 중태보는듯 한 약간 능청스런 빛이 거기에 비껴있었다.

《예, 음력 6월 15일로서 달이 유난히 밝아 예로부터 녀인들은 내가에 나가 머리도 감고...》

《음, 알고있구만.》 장령은 만족스레 웃었다.

《난 지금도 환한 보름달을 볼 때마다 저 달이 어찌하여 저리도 밝을고 하는 생각을 버릴수 없소. 그리구 우리가 지난 전쟁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하는 생각도 되새기게 되고...》

그때, 그것은 바로 1950년 여름, 류두가 금방 지나서... 우리 수령님께서 전선의 전사들을 찾아 길을 떠나시였던 그 잊지 못할 날로부터였지...》

상장 강덕수의 눈언저리에 깊은 감회가 실렸다.

한줄기 담배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랐다.

그는 나에게 아니, 지나간 세월의 못 잊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듯 어딘가 나의 어깨너머 먼곳을 보며 추억과 감회에 젖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의 꼭지를 뺐다.

《김책동지, 강건동지... 잊지 못할 그분들이 다 없으니 어차피 그날의 일은 내가 말해야 할가보오.》

부지런히 펜을 놀리는 나의 눈앞에는 60여년전 이 땅에 불구름이 타래쳐오르던 전화의 그날이 펼쳐지고있었다....

음력 류월보름이 이를 지났지만 달은 아직 행창 밝았다. 1950년 7월 31일의 밤이다.

물보라가 자오록하게 쏟아져내리는듯 한 그 진한 달빛속으로 물기에 젖은 차체를 번들거리며 몇대의 군용승용차들이 서울에서 남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내달리고있었다.

고르로운 차발동소리만이 길우에 울려퍼지고있었다.

휘연한 달빛아래 대지는 마치 평화로운 안식의 고요속에 꿈을 꾸는듯싶었다.

그러나... 뒤이어 저 멀리 남쪽 어데선가 쿵- 쿵 하고 둔중하게 들려오는 웅글은 포성이 그렇지 않다는것을, 지금은 준엄한 전쟁의 또 한밤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알려왔다.

그 소리는 군용승용차의 뒤좌석에 앉아서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심중에도 무겁게 메아리쳐들었다.

(그렇다. 전쟁국면은 바야흐로 극한점에 치달아 오르고있다. 이 긴박하고 중대한 시각에 전선사령부 참모장을 소환한다면 그의 후임은 누구를 선정할것인가?)

아직도 귀전에는 전선사령관 김책의 사뭇 걱정어린 목소리가 사라질줄 모르고 계속 울리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 아무래도 저 강건동무를 소환하여 다문 얼마간이라도 좀 휴식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벌써 근 열흘째 잘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뻔쳐대는데 저러다간 아까운 사람 놓칠것 같아 막 무섭습니다.》

피발진 눈, 갈라터진 입술, 깎아낸듯 모난 강철 빛얼굴... **김일성**동지께서 보신 강건의 모습은 이

러하였다.

(불과 보름새에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도 변하니...)

김일성 동지께서는 강건을 만나신것은 약 보름전 해방된 서울시의 피뢰 《중앙청》에서였다. 그때 강건은 활기와 정열에 넘쳐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 모습은...

모색만이 아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며 오늘 저녁무렵 이 길을 떠나기 몇시간전에 《중앙청》마당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시었다.

...

지금까지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서울 피뢰 《중앙청》앞마당은 붐비고있었다.

떠나가는 차, 마주 달려들어오는 차, 손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누군가를 소리쳐 찾는 사람...

문건이나 가방을 안은 참모들이 승용차와 모터씨클들사이를 분주히 누비며 무엇을 넘겨주거나 받아들곤 하였다. 지금 마지막후속대렬이 며칠전 수안보에 새로 이동전개한 전선사령부로 떠나가고있는것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선사령관 김책, 군사위원 김일 등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복도로 나오시다가 현관문앞에 서서여 뒤집을 지신채 그 광경을 바라보시었다.

다급한 걸음으로 한발 앞서 현관밖으로 뛰어나간 전선사령부 참모장 강건이 가방을 옆구리에 낀채 자기 차를 찾느라 두리번거린다. 강건은 수안보에 먼저 나가 경비 및 통신조직상태도 료해대책하고 전선정황보고자료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했던것이다.

어느새 눈치빠르게 차꼴무늬를 들이대던 애송이 운전사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기 상관의 얼굴을 훑음 치며보더니 품속의 수첩갈피에서 무언가 꺼내들었다.

《참모장동지, 입술에 이결 붙이십시오.》

《건 뭐야?》

풍을 벗긴 군용피차여서 그들의 동작도 말소리도 다 잘 보이고 들렸다.

《이게 마른 명태대가리 뒤통수에 붙어있는 얇은 껍질인데 입술이 튼데 붙이면 잘 알려지도 않고 즉 흡니다. 나도 여러번 써봤습니다.》

강건은 눈을 찔 흘렸다.

《흥, 맘 편한 모양이군. ... 언제 그런 장난 할새가 있어? 빨리 떠나야겠다. 넣어두어.》

《야, 참모장동지. 그 입술 좀 보십시오. 또 더져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덕지가 다 앓구...》

《무슨 말이 많아?》

차에 다가가 앞좌석에 가방을 던져넣던 강건이 문득 손을 멈추었다.

《이건 또 무슨 배낭이야?》

운전사가 배낭아구리를 열어보이며 주섬주섬 설명한다.

《이건 위병에 좋다는 보약이구 이밑에건 평양술과 담배인데 이제 고향 상주에 가면 쓰도록 하라구...》

갑자기 껍-하는 강건의 노성이 터졌다.

《지금 제정신이야? 저앞에선 땅 한치를 놓고 피의 결사전을 벌리구있는데 뭐 보약? 술, 담배?》

강건은 배낭을 들어 차의 뒤좌석으로 훌 집어던졌다.

《빨리 없애치워. 다시 한번 이따월 들고다녔단봐라. 내 가만두지 않을테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여태 본적이 없는 강건의 거친 언행에 내심 놀라면서 김책을 돌아보시었다.

그 순간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책의 눈가에 얼핏 스쳐지나는 그 어떤 색다른 빛을 포착하시었다.

불만스러움 같기도 하고 우려와 걱정 같기도 한 시서늘하고 어두운 그 눈빛, 그 또한 전에 없던 일이다.

?!...

결코 그런 눈빛으로 보거나 바라보일 상대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들이었다.

그러거나말거나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는줄 알리 없는 강건은 배낭을 놓았던 자리에 자기의 전투가방을 훌 들어놓고는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돌아섰다. 인사를 남기고 떠나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놀라며 몸을 꺾듯이 하고 경례를 불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럼 제 먼저 떠나겠습니다.》

걱정놓으시라는듯 빙긋 웃는다는것이 그만 터진 입술을 감쳐물며 얼굴을 찡그리는것으로 되어버리고말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측은한 시선으로 강건을 여겨보시었다. 강건이 군모채양밑에서 빛나던 눈길을 슬며시 땅에 떨군다. 버려낸 쇠쪽같이 서늘이 풍기던 그의 몸이 졸지에 시진해진다....

《허- 김책동무, 강건이 왜 저 모양이요?》

그가 부랴부랴 떠나간 후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책을 돌아보며 물으시었다.

《글쎄 말입니다. 서울을 먹구 대전을 깔구았을 때까지만 해도 활활 불붙는 장작같던 사람이 요샌... 불꺼진 숯등걸처럼 시꺼매가지고... 꼭 온몸에서 타오를진 다 불타버리고 재만 남은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디 병이라도 난게 아니요?》

《위병은 원래 고질인거구... 군의에게 임무를 주어 슬그머니 검진해보았는데 몸에 특별한 다른 병증세는 없답니다.》

《음...》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벼이 수궁하시었다.

그렇다면 대체로 알만 한 일이다.

경상남북도의 좁은 지역에 압축된것으로 하여 생긴 일시적인 역량상우세와 험준한 소백산줄기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해나서는 적들, 반면에 후방으로부터 떨어진 전선에 제때에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는 아군의 병력과 후방물자들, 하여 종전보다 탄력을 잃고있는 전선동부의 일부 작전들...

모름지기 강건은 부대들의 전진속도가 떠지고 작전이 뜻대로 추진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조급증, 초조감과 우려, 자책감... 아마 그러루한 심리적 파동때문에 자기를 저리도 괴롭히며 혹사하고있을것이다.

(그래서 아까 나를 만나자 첫인사가 《장군님, 죄송합니다. 뵈을 면목이 없습니다.》하는 소리부터였군.

언제 봐야 저 모양이거던.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하는 저 나쁜 버릇, 모두들 정말 한시도 마음을 못 놓게들 굴거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속으로 나직이 탄식하시었다. ...

(그래, 김책동무 말이 옳다. 강건은 지쳤다. 아무래도 휴식을 좀 시켜야 할것 같다.

전쟁 첫날부터 아니, 그 썩 이전부터 강건이 식사를 제 시간에 한적 있었던가. 또 온돌방에 잔등을 대고 발편잠을 잔것이 도대체 몇날이나 될텐가. 그러니 무쇠로 빛은 사람인들 견딜가?)

차는 여전히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달리고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각을 이어가시었다.

그게 언제였던가?

달빛이 흐르던 아무르강반의 숲속길. 김책, 안길, 강건 등 유격대의 용장들이 웃고 떠들며 함께 걸었다. 그날따라 달빛은 유난히 밝기도 했다. 알고보니 음력 류월보름— 류두날이었다. 이역땅에서 맞는 조국의 민속명절이었다.

이야기는 자연히 두고온 고향, 다시 찾고 돌아가야 할 그리운 조국땅으로 이어졌다.

누구보다 강건이 성수가 났다.

《사령관동지,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저의 고향 상주에 꼭 함께 가십시오.

예로부터 경상도 상주 하면 경치좋고 3대특산이 또한 자랑인데 술과 감, 명주가 바로 그겁니다.

그중에서도 명주라고 하면...》

자랑은 끝이 없었다.

마을앞을 감돌아흐른다는 맑은 시내물, 속리산에서 산삼, 더덕, 도라지뿌리를 씻어내린다는 그 기막힌 물맛, 한길 바닥에서 사물대는 모래알까지 죄다 들여다보이는 그속으로 종개, 버들치, 자가사리들이 한가로이 떠다니는데 자기가 상주특산술을 한

상 내졌으니 모두들 함께 가서 천렵을 하자고 손가락을 내들고 돌아가면서 땀을 쓰다싶이 약속들을 받아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날 강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께서도 고향생각에 젖어들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달빛을 싣고 흐르던 순화강, 빨래터에 넘쳐나던 머리를 감는 녀인들의 청아한 웃음소리, 그아래 물굽이 저쪽 대동강가에서 반뜩반뜩 피어오르던 어쭈쓰는 화톳불...

류두날이라 어머니들은 없는 살림에도 밀국수를 한 공기씩 들고나오고 참외, 수박을 곁들여놓아 소박한 류두연을 강가에 차리곤 했었지. ...

아! 그리운 고향, 떠나온지 어언 스무해를 가까이하는 고향 만경대...

김일성 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시어 조용히 《사향가》를 부르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하나 둘... 약속이나 한듯 모두가 목소리를 합치었다. 혹은 굵고 혹은 날아오르는듯 가느다란 나뭇대로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었으나 떠나온 고향, 하루빨리 나라를 찾고 돌아가 안기고픈 그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념원이 하나같아서 노래는 그리도 정겹게 잘 어울렸다.

달빛이 그 노래를 담아싣고 저 멀리 조국의 하늘가로 흘러가고있었다.

죽음의 고비를 무수히 넘나들며 화약내가 몸에 폭 배인 백전로장들이었건만 이 시각 그들은 내가에서 뛰놀던 어릴적 심정들이 되어 눈굽들이 젖어 들고있었다.

강건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힌다.

그의 목소리가 꺾 메인다. 급기야 그 눈물은 시울을 넘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러는 그의 모습을 저릿해오는 심중으로 바라보시었다.

지금의 정세발전추이로 봐선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강건을 고향으로가 아니라 중국동북지방으로 파견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던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싸움길에 서있다.

김일성 동지의 말씀을 듣고난 강건은 한순간 시무룩해졌다. 꼭 아이같았다.

그러다가 혼연히 웃음을 지었다.

《가겠습니다,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길이라면 제 저 하늘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강건은 자기는 한생을 마감까지 뛰고 달리며 살도록 운명이 정해진 사람 같다고 룡절반 진담절반으로 말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옆에 있는 배낭을 내려다보시었다.

풀색군용배낭, 아까 강건이 막 떠나려던 때 부관장 강덕수를 시켜 그의 차에서 옮겨오신것이다.

이제 수안보에 도착하면 이것을 강건에게 도로 안겨줄 생각이시였다.

강건은 모르고 그랬을테지만 김책동무야 얼마나 서운했을것인가.

(실은 수령님께서도 강건이 떠나간 후 김책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것이 김책이 정성껏 마련해준것임을, 그중에서 보약은 한해전 김정숙동지께서 김책에게 주셨던것임을 알게 되시였다.)

수안보에서 상주는 지척이다. 문경고개를 넘어 골장 나가면 걸어서 하루길도 못되는 곳이다.

꿈에도 잊지 못해 그러보며 허위단심 싸움길을 헤쳐 달려온 그 고향을 지척에 두고 강건을 대오에서 소환하여 휴식하라고 하면 그가 들겠는가.

그렇다고 정신육체적으로 저리도 지쳐서 한계점에 다달은듯싶은 사람을 계속 일에 붙들어매놓는다는것도 안될 말이었다.

또 지금의 형편에서 강건을 대신할만 한 그런 믿음직한 적임자도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김일성 동지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지시였다.

달빛은 여전히 퍼붓듯 줄기차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길옆으로 한줄기 내물이 달빛을 떠신키 반짝이며 승용차를 따라서고있었다.

갈길을 재촉하듯 남쪽 멀리에서 포성이 들려왔다.

2

초소들을 돌아보는 겸 숲속길을 걷던 강건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잎새들사이로 새여들어온 달빛이 땅바닥에 기이한 무늬를 수놓고있었다. 마음이 번거로웠다.

어제 (이젠 벌써 어제 일이다.) 오후에 있던 일이 또다시 괴롭게 뇌리에 갈마들었다.

(그 배낭을 그렇게 던져버리다니...)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죄스런 일이었다.

그것이 김책동지가 품들어 마련해준것임을 강건은 여기 수안보로 나오는 차에서 뒤늦게야 알게 되였다. 그래 미리 그 말부터 해주지 않은 운전사를 눈알이 쭉 나올 정도로 되게 욕했지만 이미 었지른 물이었다.

강건에게 있어서 김책은 단순한 상급이기 전에 어린시절 학문을 익혀주고 계급의 눈을 띄워준 스승이며 혁명선배였다. 요즘 자기의 건강상태와 거

칠어지는 언행을 두고 김책동지가 은근히 원심을 쓰며 여러모로 뒤를 받쳐주고있다는것을 강건은 모르지 않았다. 그래 각별히 주의하느라고 하는데도 어찌된셈인지 이런 일이 드문히 생기군 한다.

더더구나 아까 그 장소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였었다.

장군님께서 나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셨으랴. 정말 얼굴이 뜨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 강건의 가슴을 무섭게 옥죄어들며 괴롭히고있는것은 그 자책감뿐이 아니였다. 요즘 며칠동안 그보다 더 큰 우려와 불안이 강쇠갈던 강건의 심중을 좀먹고있었다.

자기가 과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 구상과 의도를 끝까지 원만히 받들어드릴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과 의혹이었다.

엇그제 있던 일이었다.

... 《전선사령관동지, 보고할만 합니까?》

문을 박차듯 뛰여들어온 작전참모의 목소리에 김책과 함께 지도우에 이마를 맞대고있던 강건은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말하오.》

색연필을 손에 쥔 김책이 허리를 펴며 나직하나 엄한 음성으로 뇌였다.

《저...》 왜서인지 작전참모는 갑자른다.

강건은 은연중 긴장해졌다.

《왜? 어서 말하오.》 김책이 재촉했다.

요즘 와서 전선동부에서는 종종 여의치 않은 보고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

그래 강건은 은근한 불안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작전참모가 들고온 보고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천만뜻밖의것이였다.

7월 30일, 바로 그날 안동해방전투에서 12사단장 최춘국이 장렬하게 전사했다는것이였다.

강건은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있던 색연필을 툭 떨어뜨렸다. 그와 함께 가슴속에서 심장이 바닥으로 철썩 떨어져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최춘국이 죽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항일의 불바다속에서도 살아남아 싸워온 네가... 네가 어찌하여...

며칠전까지도 전화로 자기가 이제 안동을 깔고앉은 다음 상주를 해방하겠으니 약속대로 꼭 한상 차려야 한다고 호기있게 다짐받던 전우가... 자기 고향 온성은 멀리 뒤에다 두고 천리 먼 타향에 와서 쓰러졌구나.

강건은 비척비척 걸어가 의자우에 무너지듯 털썩 앉았다. 이제 이 사실을 위대한 장군님께 어떻게 보고드릴단 말인가?!

《전선사령관동지,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김책은 대답이 없이 창밖만 내다보고있었다.

그의 눈가에 가랑가랑 고인 눈물이 금시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있었다.

강건에게는 그 눈물방울이 자기를 호되게 들때릴 철추처럼 느껴졌다.

(아, 내가 작전을 좀더 잘했더라면, 내가 미리 모든것을 타산하고 꿰뚫어보고 정확한 결심을 내렸었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작전에서 나타난 일부 결함때문에 엄한 비판을 받은 강건이었다. 그런 강건에게 있어서 최춘국의 희생이라는 이 가슴아픈 비보는 정녕 그 어떤 육보다도 무서운 청천벽력이었고 망심에 안겨진 드센 강타였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이때처럼 모질게 마음에 갈라들기는 처음이었다.

며칠전 빨치산출신의 지휘관 리철수가 쓰러졌을 때도 이와 유사한 감정을 체험했었다. 그러나 힘들게 넘겼었다. 해방후 중국동북에서 길동분구사령관으로 있던 시절 누구보다 믿던 박락권이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도 눈물속에 어금이를 으드득 소리나게 깨물고는 책상을 팡 치며 분연히 일어섰던 강건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째서인지 느낌이 달랐다. 몸이 허약해지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탓인가?!...

《나의 생명을 5분만 더 연장해달라.》

사단참모장에게 전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라는것을 말해주려고 군의에게 최춘국이 했다는 그 마지막부탁은 강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이 그대로 쓰러지는 최춘국이 자기에게 보낸 절규처럼 처절하게 생각되었다. 이제 당장이라도 손에 총을 들고 달려나가 최춘국을 해친 적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불줄기를 쏟아붓고싶었다. 그것을 작전전술로써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스러웠다.

강건은 자리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전선사령관동지, 아무래도... 전... 재목이 못되는가봅니다.》

돌아보는 김책의 눈에서 번쩍 빛이 일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참모장동무.》

《이 모든게 저때문이라고만 생각됩니다. 전 솔직히 말해... 앞일이 우려됩니다.》

《뭐라구?》 칼끝같은 김책의 목소리, 방안에 쩌- 서리발이 일었다.

잠시 강건을 쏘아보던 김책은 뚜벅뚜벅 걸어나들문을 안으로 꼭 닫았다. 방에는 둘뿐이었다.

《신래!》

이것은 강건의 본명이었다. 김책이 강건을 이렇게 부를 때는 두 경우, 호된 매를 듣든가 평장히

칭찬할 때뿐이었다.

《신래, 그게 전선사령부 참모장이 하는 소린가? 참모장이 흔들리면 온 전선이 흔들리지 않는가!》

《김책동지!...》

강건은 냉안현의 사립학교시절처럼 자기의 스승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침통하고 괴로웠다.

이 시각 그들은 전선사령관과 참모장이기 전에 스승과 제자였다.

강건은 작전대우에 펼쳐놓은 지도에 이윽도록 시선을 주었다.

《확실히 내가 세운 작전방안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주관적육망에만 사로잡혀서 골반이식으로 넓다 밀고만 나가려니... 이렇게 가슴아픈 희생이 자주 생기지 않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건 나도 같소.》

김책의 목소리 역시 무거웠다.

《김책동지, 제 정신육체적능력이 따라서지 못하여 장군님의 작전적방침을 관철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 그게 무섭습니다.》

끝날갈던 강건의 눈에 이 순간 두려움과 애원의 빛이 흘렀다.

마주보는 김책의 눈이 불타고있었다.

《하지만 신래, 혁명가는 육체적으로는 쓰러질수 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결코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고... 장군님께서 일찌기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동무나 나나... 그걸 잊으면 안되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서인지 요샌 이렇게 자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혹과 두려움이 앞서는걸 어쩔수 없습니다. 내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괴롭습니다.》

마지막목소리는 거의 바람소리처럼 새어나왔다.

김책의 눈가에 서렸던 노기가 서서히 스러졌다.

사랑하는 수제자, 동지이며 전우... 그토록 솔직한 강건의 번민과 동요를 보며 그에 대한 측은한 연민의 정이 또다시 복받쳐오르는듯 김책은 말없이 강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저건 진정이다. 진정에는 진정으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그 대답은?... 이런 때 이 젊은 혁명가에게 줄 정신적보약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복잡한 심중의 목소리가 그 눈빛에 실려있었다.

물고뿌를 손에 든채 강건의 측간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김책은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나서 고뿌를 탕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슴이 답답한듯 목을 움직이며 목단추 하나를 서둘러 끌러터쳤다.

련락군관이 뛰어들어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곧 서울에 도착하신다는것을 알리고 뒤미처 부관장 강덕수가 나타난것은 바로 그무렵이었다....

강건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나직이 한숨을 내그었다. 자기가 이처럼 나약해진것이 저로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허나 지꼇게 갈마드는 그 소심한 생각을 털어버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달빛으로 하여 사위는 대낮처럼 밝았다.

그러나 강건의 마음속은 어둡기만 하였다.

강건은 자신을 다잡았다.

(아니, 이젠 결코 나약성으로만 볼것이 아니다.

일종의 책임감이고 도의이다.

내 육체와 두뇌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따라서지 못한다면, 그래서 작전에 지장을 주고 리칠수, 최춘국이와 같은 아까운 동지들의 희생을 자꾸 빚어낸다면 그 죄를 도대체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그렇다. 괴롭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전선사령관동지에게 제기한 나의 의견은 옳은 것이었다.)

저도 모르는새에 손에 들고있던 나무가지가 툭 꺾어져나갔다. 그와 함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큰 것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다.

강건은 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어데선가 소연한 물소리가 들려온다.

둘러보니 저쪽 소나무숲사이로 달빛을 품어안은 풀개물이 무언가를 속삭이듯 반짝반짝 빛을 뿌리며 머드럭판을 누벼흐르고있다.

찰나 강건의 눈앞으로는 잊을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 언뜻 스쳐지나갔다.

...아득히 흘러간 20여년전의 그날, 부모따라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던 눈물젖은 그 저녁의 시내가, 그날도 무심한 달빛은 저처럼 내물우에 부서져 들뛰며 춤을 추었다.

남의 집에 민며느리로 팔려간 콩지머리 열한살 누이를 땔귀두고 가려니 온 식구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총끓어진 짚신짜를 손에 들고 쫓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치며 함께 가자고 막무가내로 때질하던 애어린 누나.

《나 혼자 어떻게 사나요!》

그 애절한 하소에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갓 열살잡힌 더벅머리 신태도 주먹으로 눈굽을 닦고 코를 훔쳤다.

《언넌아, 기다려...

내 크면 꼭... 널 데리러 올게...》

신태는 목메어 울먹이며 배잠뱅이주머니에서 까맣게 탄 누룽지 한덩이를 꺼냈다.

《이걸 먹어.》

바래주던 옆집 둘이 엄마가 가다가 먹으라고 넣어준 강보리밥누룽지, 그날 사랑하는 누나에게 신태가 줄수 있었던것은 그 한궤기의 누룽지가 전부

였었다.

서로 네가 먹으라고 떠밀던 그 한덩이의 누룽지는 오늘 이때까지 강건의 가슴속 깊은 곳에 아픈 추억의 용어리로 차돌처럼 굳어진채 남아있었다. 정든 고향, 사랑하는 고향이었어도 설움많고 원한 많던 고향이었다....

지금 이 시각 어찌하여 불현듯 그날의 달빛과 그 한덩이의 누룽지가 눈앞에 떠오르는것인지?

강건은 그 까닭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펄쩍 놀라며 눈을 꼭 감았다.

(이게 바로 내가 약해진 표현이다. 조국의 운명을 건 큰 전쟁이 한창인 때에 그것을 지휘한다는 내가 순간이나마 사사로운 감정에 포로되다니...)

강건은 서둘러 그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가로 저었다.

그러자 눈앞에는 다시 등고선과 각종 부호들로 얹힌 전선상황지도가 떠오른다.

살아숨쉬는듯 부단히 소리치고 움직이며 요구하는 지도우의 그 부호들. 그렇다, 지금 내가 할일은...

강건은 달빛에 시계를 비쳐보았다.

장군님께서 도착하실 시간이 거의 되어온다.

오시면 곧 작전회의가 열릴것이다.

(회의에서 나의 결함을 죄다 총화받자.

그리고 죄스럽지만... 마음속 결심을 장군님께 보고드리자.)

다시 옮기는 강건의 발걸음은 더더욱 무거웠다.

3

수안보전선사령부에서의 작전회의는 한낮에야 끝났다.

작전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 제1계단 4차작전에서 나타난 일부 편향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도시공격을 위주로 하면서 적을 대도로를 따라 밀고만 나가는 그러한 전투행동은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조선땅에서 우리 나라를 침략한 미제와 싸우고있는것만큼 우리 나라의 지형과 우리의 무장장비에 알맞는 그러한 전투행동으로 적을 타승해야 하는것이다.

더우기 적항공습격이 심하고 기동로가 제한된 산악조건을 구실로 포병화력을 잘 리용하지 않으며 적을 보병만으로 정면타격하는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이것은 현대전투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는, 본질에 있어서 패배주의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선사령부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일깨워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아적는 강건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으로 하여 금시 온몸이 땅속에 잦아드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강건은 작전회의 뒤끝에 장군님을 따로 만나뵈을 조용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뜻밖에 찾아들었다.

...

《강건동무, 앞에 타시오.》

간소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천막에서 나오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승용차앞에서 웃으시며 이르시였다. 아직도 회의에서 받은 충격의 여파에서 채 헤어나지 못하고있던 강건은 놀랐다.

결에 서있던 김책이 걱정스런 낯빛으로 좀 휴식 하시지 않고 또 어디로 가시려는가고 말씀드렸다.

《김책동무는 여기 남아서 오후에 진행할 작전회의 준비를 하시오.

전선정황과 지형을 현지에서 료해하는 겸 내 강건동무와 함께 문경고개쪽에 갔다오겠소.

다른 사람들은 일체 따라서지 마시오.

그저 조용히 갔다오겠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책을 의미있게 바라보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렇게 되어 강건은 강덕수와 함께 장군님을 모시고 수안보에서 또 남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전선으로 내달리게 되었다.

승용차의 앞좌석에 앉은 강건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 이룰데 없었다.

대낮에, 그것도 아무런 호위성원도 없이 적패잔병들이 옥실거리고 때없이 공습의 위협이 잦아드는 전선도로를 장군님을 모시고 달린다는것이 너무나 어마치마한 일이어서 가슴이 널뛰듯 했다.

그래 애초에 속에 다져넣었던 말씀도 한마디 드리지 못하고 굳어진 몸을 꺾듯이 편채 전방과 공중감시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시였다.

《강건동무, 우리 이 기세로 냅다 달려 아예 상주에 들어서지요.》

《네?》

강건이 너무 놀라서 불쑥 영치까지 들었다.

《상...상주 말입니까? 아니, 거기야 아직 전투가 한창인 계선인데...》

김일성 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왜? 전투가 한창이라는건 알면서도 제 고향이란 생각은 잊었소? 20여년만에 이렇게 고향집문앞으로 달려가는데 꼭 내쳐 갈 용기가 없소? 허, 이거 열정가 강건이답지 못하다?》

그제서야 장군님께서 잔뜩 굳어진 자기의 긴장을 풀어주시려 룡을 하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강건은 몇척계 웃으며 뒤터수기를 굽었다.

그럴 때 보면 강건은 꼭 어린 소년처럼 순진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은연중 마음이 즐거우시여 강건의 어깨에 한손을 다정히 얹으시였다.

《강건동무, 원동에 있을 때 동문 이제 고향 상주에 가면 우리에게 어죽을 쑤어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지?》

《네? 그걸 아직 기억하고계십니까?》

《허, 이것 봐라? 상주특산술을 내겠다고 한거랑 잊은줄 아오? 내기 아까와서 그러는게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강건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그걸 왜 어기겠습니까. 제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믿으십시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옆에서 보고있던 강덕수의 입도 빙글서해졌다. 차안에 서렸던 긴장은 어느새 다 날아나버렸다. 강건도 한층 활기를 띠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제 실은 장군님께 한가지 말씀을리려던것이 있는데...》

《됐소됐소. 그건 좀 이따가 듣지요. 그래도 일 없지?》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금 강건이 무엇을 말하려했는가를 짐작하고계시였다.

어제 밤 서울에서 나올 때 다리가 무너진 곳에서 한동안 자동차를 세우고 내려 거니시면서 김책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였던것이다.

... 《장군님, 강건동무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책의 어조에서는 강건에 대한 깊은 념려의 정이 풍기고있었다.

강건의 고충을 리해하면서도 그를 곁에서 떼어놓고 싶지 않아하는 그 마음이 엿보여 **김일성** 동지께서는 은근히 속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래 김책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저...》

김책은 잠시 말을 더듬었다. 언제나 예두름을 모르고 자기 속을 끝이끝대로 터놓는 그였다.

《휴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보내고싶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를 일에서 떼내면 더 맥을 놓고 쓰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도 큼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본래는 무슨 본래이겠소. 그야 김책동무가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것이지.

난 동무가 그럴줄 알았습니다.

김책동무, 혁명투쟁을 떠나서 무슨 강건이 있겠소? 우리 그를 어떻게 휴식시킬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혁명을 계속하게 도와주겠는가 하는걸 생각합시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선생이었다는게 그 방도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걱정만 앞세우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여유있게 긍정하시였다.

《김책동무, 이따가 작전회의가 끝난 다음 내가 강건동무를 따로 만나보겠으니 너무 마음쓰지 마시오.》

그제서야 김책은 한시름 놓이는지 얼굴에 밝은 표정을 떠올렸다.

《장군님, 제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또… 그러지 않아도 바쁘신 장군님께 덧부담을 끼쳐드리는 가봅니다.》

김책은 진정으로 사뭇 미안해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헌헌히 웃으시였다.

《그게 왜 덧부담이겠소.

사람에 대한 문제, 더더구나 혁명동지에 대한 문제는 작전전술상의 문제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선차의 선차문제가 아니겠소.

내가 지금 수안보로 나가는것도 실은 강건동무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 중요한 까닭이 있소. 강건동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서울에서 그냥 되돌아선다면 내 발길이 쉽게 떨어지겠소?》

김일성 동지의 음성은 약간 갈리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 두뼘두뼘 걸음을 옮기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시 김책의 앞에 돌아서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책동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물론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해야 하오.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하고싶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원수에 대한 증오로 하는것이기도 하지만 조국과 인민,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는것이라고 말이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손을 들어 힘있게 내저으시였다.

김책의 가슴들먹이는 숨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옆에 선 강덕수의 팔을 짊어 그러쥐었다. 그 거동에서는 이 전쟁의 참의미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겨보며 흥분을 지체 못하는 오랜 혁명가인 김책의 심증이 환히 드러나고있었다. …

지금 문경고개로 달리고있는 강건은 간밤에 이런 자연이 있을줄 알수 없었다.

차는 얼마후 문경고개마루에 이르렀다.

…

해발 548메터인 문경고개는 경기와 평남을 연결하는 주요통로이면서 지경이었다.

여기로부터 남쪽으로 평남지방 즉 경상도땅이 시작된다.

오르면서 70리, 내리면서 70리라는 이 고개에는 예로부터 봄에 배꽃이 류달리 많다고 하여 리화령이란 꽤 운치있고 서정적인 이름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철과 불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고개, 수호자와 침략자, 정의와 부정의 총창들이 서로 맞부딪치면서 피의 격전을 벌였던 흔적이 여기저기에 진하게 남아있다. 보기에조차 참할 정도로 찢기고 파헤쳐진 온통 상처투성이의 령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가렐 처절했던 백병전의 자취들을 이윽도록 둘러보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방금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지도와 현지지형을 대조하시면서 강건으로부터 전선정황보고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작전적구상을 더욱 무르익히고나신 참이었다.

눈부신 8월의 태양이 하늘중천에서 폭열을 내려 쏟고있었다.

철에 찢기고 화약에 그을은 가지와 잎새들이 하늘을 향해 그 무엇을 하소하기라도 하듯 조용히 흐느끼고있다. 그에 화답하는가 어데선가 들려오는 때아닌 청아한 산새소리가 마음의 금선을 따끔하게 두드려준다.

앞에는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아아한 평남의 산야… 저 멀리 남해로 줄줄이 파도쳐 뻗어간 산발들을 바라보시는 **김일성** 동지의 안팎에 깊은 감회의 빛이 비졌다.

《강건동무,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높은 령에 올라서면 늘 버릇처럼 조국땅이 있는 남쪽을 바라보던 생각이 나오?》

《장군님, 그걸 어찌 잊겠습니까?》

《이렇게 남해가 앞에 있는 곳에 이르고보니 감회가 깊소. 동무도 나도… 우리 함께 혁명을 하면서 참 먼길을 걸어왔지.》

《장군님!…》

강건이 목메여 부르짖었다.

걸어온 길, 이제 가야 할 길… 멀리 산발들너머에서 전투가 한창인듯 몇줄기 연기가 뿌옇하게 피어오르고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 강건을 돌아보시였다.

《강건동무, 내 동무가 요즘 고충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소. 왜 자꾸 맥을 놓고 주저앉으려고 하오? 아직도 갈길이 먼데…》

강건은 머리를 수그렸다.

《장군님, 아무래도 제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가봅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작전은 뜻대로 되지 않지. 그래서 가슴아픈 희생을 내고… 그러다보니 자꾸 조금증이 앞서고 저도 모르게 언행만 거칠어집니다.

엊그제 밤에도 전화가 제대로 안된다고 나어진 통신결속소 녀성군인들에게 한바탕 화를 내고… 그리곤 곧 후회했습니다.》

역시 강건은 구김새없이 솔직한 사람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였다.

《강건동무, 엇그제가 무슨 날이던가?》

《네?》 강건의 눈이 덩돌해졌다.

《7월 29일, 안동과 함창, 상주해방작전을...》

《이렇다니까... 강건동무, 엇그제는 류두달이요. 예로부터 우리 녀성들이 즐겨기다리던 음력 류월보름이란 말이요.

아무리 전시라 해도 보름달이야 보름달이 아니겠소. 그런 날에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지는 못할망정 꾸지람을 하다니... 참 다정다감하기로 소문났던 강건동무답지 않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믿음어린 시선으로 강건을 여겨보시었다.

《강건동무, 내 아까 김책동무에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증오와 함께 사랑으로 하고있소. 병사들에 대한 사랑, 동지에 대한 사랑, 고향과 혈육,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하고있단 말이요.

그 사랑의 불씨가 동무의 가슴에서 식어가고있지 않는가 잘 되새겨보오.

그렇게 시꺼매서 메달라가지 말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또다시 웃으시며 화제를 돌리시었다.

《강건동무, 상주가 저기쯤 되지?》

강건은 발돋움을 하였다.

《저기 저 우측으로 멀리 보이는것이 속리산인데 그아래에 상주가 있습니다. 여기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허! 나도 멀리서나마 강건동무 고향을 한번 보려했는데 유감이구만.

강건동무, 그래두 동무의 눈엔 지금 상주가 선히 보여야 하오. 누이의 모습도 보이고...》

김일성 동지의 존안에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흘렀다.

강건은 뒤늦게야 말씀의 뜻을 가려듣고 시뭇이 웃었다.

《네, 솔직히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럴 짬도 없었습니다. 어찌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 자신을 다잡곤 했습니다.

이제 남해까지 가닿고 전쟁을 결속한 다음에 한숨 돌리며 고향생각을 해두 하자구...》

김일성 동지께서는 강건의 잔등을 가볍게 툅 치시었다.

《강건이, 바로 그게 동무가 잘못 생각한거요.

고향생각을 버리다니?... 드바쁘고 힘든 때일수록 고향생각을 더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파스해지고 온몸에 새힘이 융솟는 법이거든.

그렇지 않소?》

강건은 미처 대답을 못 올리고 한손을 뒤더수기에 가져갔다.

그러는 강건에게 **김일성** 동지께서는 타이르트

말씀하시었다.

《강건동무, 내 아까 잊었는데 이제 내려가면 김책동무가 준 배낭을 다시 받아 잘 건사하오.

저 덕수동무가 서울에서 예까지 가지고왔소.

그리고 나도 강건동무가 고향에 돌아가는데 뭘 좀 보태주고싶어서 거기에 명주옷감을 하나 준비해더 넣었소. 내가 꼭 유명한 상주명주실로 짠것이어야 한다고 했더니 저 덕수동무가 온 서울장안을 다 뽏으며 땀 꺼나 뽏았대오.

그걸 가지고가 한뼘 땀흘려 명주실을 만지면서도 명주옷 한벌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을 누이에게 안겨주도록 하오. 헤어질 때 동무가 누룽지 한 켜기밖에 주지 못했단 그 불쌍한 누이에게 말이요... 강건동무, 사람이 순간도 고향과 혈육을 잊으면 안되오.》

쿵, 쿵— 멀리에서 은은한 포성이 잇달아올려왔다. 그사이로 매미들의 평화로운 노래가 도간도간 섞여든다.

심중의 생각을 더듬는듯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강건동무, 난 빨찌산시절 천교령의 눈보라속에서도, 멀리 북만으로 로야령을 넘을 때도, 또 고난의 행군길을 헤칠 때도 언제한번 마음속에서 그리운 만경대를 잊은적이 없었소. 사립문을 나설 때면 흰옷입은 어머님이 잘 다녀오라고 손저어 바래주시던 고향,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놀던 모습... 나의 눈앞엔 언제나 그 모든것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이곤 했소.

그럴 때마다 난 마음속으로 조용히 〈사향가〉를 부르곤 했지. 그 노래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거든.

방금전에도 난 이제 해쳐가야 할 험치 않은 저 앞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사향가〉를 불렀더랬소.》

《장군님!》

숙연한 정적이 흘렀다.

포연내를 싣고온 한줄금 산바람에 **김일성** 동지의 옷자락이 가벼이 날렸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저력있는 웅글은 음성으로 조용히 노래를 폐시었다.

...

우리 집에서 멀리 앉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

노래소리는 훈풍을 타고 잎새들을 흔들며 유정하게 울려갔다.

언제부터인지 강건은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노래를 따라부르고있었다. 노래의 선율을 타고 부드럽고 파스한 향수가 가슴속으로 안개마냥 그윽하게 밀려든다. 눈앞에는 잊고지냈던, 잊으려 했던 고향의 정든 산천이 어서 오라 손짓하듯 우렁이 안겨든다.

오,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그리운 산천, 기어이 돌아가야 할 정든 내 고향!...

고향아, 내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으리라, 땀뻑하고 부끄럼없이 네 품에 안기리라!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온다. 더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린다. 언제인가 장군님을 모시고 이 노래를 부르던 타향의 그 달밤이 떠오른다.

강건은 지금 그때처럼 전우들과 함께 장군님을 따라 걷고있는듯 한 환각에 휩싸였다.

톡톡— 심장에서 솟구친 더운 피가 혈관을 따라 사뭇치기 시작하는것을 느꼈다.

(그때, 난 그 대오에서 한생토록 우리 장군님 발걸음을 한자욱도 헛디딤없이 그대로만 따라걸으리라 하고 마음다지고 또 다졌건만 장군님심중에 용암처럼 차넘치는 저 뜨거운 정과 열의 세계, 굳고굳은 신념의 세계를 다 알고 따라서기에는 내 아직 너무나도 아는것이 적고 미숙한 인간이었구나!)

그전과는 또 다른 크나큰 자책이 불덩어리마냥 가슴을 아프게 지지고들었다.

그 뜨거움속에 강건은 자기가 작전실에서 확대경을 바투 대고 지도에만 몰두하던 그런 근시안적인 인간으로부터 멀리 앞을 내다보며 거인으로 성장하는것을 분명 의식했다. 온몸에 새힘이 솟아올랐다...

《장군님, 순간이나마 마음이 약해졌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팔로 강건의 어깨를 지그시 힘주어 껴안으시었다.

《그렇소, 강건동무.

혁명을 하는 길에 어찌 힘들 때가 없고 피로울 때가 없겠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저않을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면서 용약 일떠서야 하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결코 지리적개념만이 아니요. 고향은 혁명가의 첫 언약이 깊이 새겨진 마음속의 별과도 같은 그런것이요.

그것을 잃으면 안되오.

명심하오. 그가 아무리 총명하고 숨쉴있는 일군이래 해도 가슴속에 그 별이 없다면 그는 벌써 혁명가이기를 그만둔 사람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장군님!...》

강건의 목소리는 힘있었다.

이 순간 그는 즐기차고 열정넘치던 어제날의 빨찌산의 용장— 굳센 혁명가 강건으로 다시 태어나고있었다.

그러던 강건동지가 1950년 9월 8일 바로 고향 상주를 눈앞에 둔 곳에서 그만 애석하게도 희생되셨소.

20여년전 눈물속에 헤어진 누이를 꼭 찾아 만나겠다던 그 말은 유언으로 되고말았지.

아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사연깊은 명주옷감도 전달하지 못한채, 사신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걷고걸어온 투쟁의 길, 고향으로 잇닿은 길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32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 힘찬 발걸음을 멈추고말았소.

그로부터 몇달후엔 김책동지마저 우리 수령님결을 떠나갔지.

아, 정말 가슴터지는 날들이었소...

난 지금도 종종 생각해보곤 하오.

강건동지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것인가 하고 말ियो.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에겐 그가 꼭 이런 말을 맘속으로나마 남겼을것 같소.

《장군님, 순간이나마 심장에서 사랑의 불길이 스러져 얼어들뻔 했던 저의 가슴에 또다시 뜨거운 불씨를 심어주시고 불을 지펴주시여 고맙습니다.

그 불이 있어 저는 짧은 한생이지만 혁명의 한길에서 부끄럼없이 자신을 활활 불태울수 있었습시다.》 하고 말ियो.

강건동지의 희생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소.

나는 짧지 않은 나날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목격하고 체험하였소.

수령님께서 강건동지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그의 공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제1중앙관학교를 강건군관학교로 명명하도록 하시었소.

또 공화국창건 20돐때에는 사리원시에 강건동지의 동상을 세우도록 하여주셨지.

난 지금도 사업상용무로 사리원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강건동지동상앞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곤 하오.

언제인가 한번은 개성쪽에 갔다오다가 강건동지동상앞에서 차를 내렸는데 그날따라 달이 류달리 밝기도 했소. 알고보니 그날이 바로 음력 류월보름이라는게 아니겠소.

난 참 감회가 깊었소.

60여년전 그날의 달밤이 눈앞에 어제런듯 선하게 떠오르더군.

그때 난 강건동지와 마음속 말을 주고받았소.

(강건동지, 아버지수령님께서 강건동지를 고향 상주와 한결음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고싶으시여 동상터전을 여기 사리원시에 잡아주시것이 아닐까요?

강건동지가 늘 고향을 바라보며 살라고 동상을 굳

우리에게 김정원수님이 계신다

김 덕 선

우리에게 **김정원수**님이 계신다

가장 행복한 날에 이 말은 울린다
가장 준엄한 날에 이 말은 울린다
이는 행복과 떼어놓을수 없는 그이
이는 승리와 떼어놓을수 없는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

인민이 바라는 희망의 언덕에 이 말은 울린다
인민이 가야 할 승리의 언덕에 이 말은 울린다
그이께서 계신다는것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운명인 조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 인민의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자부

그이 계셔야 행복도 승리도 있기에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이
그이께서 계신다
인민을 위한 조국수호의 최전방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의 최대열점지역

그날에 인민은 보았다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풍랑을 헤치시며
장재도와 무도를 찾아
조국의 안녕을 위해
한몸 방패마냥 서슴없이 내대신 그이의 모습

그날에 인민들은 보았다
백두산장군의 거연하신 모습
쌍안경을 높이 드시여 적진을 노려보시며

조국통일성전으로 부르신 그이의 근엄한 모습

전쟁의 핵구름 밀려오는 이 시각
조선을 지켜보는 세계의 눈길 한데 모으며
그이께서 내리신 단호한 결심
이 땅에 미제가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짓무개버릴
그이 지니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이 결심
이 담력으로
핵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원썬놈들의
숨통을 눌러딘고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주셨나니

오, 그이의 결심
그이의 담력으로
조국통일성전의 명령을 안고사는
우리는 세계에 웨친다
조선은 인류에게 웨친다

우리에게 **김정원수**님이 계신다

이 말은 7.27의 경축의 축포성에 울린다
이 말은 선군조선의 승리봉에 울린다
이 말을 안고 조선은 세계복판에 우뚝 솟아있다
이 말을 안고 대지우에 봄썩이 움터나 오펙이
셀렌다
이 말을 안고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이
7월의 강산에 차넘친다

이 남쪽을 향하게 세우도록 해주신것이 아닐까요?)
그러느라니 마음속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회고록
에서 하신 말씀이 자자구구 떠오르는게 아니겠소.

강건이처럼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열렬히 사랑
하는 사람은 혁명을 해도 열렬하게 한다고, 향토애
가 강한 사람은 조국애도 강하며 조국애가 강한 사
람은 혁명열도 높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말ियो.

강건동지를 그렇게 키워주신 수령님께서서는 력사
앞에 바로 그렇게 일러주셨단 말ियो.

난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소.

보름달이 밝은건 다름아닌 해빛을 받아서이기에
문이라는 자연의 리치를 말ियो.

그렇소.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믿음속에 강건
동지는 오늘도 수령님께서 배워주신 《사향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앞에서 못다 걸은 혁명의 길
을 계속 억세게 걸어가고있소.

혁명가의 첫 언약이 새겨진 마음속의 별, 밝은 시내
흐르는 고향을 가슴에 소중한 품어안고서 말ियो....

×

이 글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삼가
드리면서 나는 아직 그닥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
력사적사실의 꾸밈없는 기록자, 전달자임을 긍지높
이 부연하고싶다.

존엄이 있어 운명도 지켜진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에 대하여—

김 학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을 다 담아낼 장서는 없다. 지경과 국경을 넘어 온 우주를 호홉하시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이 세상 그 어떤 생소한 길도 다 걸어보신 절세의 위인, 그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하늘에 닿았는데 칭송의 노래는 너무도 낮은것 같아 무딘 붓을 탓하는 인류의 마음이다. 하지만 **김일성**민족의 후손으로서 우리 작가들은 이 방대한 력사적과제, 아아한 탐구의 산악이건만 붓대를 총대처럼 틀어쥐고 수령형상창조의 진격로를 파감히 헤쳐나간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정기종 작)이 바로 그 길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소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파란많은 세계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 내 조국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신 력사적사실들을 감명깊게 형상하면서 인류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를 밝혀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품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된다.》

방대한 생활, 아름다운 과제

총서계렬의 작품들치고 방대한 생활과 아름다운 형상과제를 안고있지 않는 소설이 없다.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과 중하를 한몸에 지니고 계시는 수령의 생애와 활동을 그리는 수령형상작품에서 생활반영의 방대성과 형상과제의 심오성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상대적인 차이를 론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장편소설 《운명》은 취급하고있는 시대적배경과 해결코져 하는 인간학적인 문제성의 특성으로부터 참으로 험치 않은 형상과제를 제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선 주목된다.

소설의 시대적배경은 1960년대이다.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세계혁명운동안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대국주의행위로 하여 사회주의나라 당들과 형제국가들사이에 복잡한 문제들이 산생되던 엄중한 시기, 우리 대오안에서도 일부 동요분자, 추종분자들이 나타나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던 엄중한 시기였다.

하여 소설의 무대는 어차피 국내의 방방곡곡은 물론 그를 벗어나 세계적범위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때 개인의 사생활로부터 국가간, 민족간의 크고작은 각방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엉키게 된다.

소설은 여기로부터 나라와 민족, 인간의 자주성, 자주적존엄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인 주제로 제기하고 형상의 정면에서 취급하였다.

이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원래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대전제이기도 하고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인간문제이기도 하며 부피 큰 장편소설의 격에도 맞는 형상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자주시대의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필수불가결의 문제라고도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인 주제로, 기본형상과제로 제기한데 대해서는 결코 간과할수 없다.

사람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그 포괄범위가 헤아릴수없이 넓으며 작품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직접적인 주제로 제기하여야만 하는것도 아니다.

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인간문제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일 때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그릴 수 있다. 그 어떤 인간문제를 제기한다 하여도 그것이 자주성에 관한 문제에 귀결될 수 있게 형상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상원칙이 자주성문제의 직접적인 제기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창작실천상의 사상미학적난문제와 결부된 선택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시대적배경의 요구와 취급되는 생활의 본리에 언제든 충실할 때 명작이 된다.

장편소설 《운명》은 바로 수령형상장편소설의 제반 형태상특성은 물론 문제제기의 요구에도 충실함으로써 논의할만 한 형상적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나라와 민족, 인간의 자주적존엄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인 주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풀어보인 것이다.

남일: 《그렇습니다. 수령님, 정신이 번쩍 든다고 했습니다. 인제는 제힘을 믿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의 인격은 물론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 수 있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김일: 《그것은 바로 수령의 권위이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자주성이라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그리구 언제든 잊지 말것은... 적들앞에서는 가까운 벗들앞에서는 절대 민족적존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요. 무슨 일이건 떳떳하고 배심있게 밀고나가야 하오. 배심이자 곧 자존심이고 존엄이고 자주성이요!》

소설형상의 갈피갈피에 깊이깊이 새겨져있는 철의 진리는 나라와 민족, 인간의 자주적존엄은 그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이다.

즉 자주적존엄의 운명은 수령이시라는것이다.

물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투철한 자주의 한생이었고 조선혁명의 력사 또한 자주로선의 철저한 구현으로 일관된 로정이였다.

1960년대 우리 조국과 혁명이 처한 엄혹한 현실이 그 어느때보다도 자주성을 운명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해도 미학실천상의 바다에 선뜻 뛰어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보다 높은 총정과 지성, 보다 담대한 배짱과 심

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형상이전의 문제이다.

그러나 장편소설 《운명》의 창작성과는 말해지고있다, 작품에 대한 논의는 창작이전의 작가적라세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것을.

숭고한 자주정신의 최고전형

장편소설 《운명》이 제기한 심각한 문제는 두 말할것없이 수령형상문학의 제일주인공인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심오히 해명되고있다.

1960년대 조선혁명, 세계사회주의운동앞에 드리운 엄중한 난관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가장 과학적인 통찰력, 그보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었던 숭고한 자주정신의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타개된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의 자주의 한평생을 폭넓게 일반화하였으며 자주시대 력사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우리 수령님은 무엇보다도 자주사상리론의 위대한 창시자이시였다.

원래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깊이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강조되어야 한다.

소설은 내세운 형상과제의 특성에 맞게 자주의 사상리론을 심오히 밝혀주시는 수령님의 형상에 주되는 판심을 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웁습니다. 동무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자주권을 지킬수 있습니다, 자주권을!...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부르던 혁명가요에도 있는것처럼 자유가 없으면 살아도 죽은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자주성이고 자주성은 곧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어이 병진을 해야 합니다.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여 그 어떤 원썬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하는것입니다.》

자주의 사상리론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구체화되었다. 절정에 치닫는 꾸바의 까리브해위기, 미국의

위협공갈에 굴복하여 꾸바에 전개했던 미싸일과 중 폭격기들을 전부 철수해간 쏘련, 땅크를 녹여 보습을 만들자는 흐루쇼브의 구호 밑에 휘몰아치는 수정주의바람, 남부웰남을 불바다로 만드는 미군, 쏘련의 대국주의적전황을 규탄하는 중국, 조선동해로 기여드는 미항공모함전단, 포연을 날리며 무한계도로 이 땅을 물어뜯는 미지상군의 각종 땅크와 자동포들... 전쟁의 바퀴, 전쟁의 무한계도가 우리의 턱 밑에까지 굴러오고있다...

위인의 사색은 하나의 비상한 진리를 도출해낸다.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제는 지금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고있다. 그 불길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타번지고있다. 이렇듯 긴박한 정세는 우리에게 속히 국방에 힘을 집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누구도 우릴 지켜줄수 없다. 까리브해의 위기때를 돌이켜보라. 남의것이 아무리 위력한 로케트라고 해도 제 손에 쥐여있는 보총보다는 못하다. 이것은 지나온 력사가 우리에게 새겨준 심각한 교훈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철의 주먹으로 지켜야 한다.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애걸하거나 맨주먹을 내흔들며 울분을 터치는것으로는 결코 지켜낼수 없다...

하여 철저한 자주로 일관된 경제국방병진로선이 제시된다. 사실 그 어느 위인도 내리지 못한, 로동계급의 그 어떤 리론에도 없는 결단이고 사상이었다. 대국들사이에 끼여있는 작은 나라가 아직은 형제당, 형제국가들의 후광이 탈색되지 않은 형편에서, 더우기 지난날 지지리 못할던 우리 인민이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는가 하는 한계선에 와서 병진로선을 제시한다는것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닌 수령, 민족자주정신의 최고화신이신 우리 수령님만이 내릴수 있는 용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로선은 국제무대에서도 비범한 사상리론으로 빛나고있음을 소설은 각이한 형상적측면에서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쏘련내각수상 교썬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우리 당은 언제나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다시말하지만 단결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든 형제당들이 누구에게도 맹종맹동하지 말고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지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통일단결이 이룩되어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도, 세계의 자주화도 앞당길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등소평과의 담화석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싸우는 전우들로서뿐만아니라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단결이라고 봅니다.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단결해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맹종맹동을 배격하고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고수,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단결... 이보다 명쾌한 단결의 전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소설은 이밖에도 여러 기회에 형제당들사이의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여도 그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문제이므로 조직적결렬에로 끌고가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사상,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 사상 등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수령님의 자주 사상리론들을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소설에서 자주정신의 최고전형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은 탁월한 사상리론가로서만이 아니라 걸출한 정치가, 전략가, 령도예술가로서의 고매한 품모에 대한 폭넓은 형상에서도 빛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사상리론의 창시가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국내는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령활무쌍한 혁명실천과 결합되어 이루어진것임을 정당하게 보여줌으로써 수령님의 독특한 사상리론활동과 령도예술의 전모를 격이 있게 강조할수 있었다.

우리 수령님의 자주 사상리론은 그야말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진정이었다. 경제국방병진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나라사정이었지만 꾸바와 웰남, 라오스와 캄보차 등 많은 나라들에 군사적, 경제적무상지원을 아끼지 않으시었다.

대국주의자들이 썩브가임을 권고하며 유혹할 때 도 목전의 《리익》에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립경제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으며 간고한 그 길에서 마련하신 재부로 형제나라, 형제당들의 혁명과 건설을 사심없이 도우시었다.

송고한 애국, 애민의 정우에 투철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무를 덧없으시고 공장과 농촌, 과학

원과 항만, 군부대들을 찾으시며 로고를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의 완강한 형상은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소설의 풍격을 한층 돋구고있다.

특히 형제당, 형제국가들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도맡아안으시고 이국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종횡무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서 독자들은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대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의 진실한 형상으로 해서 더욱 뜨겁다.

등소평:《참, 마오주석께서도 그 글들을 읽어보고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옛사람들이 말한것처럼〈인중직사형〉이라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중직사형-바르기가 저울과 같은 인물)

제 게바라:《웁습니다, 원수동지. 정말 명철하신 말씀입니다.〈절대 꾸바가 외로워지면 안된다.〉,〈외로리로 싸워선 안된다.〉,〈작은 나라들도 단결하여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떠야 한다.〉 정말 웁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란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적인 수령,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자의 최고모범, 세계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 탁월한 령도자로 칭송하는 중국의 주은래, 꾸바의 피델, 쉘남의 호志明 등의 저명한 국제적인 인물들의 형상은 참으로 인상깊다.

소설은 회세의 국제주의전사, 세계혁명의 수령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함께 우리 인민을 민족자주정신이 강한 존엄높은 조선사람으로 키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고매한 인간적 품모에 대한 형상에도 깊은 주목을 돌렸다.

《남일이, 우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 작은 나라라 해서 민족적인 존엄까지 작아질수 있겠는가? 아니, 그럴수 없소.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싸워이긴 조선사람들인데 무엇이 모자라 큰 나라라구 해서 머리를 조아리겠는가. 뭇때문에 공동의 위업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도 빛진 놈이 되어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노상 허리를 굽히고 살아야 하겠는가?...》

쏘련내각 제1부수상 미꼬얀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기와 탄약 등으로 진 빚을 물라고 올러멘데 대해 한마디 변변한 반박도 못한 남일외무상을 두고 하신 수령님의 질책이다.

정전담판 우리측 수석대표로 내세워주시고 판문

점으로 나가는 그를 위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가 타던 고급승용차(전리품)까지 손수 보내주신 수령님. 영웅조선의 영예와 자부심을 키워주시며 공화국의 당당한 외무상으로까지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배짱있는 자식으로, 존엄높은 조선사람으로 키우시려 아글타글 애쓰시는 수령님의 그 웅심깊은 믿음과 사랑속에서 외무상 남일뿐아니라 꾸바대사 장정환이도, 무역성의 젊은 일군 박유진이도, 내각건축설계실장 리웅산, 곡우중학교 교장 한초, 비행사 최봉호 등 많은 사람들이 수령님의 자애론 손길아래 투철한 자주정신의 소유자로 자라났다.

여기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주의 사상을 받들어 육친의 정으로 리웅산, 라정아, 박유진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형상은 이채로운것으로서 총서《불멸의 력사》계통의 소설창작에 일정한 경험을 시사하고있다.

정령 수령의 권위이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자주성이다. 수령이 있어 조국과 민족, 인간의 자주적존엄도 있는것이다.

이 력사의 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여지없이 밝혀낸데 소설의 성과가 있다.

사색과 추억

수령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문제는 수령형상문학의 주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장편소설《운명》은 이 요구에 남다르게 충신했다고 볼수 있다. 소설에서 수령님의 형상은 거의 그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면세계로 실현되고있다.

소설에서 수령님의 내면심리묘사는 크게 사색과 추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교차되고 침투되면서도 각기 독자적인 형상적효과를 드러내고있다. 다시말하여 사색속에 추억이 있고 추억속에 사색이 있지만 사색이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는데 이바지한다면 추억은 사색의 전제를 마련하면서 다양한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을 의미적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다같이 력사적구체성속에서 다양한 심리를 체험하시는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개방하고 나아가서 위대한 인간적품모의 뚜렷한 부각에 기여한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 문학작품에서 어느 한 대상을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비슷한 표현가운데서 그 대상에 가장 적중한 하나의 표현을 찾아내는데 작가의 재능이 있다. 대상의 본질을 명증하는 적중한 어휘를 찾아내는 작가의 노력에 대하여 산더미같은 금광의 버럭 속에서 한알의 금싸래기를 얻어내는 일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문장을 다듬는데 땀심을 넣는 작가만이 보석처럼 빛을 내는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낼수 있다.》

《인민은 알기 쉬운 말로 생활의 진리를 표현할줄 아는 작가를 사랑하며 따른다.》

《수령님의 추억》(1)－ 1956년 6월 쎄브가입문제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흐루쇼브앞에서 밝히신 단호한 원칙적립장에 대한 사실.

《수령님의 추억》(2)－ 1951년 7월 정전담판 우리측 수석대표로 판문점에 나가는 총참모장 남일에 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웅조선의 영예와 자부심을 안겨주신 사실.

《수령님의 추억》(3)－ 1965년으로부터 몇해전, 중국방문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주석을 비롯한 등소평, 류소기 등 중국의 당 및 정부지도자들을 만나시여 중국당과 소련당과의 관계문제, 로므니아 당 및 정부대표단에 대한 중국당의 태도문제에 가장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의견을 준 사실.

《수령님의 추억》(4)－ 1960년 12월초 구바공화국혁명정부 경제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체 게바라를 접견해주시고 사회주의건설과 구바혁명보위, 세계적규모에서의 반제반미투쟁에서 나서는 제 문제들에 대해 명철한 대답을 주신 사실.

보다싶이 《수령님의 추억》들은 소설이 기본시대적배경으로 삼고있는 1960년대 중엽이전의 역사적사실들이다.

주체적특성으로 하여 시공간적으로 넓혀있는 방대한 사건, 사실들이 자주로선에 초점을 맞춘 1960년대의 시점에서 선별, 결합되였다.

결과 산만성이 초래될수 있었던 위험을 극복하고 형상의 립체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수령님의 추억》이 주로 사건적으로 수령님의 심리세계, 체험세계를 보여주고있다면 《수령님의 사색》은 요긴한 대목마다에서 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방으로 형상적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도 추억의 요소는 있으나 그것은 사색

에 복종된 전제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

실례로 중국에서 첫 원자탄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점에서 펼쳐지는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가 그렇다.

흐루쇼브의 실각과 때를 같이하여 진행된 중국의 핵시험의 성공을 두고 격변하는 세계의 정치정세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는 수령님의 사색은 1962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 당시 상황으로 넘어가 경제국방병진로선을 결정하던 사실을 뜨겁게 추억하고 다시 그 로선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철의 주먹으로 지켜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담대한 결단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월남의 호志明주석이 수령님께 친서를 보내온 시점에서의 《수령님의 사색》(2) 그리고 당대표자회 보고문을 보시면서 펼쳐시는 《수령님의 사색》(3), 국제주의전사 체 게바라의 최후와 영웅적위훈을 두고 이어가시는 《수령님의 사색》(4) 등도 추억이 동반된 굴곡있는 심오한 심리묘사속에 세계자주화위업의 탁월한 령도자로서, 인류를 품어안은 대성인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품모를 질게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자주와 예측, 존엄과 굴종의 예리한 대립으로 정교하게 엮은 구성, 딱딱하고 론리적인 내용도 구수한 감성적형식으로 표현한 언어형상 등 수령형상장편의 풍격을 실속있게 담보한 성과적측면을 더 론할수 있다.

소설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짱과 담력으로 세계를 굽어보며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더 한껏 높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승리》상이 빛난다

리 명 근

금시 포연이 불타는 고지에서
공화국기 거연히 추켜든 병사
승리의 만세를 터치는가
또다시 돌격으로 부르는가
여기 보통강기슭 전승기념관앞에
오, 《승리》상이 서있다

저 힘찬 모습에 다 비껴있구나
전승을 안아온 내 조국의 환희가
승리를 위하여 피흘린 그 세월이
그리고 승리만을 영원히 이어갈
이 나라 천만군민의 역센 신념이

《승리》상의 저 병사가 아니라
돌격로를 열어 철조망에 몸을 덮은
용해공출신 그 전사가
아니면 육박전을 앞두고
마라초를 말군 하던 농민출신 전사는 아닌지
휴식참이면 즐겨 시를 쓰던
고종내기 그 병사는 또 아닌가

어찌보면 전선길에서
수령님을 만나뵈는 병사일수도 있으리
모범전투원의 자랑을 안고
수령님께 노래를 요청한 그 전사
진정 그들모두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값높이 산 사람들...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가장 평범한 병사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있는
전승기념관의 《승리》상이여

바로 승리란 그 말속에
고향도 부모형제도
한없이 귀중한 조국도 있었기에
승리를 위해 아낌없이 삶을 바친

유명무명의 열혈전사들

여기선 무심히 볼수 없구나
가슴펴고 서있는 저 로병들
그 가슴앞에 절렁이는 훈장...
나어린 아들에게 꽃다발 안겨 찾아온
젊은 너인의 행복넘친 저 눈빛

이앞에선
가슴후련히 승리를 안아보는
남다른 긍지가 있다
승리한 인민이고 그 후손이라는
무한한 행복과 자부심
뿜어넘치는 환희가 있다

7.27의 거대한 무게를 안고
승리한 땅을 억세게 딛고선
승리한 민족의 자랑찬 군상이여
그대앞에서 승리한 어제와
승리할 태일을 다 부여안고
내 목청껏 웨치고싶구나

승리여 전승의 날이여
조국과 민족의 숨결속에
언제나 살아숨쉬는 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축복을 안고
도도히 굽이치는 **김정은**시대의 열풍속에
승리는 언제나 함께 있거니

오, 《승리》상 《승리》상
최후승리로 뻗어간
조선의 거대한 진군길에
그대는 거연히 서있다
태양의 빛발을 안고
세기의 하늘가에 빛난다
아아, 《승리》상이 빛난다!



최 종 하

《…미국제 땅크며 대구경포와 차량, 비행기들… 미군사고문들에 의하여 교련된 정예부대들… 〈국군〉이 미국의 거대하고 우악스러운 주먹안에 들어있는 돌덩이와 같이 튼튼한 존재라고 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아직은 청소한 존재였다. 미국은 온갖 품을 들여 다지고다진 〈국군〉이라는 돌덩이를 1950년 6월 공화국을 향하여 던지였다.

그런데 공화국의 주먹과 맞부딪치는 순간 험창하게 터지고 우그러들고 피투성이가 된것은 불행하게도 미국의 주먹이었다.

집이 더러 난 미국이라는 사나이는 자기의 주먹을 더 크게 버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자 〈유엔〉의 간판을 내걸고 〈세계의 주먹들을 한데 모아 북의 작은 주먹을 짓눌러야 이 행성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미국의 옷깃안에서 절그렁거리는 딸라주머니에 느침을 흘리던 어중이떠중이들이 주먹을 둘러메고 달려왔다.

그래서 미국은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서로 다른 15개의 주먹들을 더 합친 〈거대한〉 주먹으로 〈강타〉를 들이댈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얻어맞아 만신창이 되다못해 아예 없어질번 한 미국의 〈큰〉 주먹과 세계의 찬탄의 눈길을 모으며 승리의 단상에 오른 공화국의 〈작은〉 주먹!

크지만 약한 리유, 작지만 강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어느쪽의 주먹이 진짜로 컸던가?

이것은 20세기 중엽에 지구의 동방에서 생겨난 많고많은 수수께끼들중의 하나이다. …》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외국의 명망높은 한 출판물에 실렸던 《조선전쟁 인상기》의 일부분이다.

팔순이 넘은 내가 이 글의 한토막을 오랜 세월속에서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하고있는것은 수많은 외국인들로부터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왔기때문이었다.

적군과 아군—두 군대에서 복무한 특이한 경력을 가진 나에게서 비교적 명쾌한 대답을 기대한 질문자들은 아마 제3자적인, 이를테면 가장 객관적인 대답을 바랐을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내자신이 전쟁초기에 겪은 하나의 단출한 이야기를 해주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하였다.

×

내가 전쟁발발소식을 들은것은 충청북도의 어느 한 산간마을에서였다.

그렇게도 우려하던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하니 겨레가 당하게 될 불행을 두고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파났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후원을 받는 《국군》의 위세가 실로 큰 대륙이라도 단숨에 집어삼킬 정도로 험악한것이어서 세계군사평론계에서도 《국군은 최정예강군》이라고 서슴없이 주장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이미전에 알고있는 나로서는 그 걱정과 우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조선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내려온다는것이 아

닌가.

조만간에 서울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소문도 파다하게 떠돌았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일먼저 눈앞에 떠오른 것은 사랑하는 안해와 두살잡이 귀여운 딸애의 모습이었다.

(빨리 서울시가를 벗어나 피신하라고 전보라도 칠가. ... 아니, 내가 빨리 가서 깊은 산골로 데리고 들어가는것이 상책이다.)

나는 즉시 행장을 꾸리었다.

짐이래야 세면도구와 간단한 치료도구, 얼마간의 외용약과 구급약이 든 의사용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하숙집에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으나 선뜻 발길을 뗄수가 없었다.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쓰러져있을것만 같은 박현애의 병약한 모습이 떠오르며 발목을 붙잡는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서성거리었다.

(현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거요? 제발 이제라도 불쑥 나타나주구려!)

나는 저 멀리로 뚝뚝 뻗어간 산줄기들과 들쭉날쭉 솟아오른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일본 고학생시절의 친구이며 《국군》살이의 상급이었던 리창걸의 처 박현애를 내가 찾아 떠난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그날도 아침식사를 하기 바쁘게 환자치료준비를 서두르고있던 나는 불시에 들이닥친 현병놈들에게 끌리워 어느 한 군대병영으로 가게 되었다.

침침하고 어두운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말대가리런대장놈이 제법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가 《국군》살이를 할 때 소속되어있던련대의 련대장이었는데 성이 마가인데다가 얼굴이 별스레 길고 아래턱이 삐죽 내리쫓고있는 모양이 꼭 말상이여서 사병들은 그를 《말대가리》라고 부르곤 하였다.

《당신은 창결대대장과 협력하여 〈가짜병력서〉를 만들어 군복무를 도피했다지?》

《?!...》

나는 불시에 급소를 맞았을 때처럼 튀어나오려는 신음소리를 가까스로 참아냈다.

놈들이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하고 잔등이 오싹하였다.

《당신은 끝끝한 장정들을 엄선하여 나라의 주먹을 크게 만들데 대한 정부의 지시를 거역한 죄로 기소되어야 하오. 그러나 우리는 그 죄파를 따지지 않기로 했소. 당신이 창결대대장의 처를 찾아내는 조건에서 말이요.》

《...》

나는 그놈이 무슨 수작질을 하는지 도무지 가늠이 가질 않아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하, 아직 감감이겠군. 리창걸소령이 대대를 이끌고 어제 밤에 월북했네. 해산한지 한달밖에 안되어 몸이 불편한 그의 안해도 뜻밖의 소식에 너무도 놀라 어디론가 사라졌소. 난 창결군이 자기 안해도 서슴없이 차버릴 정도로 무정한 사람인줄 몰랐소. 후- 어찌겠나. 우리가 그 안해라도 찾아내여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나?》

놈은 얼굴표정과 목소리에 《진심》의 걱정을 담느라고 애썼지만 치째져올라간 눈에서는 림광같은 살기가 번뜩이었다.

그러나 나는 선선히 동의하였다. 그놈의 말을 믿거나 순종해서가 아니라 현애가 놈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기 전에 먼저 찾아내여 보호해주어야 할 친구로서의 의리심때문이었다.

그날로 길을 떠난 나는 우리 가정의 사랑을 지켜준 창결에게 나도 뭔가 유익한 일을 하게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한가지 생각만을 곱씹으면서 현애가 숨어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곳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한달이 지나서는 너무도 힘들어 그만두고말가부다 하고 생각했다가도 이르는 곳마다에 현애의 사진과 함께 나붙은 체포령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곤 하였다.

상당한 액수의 현상금이 걸린것으로 보아 그놈들이 창결에 대한 분풀이를 현애에게라도 해보려고 단단히 독을 품은 모양이었다.

어떻게 해서나 놈들보다 먼저 찾아내야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그의 친척, 친지, 친우들이 살고 있는 곳들을 살살이 훑으며 헤매었으나 어디로 종적을 감추었는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그마한 실마리조차 쫓수 없었다.

(창결이, 정말 안됐네. 아무래도 내 성의가 모자라는것 같아.)

친구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을 안고 도보로, 자동차로, 기차로 이틀 낮과 밤을 이어대며 6월 27일 저녁무렵에야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나의 눈앞에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있었다.

포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울리고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국군》장병들의 얼빠진 모습들이 눈길모자라게 널려져 내달아오고있었던것이다.

하나같이 공포에 잔뜩 질려 어둑컴컴한 얼굴들이었는데 어떤 녀석은 총도 없이 맨손뿐이었고 또 어떤 놈은 모자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까시시한 맨머리바람이었다.

어느 논판이나 진흙구렁이에서 굴렀는지 군복은 물론 얼굴까지도 온통 시누런 흙탕물을 바른 놈도

있었다.

찌프차며 군용트럭, 화물차들이 자기 사병들이 치여나는것도 모르고 미친듯이 달려오군 했는데 차의 쾅무니에 매여달리다가 버질단 날아가듯 휘뿌러져 회초리맞은 개구리처럼 허우적거리는 놈도 있었다.

생지옥을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구역질이 나는 속에 인민군대의 힘이 이렇게까지 강할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뇌리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길고짧고는 대보아야 안다더니 참...

오묘한 수수께끼에 부딪혔을 때처럼 아리송한 기분은 버거리 한구석 하모니카주택의 맨끝에 붙어있는 우리 집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집을 마주하고 서니 빨리 가족을 데리고 한적한 산골짜기로 피난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안해와 딸애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어젖히던 나는 집안이 너무 조용한데 놀랐다.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싸늘하게 식어드는감을 느끼며 전실을 지나 안방에 들어선 나는 뜻밖의 광경에 아연실색하고말았다.

열려진채로 흔들거리는 책장과 옷장의 문짝들, 방바닥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옷가지들과 종이장들...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방안에서는 너무도 쌀렁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인기척을 느끼고 따라들어온 옆집아주머니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어제 낮에 집앞에 자동차 한대가 와서 몇더군요. 험상궂게 생긴 헌병장교와 여러 사병들이 의사 선생의 집으로 우르르 쏘어들더니 봄향기와 애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들여 차에 태우더군요. 짐짝들도 여러개 함께 실어갔어요. 무슨 글을 적어 저 책상 위에 놓는것 같던데...》

나는 방안에 뛰어들어가 책상위에 놓인 종이장을 집어들었다.

《...차경일씨, 당신은 우리가 준 임무를 지금껏 집행하지 못했소. 당신이 창결대대장의 처를 만나고서도 숨겨두고있을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추측이요. 그래서 우린 당신의 안해와 아이를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는 당신자신이 잘 알테니 더 설명하지는 않겠소. 그리고 전시법에 따라 당신의 병원에 있는 치료도구들과 의약품들을 징수해가는바이요.

헌병사령부.》

그 종이장을 갈가리 찢어버리려고 마구 움켜쥐던 나의 손이 무뎌 굳어졌다. 그 가볍고 알팍한 종이에 사랑하는 안해와 딸애의 목숨이 달려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던것이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협박장을 접어 옷주머니에 넣고 방에서 나온 나는 헌병사령부가 있는

츠거리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지간히 먼거리였는데 어떻게 한번도 쉬지 않고 달려갈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불빛막이를 했는지, 정전이 되었는지 컴컴한 괴물처럼 보이는 헌병대병영은 온통 수라장이었다. 무기장구류를 멘 사병들과 장교들이 와르르 쏟아나와 갈팡질팡하며 겨끔내기로 남쪽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나는 인민군대의 공격에 일이 빠져 모두가 도망쳐버린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넘겨짚을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 러명이 밝아올무렵 드디어 인민군대가 돌입했는지 시내의 곳곳에서 위압적인 탱크의 발동소리, 총소리, 수류탄 터지는 소리, 부서지고 깨지고 꺾어지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헌병대병영의 음침한 방들과 뒤마당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또 살피며 서성거리던 나는 이 복새판에 안해가 어느 으스스한 곳에 갇혀있다가 불쑥 튀어나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무수히 날아다니는 총탄과 파편에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위구와 불안으로 더욱 조급해지는 마음을 안고 거리로 달려나와 이쪽저쪽으로 밀려다니는 인파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아이를 업은 녀인이면 무작정 따라가 얼굴을 보고서야 돌아서군 했다. 맞붙질이 한참인 골목길에 뛰어들었다가 눈먼 총탄이 머리칼을 지지며 날아가는통에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수류탄이 멀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 바람에 공중제비를 하며 나딩굴기도 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고 맹렬히 돌진하는 인민군군인들의 대담무쌍한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신화적이라 할만치의 비상한 그 용맹이 어디에서 산생되는것인가 하는 질문은 의문이 가슴속을, 머리속을 파고들었다.

그때 나의 망막에 비쳐든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이 무쇠발톱을 높이 쳐들고 으앙— 소리를 내지르며 무섭게 달려드는 성난 사자라하면 《국군》장교들과 사병들은 저마끔 살겠다고 구석구석을 찾아 도망치는 비겁한 들쥐의 무리였다.

서울해방을 알리는 인민군지휘관의 방송소리가 울려 퍼지자 남녀로소가 뒤섞인 시민들의 물결이 공화국기며 꽃다발을 들고 거리로 흘러나와 인민군군인들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호기심과 의문, 감탄의 감정을 안고 환영군중속에 들어선 나는 대통로를 활보해가는 인민군군인들의 씩씩한 모습을 주의깊이 살펴보았다.

아직 먼도 한번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솜털이 보시시한 애어린 병사들의 얼굴에는 격전을 치를 때의 긴장과 비장한 표정대신 천진란만하고 귀인성스

러운 웃음이 함뿍 담겨져있었고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하사관들과 군관들의 군세보이는 얼굴마다엔 어느 건설장의 근면한 노동자에게서나 볼수 있는 느슨한 미소가 비껴있었다.

《공산군》은 얼굴과 손까지도 빨갛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악마》라더니 그 비슷한 사람은 한명도 찾아볼수 없었다.

저도 모르게 정이 끌리워가는 소박하고 평범하고 순진한 모습들이었다.

늘 차갑게만 느껴지던 이 거리의 어지럽고 탁한 기류를 깨끗이 몰아내고 가장 신선하고 파스하고 포근한 열풍을 채우며 입성하는 저들이 과연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그 청소한 인민군대란 말인가.

저들의 어디에 그렇듯 무서운 힘이 숨어있는것인가.

문득 《mv》라는 힘덩이의 공식이 떠올랐다.

외과의사인 까닭에 환자들이 얼마만한 힘의 세기로 타격이나 충격을 받았는가를 가늠해볼 때마다 속으로 떠올리곤 하던 공식이었다.

이 공식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그자체의 질량과 그가 움직이는 속도의 크기에 의해서 힘의 세기가 결정되게끔 되어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이 며칠간 미국과 《국군》의 방대한 무장장비들과 인원까지를 질량 《m》으로, 현대적인 기체들의 기동력과 불의성을 속도 《V》로 대입해보고 그 타격력의 굉장함에 전율을 느끼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인민군대의 싸움에서는 이 공식이 적합치 않아 새로운 어떤 변수를 더 도입해야만 정확한 답을 끌어낼수 있을것 같았다.

군대라는 무장집단이 발휘할수 있는 힘의 세기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주위의 모든것을 예전과 달리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다.

확실히 도시의 거리와 거리들에 이전과는 다른 공기와 기운이 흐르고있었다. 초복을 가까이하고있는 한여름이라 도로와 건물들에서 확확 열기가 내뿜기고 연기인지 안개인지 모를 뿌연 회색대기가 갑갑증을 느끼게 하였으나 오고가는 시민들의 얼굴마다엔 밝은 웃음이 넘쳐흘렀고 각종 이름을 단 상점들이며 식당, 약국, 책방들이 인민군대입성기념 무상봉사까지 하며 전례없이 흥성이고있었다.

그전에는 병든것처럼 뿌릿하고 느른하게 보이던 가로수들조차 활력이 넘치는 거리의 숨결과 조화를 이루어 푸르싱싱한 기운을 한껏 풍기는것 같았다.

이 새 풍경을 안해와 함께 감수하며 발목이 시여지도록 걷고 또 걸으면서 끝없이 속삭인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내가 거리에 나와있는 사이에 안해가 집에 돌아와 부엌과 방안, 치료실이며를 알뜰히 거두어놓고 기다리다가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애절한 생각을 하면서 밤이 이슥해서야 집에 들어섰다.

방안에서는 여전히 차거운 랭기가 풍겨나왔다.

혹시 밤중에라도 안해가 돌아온다면 멀리에서도 불빛을 볼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실과 방들에 등잔불을 켜놓은 나는 치료실로 들어갔다.

크지 않은 약장과 의자 두개, 침대 두개가 놓인 이 방이 치료실이자 입원실이었고 개인병원의 전부였다.

그전에는 방이 비좁고 답답하게 생각되었는데 약품과 치료도구를 말끔히 걸어가서인지 별로 웅덩그레해보였다.

방안의 변화된 전경을 둘러본 나는 맥없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에 넘쳐있는데 오직 자신만이 모진 고독감에 몰리우며 외토리로 세상밖에 밀려난듯 쓸쓸해났다.

자신에게 차려진 불운한 운명을 생각하며 긴숨만 쉬고있던 나는 푹푹푹... 문두드리는 소리에 머리를 번쩍 쳐들며 일어섰다.

그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렸으나 잠잠하였다.

착각인가부다 하고 주저앉으려는데 푹푹푹... 문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러우나 다급하게 들려왔다.

푹또도둑... 하고 울리곤 하던 안해의 문기척소리와 너무도 차이가 났지만 혹시나 하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은 벌써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문앞으로 다가간 나는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예,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성급한 남자의 거칠은 목소리는 이미전에 어디선가 들은것 같기도 하고 전혀 생소한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온몸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듯 나른한감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허름한 로동복차림의 두사람이 동의도 없이 나를 막 떠밀며 들어왔다.

하마트면 넘어질뻔 하다가 가까스로 몸을 바로세운 나는 무례한 손님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앞사람은 키가 작았지만 절구통처럼 뚱뚱하여 몸통과 머리가 잘 구분되지 않았고 실오리같이 가느다란 두눈은 뺨판같이 넓고 우뚝뚱한 얼굴의 살덩이속에 묻혀서 동공이 보이질 않는다.

뒤에 선 사람은 앞사람의 머리위로 삐죽 솟은 키다리였는데 아래턱이 불상없이 내리드리운 말상이었다.

영 낮이 설지는 않은데 어디서 보았던지 잘 가늠이 가질 않았다.

《차경일씨, 그래 우리를 모르겠소?》 풍보가 말을 꺼냈다.

《?!...》

《차 이련, 〈국군〉 복무시절의 옛 상관들을 몰라보다니...》

《?!...》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국군》살이할 때의 중대장 표일수와 런대장이 분명하였다.

반겨맞아야 할지, 아니면 뺨대하여 내보내야 할지 미처 가늠을 못하고있는데 그들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제 먼저 치료실쪽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약간 저는듯 한 표일수의 다리와 런대장이 들고있는 트렁크가 눈을 끌었다.

나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치료실로 따라들어갔다.

표일수가 좁은 눈을 약간 치켜뜨며 명령조로 말했다.

《우선 치료부터 해야겠소. 런대장님은 왼쪽팔을 상했고 난 오른쪽팔을 다쳤소.》

성한쪽 손에 들었던 트렁크를 침대우에 내려놓은 런대장이 웃웃을 베틀 차비를 하는것을 본 나는 다급히 설명했다.

《나도 저 충청도쪽에서 헤매다가 어제야 돌아왔소. 와보니 전시동원령이라면서 의료기구며 약품들을 다 징수해갔소. 그러니 다른 곳이나 가보는것이 좋을것 같구려.》

런대장놈이 긴 턱을 주억거리며 입을 열었다.

《허— 가족을 만나고싶지 않은가부지. 난 그래도 당신이 안해와 상봉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겠기에 찾아왔는데...》

《뭐요, 우리 집사람이 어데 있소?》

《이렇게 조급하다구야.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앞에서 너무 인사불성이 아니요?!》

나는 치료용가방을 열지 않을수 없었다.

의사로서 지켜야 할 례의와 도리때문에보다 빼앗긴 가족을 찾을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있는듯 한 이들을 무작정 배척하다가 자신이 영영 후회하게 되면 어찌겠는가 하는 위구심때문이였다.

런대장은 상박근육에 총탄이 관통하였고 표일수는 발간동에 상처가 있었는데 급한 고비에 들어 제대로 치료를 못했는지 잔뜩 화농되어 독을 쓰고있었다.

나는 두사람의 상처를 다 처치해주고 붕대까지 감아주고나서 요구했다.

《안해와 아이가 있는 곳을 대주시오.》

《우리와 함께 한강을 넘어서면 그때 알려주지. 아주 안전한 곳에 모셨으니까 안심하오.》

너무나 쉽게 둘러치는 런대장놈의 먹살을 잡아쥐고 숨통을 조이며 대답을 받아내고싶었으나 좀더 인내성있게 기다려보자는 심산으로 놈의 다음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당신은 래일 한강을 돌아보면서 인민군의 경계가 약한 지점을 골라보고 폐목을 준비해야겠소.》

아직도 자기 부하처럼 하대하면서 명령조로 말하는 그놈의 언행에 화가 부쩍 동한 나는 통명스레 대꾸했다.

《아니, 난 먼저 안해와 아이를 데려와야겠소. 당신들 일은 그다음에 봅시다.》

환자용의자에 앉아있던 표일수가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런대장님이 거짓말을 할가봐 그러오? 정 그러면 우리끼리 넘어가겠소.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영영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될수도 있소.》

《...》

나는 더 말하기를 단념하였다.

자칫하다간 겨우 런결될듯싶은 희미한 가능성의 실오리를 완전히 놓쳐버릴것 같은 우려가 엄습했던것이다.

이때였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야무진 총소리가 물방으로 터지고 격하게 웨치는 고함소리들이 들려왔다. 두놈은 일시에 몸을 움츠리였고 나는 창문결에서 물러났다.

숨어있던 패잔병들과 인민군순찰성원들이 접전했으리라는 짐작이 얼른 들었다.

잠시후에 전지불이 번쩍거리고 투덕투덕 발자욱소리가 마당을 울리더니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사선생님 계십니까?》

나는 서둘러 문으로 다가갔다. 열지는 않고 물었다.

《누구요?》

《예, 우리는 경무원들입니다. 우리 중대장동지가 상해서 그러는데 좀 봐줄수 없겠습니까?》

《?...》

나는 본능적으로 치료실쪽을 바라보았다.

열려진 문에 얼굴을 내민 표일수가 어서 돌려보내라는 시늉을 했다.

《국군》장교들이 있다는것을 경무원들이 알면 일이 매우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저, 미안합니다. 의료기구와 약품을 〈국군〉이 다 가져가다보니 치료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을 표현하는 인민군경무원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과 런민의 정이 욱 치받치는것을 느끼며 나는 유리창너머로 눈길을 주었다.

어둠을 밝히는 전지불에 세명의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부상자를 업은 병사가 《중대장동지, 조금만 참으십시오.》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하마터면 《호령이!》하고 소리칠뻔 하였다.

목소리도 얼굴도 꼭 리창걸대대장실에서 연락병을 하던 고호령이가 분명하였던것이다.

같은 대대에서 얼마간 위생병을 하면서 호령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는 일이 많았던 관계로 나는 그의 특징을 너무나 세세히 기억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머리를 설레설레 젖고말았다.

아무렴 비슷한 사람이 한둘일라구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려는데 《호령동무, 힘들지. 내가 업겠소.》하는 다른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이였다.

나는 소스라쳐놀라며 문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당장 달려나가 포옹하고 그동안 겪은 일이며 창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었다.

북반부로 넘어간 이후 대대전원이 다 잘못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한동안 돌았었는데 호령이가 저렇게 시시편편하게 살아있는것을 보면 창결이도 인민군지휘관이 되어 여기 어디 가까이 있을상싶었다.

이때 표일수가 절룩이며 다가왔다.

《수면제를 좀 주오.련대장님이 동통때문에 신고하누만.》

《...》

내가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데 표일수가 앞을 막아섰다.

《련대장님은 신경이 예민하기때문에 수면제의 용량을 좀 높여야 하오.》

힐끗 쳐다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치료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수면제 몇알을 꺼내어 침대우에 누워 꿈꿈 신음소리를 내고있는 련대장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야?》

덴갑한 련대장의 말에 표일수가 얼른 대꾸했다.

《예, 진정제입니다.》

《아니, 난 안 먹겠어.》

《그럼 상처의 아픔때문에 밤을 꼬박 밝히렵니까. 잠을 푹 자야 상처도 빨리 아물수 있다고 의사선생이 련대장님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마구 지어대는 표일수가 어처구니없이 생각되었으나 구태여 까밝히며 입씨름을 하고싶지는 않았다.

《그래, 그렇다면 중대장도 들라구. 의사선생, 저 사람에게도 줘야지.》

그러자 표일수가 작지만 오동통한 두손을 내저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전 얼마든지 아픔을 참을수 있고 잠도 푹 잘수 있습니다, 예.》

그러자 련대장의 언성이 대뜸 높아졌다.

《야 중대장, 너 언제부터 상급의 령을 거역하는 버릇 배웠나, 영?! 잔말 말고 지시대로 해.》

그들을 외면해버린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맨바닥에 벌렁 드러누웠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나른했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치명상이 분명했을 인민군부상병을 문전거절해버리지 않을수 없었던 일과 한결음만 내짚어도 만날수 있었던 호령이를 놓쳐버린 아쉬움때문에 속이 알알해났다.

그럴수록 표일수와 련대장이 더 밍살스럽게 생각되었다.

(일이 참 맹랑하게 됐는걸. 호령이와 창결이가 후에도 이 일을 안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가. 이놈들과 나를 한두름으로 생각하면 큰일인데. 위수사령부에 찾아가서 이놈들을 고발해야 하지 않을가. 그래, 늦은감은 좀 있어도 이제라도 고발해야 한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던 나는 주춤 놀라며 굳어졌다.

안해와 딸애의 모습이 불쑥 떠올랐던것이다.

(가족을 찾아내자면 싫든좋든 저놈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가. 지금에서야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는가.)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고 볼수록 미워만지는 이런 놈들에게까지 한가닥 기대를 걸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다.

그러나 놈들앞에서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을 굳히며 다시금 자리에 누우려던 나는 치료실문이 살그머니 여닫기는 소리를 꿈속에서처럼 어렵듯이 들을수 있었다. 온몸의 신경을 집중하여 귀를 도사리었다.

자박자박... 조심히 움직이는 소리에 이어 문고리를 벗기는듯 달그락소리...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가며 성냥을 그어 벽체에 매달린 등잔불을 켰다.

나들문을 막 열려던 표일수가 흠칫 놀라며 굳어졌다.

그의 손에는 련대장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트렁크가 들리워있었는데 그것을 영치뒤로 감추느라 설레발을 치다가 잘되지 않자 돌판대기처럼 굳어졌던 상통에 실눈마저 아예 없어질 정도로 징그러운 웃음을 지었다.

《바깥동정을 살펴본 다음 당신을 깨우려 했소.》

《그건 뭘때문이요?》

《응, 당신과 함께 이밤중으로 한강을 넘자는거요.》

《그럼 련대장은 어떤다는거요?》

《뭘, 런대장?! 병졸도 한명 없는 놈이 무슨 말 빠빠진 런대장이야. 그놈은 넘어가지도 못해. 부대를 피멸시킨 죄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할테니까.》

《그래도 그는 나와 약속했소. 안해와 아이를 찾아주겠다고 말이요.》

《정말 천진하구만. 일선에 나가있던 말대가리가 헌병대에서 잡아간 당신의 처와 아이를 알게나 뭐요. 알량한 의사선생, 그까짓 너편네와 불편스러운 계집애를 싹 잊어버리고마오.》

《뭘요?!》

《이 트렁크만 가지고 무사히 넘어가면 선녀같이 아릿다운 녀자들을 마음먹은대로 골라잡을수 있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수 있소. 자, 어서 차비를 하오.》

《흥!》

《차 이런, 이게 뭔지나 알고 그러오? 팔라란 말이요, 팔라!》

놈은 트렁크를 무슨 보배덩이처럼 연신 어루쓸었다.

《여보시오, 그렇게도 돈이 중하게 보이오?》

《아따 이 사람, 제정신이요? 우리가 왜 군복을 입었게? 바로 이 돈을 위해서요. 당신이 병원을 차려놓은것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 돈을 위해선 남을 죽일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수도 있는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소.》

《음, 이제야 알겠소. 당신이 런대장에게 수면제를 먹이려고 극성을 부린 까닭을 말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절취하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오?》

《절취?! 흥! 실지 절취죄의 책임은 저 말대가리가 져야 하오. 런대사병들의 봉급은 물론 후방물자와 군수물자까지 몰래 빼내어 모으고모은 돈이란 말이요. 저놈이 런대를 왜 공산군의 포위속으로 무모하게 내몰았는지 아오? 바로 이 트렁크를 건지기 위해서였소. 그러니 이안에 있는 팔라몽치들은 술한 장교들과 사병들의 살점이고 피라고도 할수 있지. 나도 그 사지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사람으로서 응당 이 돈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있는거요.》

《전후사연은 어쨌든 런대장이 깨어난 다음 회계하시오.》

《우린 벌써 회계를 끝냈어. 런대장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주었으니까.》

나의 머리칼이 저도 모르게 쭈뼛 일어섰다.

표일수가 진짜 무서운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너도 사람이냐!》하고 벽력같이 소리치며 돌입했다.

그런데 놈이 뚱뚱한 몸에 어울리지 않게 날래게 피하며 중량감이 느껴지는 통통한 주먹으로 나의

복부를 힘껏 타격했다.

《헉—》

나는 창자가 끊어져나가는듯 한 모진 아픔을 느끼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표일수는 책 돌아서서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비척거리며 일어설수 있었다.

치료실문을 열고 들어서니 피비린내가 짜릿하게 코를 찔렀다.

등불을 켜들고 살펴보니 예리한 칼날에 끊어진 런대장의 목동맥에서 흘러나온 피가 침대보를 검붉게 물들이고있었다.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눈을 감아버렸다.

돈때문에 자기 상급을 죽이다니. 돈, 돈이 뭐길래...

직무를 걸고 돈을 모으느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런대장놈의 추악한 뒤생활도 혐오스러웠지만 그 돈때문에 이 란리판에 상급을 죽이고 득의양양해하던 아니, 미칠듯 한 희열마저 느끼던 표일수놈이 증오스럽다못해 가련한 짐승의 모양으로 안겨왔다.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사람이 돈에 미치면 주위의 인간들이 다 짐승으로 보인다. 아니, 그자신이 먼저 짐승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글줄이 떠오르는가 하면 어느 유명한 동물세계탐험가가 쓴 《먹을것을 위해 힘을 합치기도 하지만 그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물고뜯으며 피투성이싸움을 하는것이 짐승무리의 속성이다.》라는 글줄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런 말하는 동물들에게 총을 쥐여주어 전쟁까지 일으킨 미국의 장군들과 리승만이가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놈들로 생각되는것이였다.

나는 폐장을 찌르는 피비린내와 악취를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와버리고말았다.

구름사이를 부지런히 헤엄쳐가던 쪼각달이 희미한 빛을 뿌리며 너절하기 그지없는 놈들과 하루저녁이나 함께 있는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듯싶었다.

×

다음날 아침 접수실에서 고호령을 만난 나는 전날 저녁에 겪은 일을 죄다 말하며 사죄를 하고나서 업혀왔던 중대장의 신상에 대해 물었다.

《응, 넘려말게. 우리 대원들이 있으면서 자기 지휘관을 살려내지 못하겠나. 부하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댄 친형같은 상급인데...》

《목숨을 내대다니?》

《어제 저녁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한 건물의 지하실을 수색하던중 우린 한개 소대가량의 패잔병들과 맞다들게 되였네. 지하도가 여러 단계로 굽어져

있어 사격이나 수류탄투척이나 다 불편하여 부득불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는데 위험하다고 우리 병사들을 다 밀어놓고 중대장동지가 직접 놈들을 제압하러 들어갔지. 그 전투에서 그만 총알이 복부를 관통했는데 의사집을 찾아들어간다는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중대장이 병사들을 대신해 솔선 위험한 전투의 앞자리에 서다니?!... 《국군》살이경험으로 보아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다우쳐물었다.

《우리 집에서 돌아선 다음 어떻게 되었나?》

《부상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위생차가 달려왔지. 구급처치를 해서 위급한 고비는 넘어섰고 지금은 위수사령부 군의소에 입원해있네. 앞으로 시간을 내서 함께 가보자구.》

《아니, 난...》

《왜 그러나?》

《응, 난 그 중대장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당장 아니, 지금 당장 가야겠네. 그리구 완치될 때까지 아예 한방에서 침식도 같이 하면서 치료를 돕겠네. 참, 리창걸이 소식은 모르겠나?》

그러자 호령이 눈을 둥그렇게 뻘뻘.

《아니, 우리 대대장동지보구 리창걸이가 뭐가?》

《응, 우린 일본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고생한 친구일세.》

《아, 그런걸 난 또... 참, 전쟁이 일어나자 인차 대대를 이끌고 남진했는데 지금은 런대장이야. 싸움을 본때있게 잘한다구 <전선신문>에 몇번 났었는데 이번에 실리면 내 꼭 보여주겠네.》

《기다리겠네. 군의소는 어디에 자리잡았나?》

《응, 저쪽길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들어가면 2층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군의소야. 가만, 자네 차라리 입대하는게 어떤가? 자네를 데리고 의거 입북하지 못한걸 꽤나 후회하며 잠 못이루던 창걸 런대장동지도 인민군복장을 한 자네의 어엿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텐가.》

《?!...》

나는 얼떠름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전혀 상상밖의 질문이었던것이다.

《국군》살이를 벗어날 때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으리라 골수에 다져넣었던 결심이 순간에 떠오르며 뇌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군대라면 인간적인 모든것을 소멸하기 위해 생겨난 폭력집단, 오직 무자비성만을 근본생리로 하는 무지와 몰인정의 특수세계라고만 생각해온 나였다.

이것은 누구의 설명이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왜놈들과 미국놈군대의 만행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국군》살이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무시무시한 공포감과 함께 형성된 나의 확고한 군대관이였다.

물론 지금 대하고있는 인민군대는 이여의 군대들과는 판판 다르다는것을 강렬하게 느끼고있지만 그래도 군대야 총대만능의 살육을 본분으로 하는 거치고 무자비한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겠는가?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다시 군복을 입을 생각은 없네. 나는 그저 의사의 직분에 성실하고싶을뿐이네.》

《자넨 지금 자기자신에게만 성실하려고 하지.》

《뭘, 뭘라구?!》

《정일이, 진정 자기에게 성실하려고 해도 민족앞에, 나라앞에 지닌 의무에 먼저 충실해야 하지않을까?》

《호령이, 자넨 지금 무슨 리념을 나에게 강의하고싶은 모양이구만, 응?! 의사란 그 어떤 주의나 정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할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직업이야. 군복을 입건 안 입건 내가 의사의 직분을 다하면 될게 아닌가.》

《좌우간 잘 생각해보라구.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다가는 거창한 대하에서 튀어나간 물방울의 신세가 되고말거네. 자, 다시 만나세. 근무시간이 다되었네.》

호령이와 헤어져 군의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귀전에 그의 목소리가 자꾸만 살아올라고 막을 자극했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리기적인 인간이라는것인데 아무렴 그럴수가 있는가.

난 지금껏 술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는데...

문득 할아버지가 그 어떤 성인의 지론인지, 자기 자신의 체험으로 얻은 결론인지 내앞에서 자주 외우군 하던 말마디들이 떠올랐다.

《자기만을 생각하는자는 악인이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자는 선인이고 남을 위한 미덕으로 자기도 덕을 보는 사람은 현자라고 하였단다... 원래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만 속세의 어지럽고 불편한 환경에 부대끼면서 저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자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행도 저지르게 되지. 일생 남에게 덕을 주면서 자기도 그 덕을 본다는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직업만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실행할수 있느니라.》

홍범도의병대도 따라다녀보고 기업활동과 계몽운동에도 뛰어들어보면서 팔도강산이 좁다하게 뛰여다니다가 중병을 만나 죽을 고비에 이르렀을 때 고마운 의원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할아버지는 나에게 의사가 될것을 간절히 바랐었다.

할아버지가 작고하면서 남긴 유언대로 집에서 명줄을 걸고있던 얼마 안되는 땅을 다 팔아 마련한 돈주머니를 쥐어주며 떠미는 아버지, 어머니의 진정에 못이겨 낯설은 이국땅으로 건너간 나는 의학공부를 열심히 하여 의사가 되었고 인물뽑고 알뜰하고 품성 또한 비단결같은 안해를 만나 귀여운 딸애까지 보면서 그만하면 가정을 운택하게 꾸려왔었다. 그런데 내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결국 할아버지의 조언과 경구도 나에겐 꼭 들어맞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지금껏 남에게 해되는 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이 오직 미덕만을 지켜왔지만 안해와 아이를 빼앗기는 가슴아픈 불행을 당하고있다.

정말 나는 가정과 자신에게도 성실치 못한 인간, 가정과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열간이가 되고 만것인가?...

나는 뭐가 뭔지 종시 갈피를 잡을수 없어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나를 데리고 의거입북하지 못한것을 창결이가 꽤나도 후회하며 잠 못 이루었다고 하던 호령의 말이 다시금 귀전을 울리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창결이를 따라가지 않은것이 과연 실책이었던 말인가? 내가 인생길에 한번있을가말가한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물리쳐버리는 머저리짓을 했던 말인가? 난 그때 그저 군대의 복장만 벗어던지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것처럼 단순하게만 생각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니 추억의 배머리가 지긋지긋하던 《국군》복무시절에로 거침없이 방향을 꺾어드느것을 어쩔수 없었다.

...《국군》복무를 기피하면 병원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울러메는 놈들의 위협에 못이겨 《국군》에 들어간 나는 전연 가까이 어느 한 편대직속 수색중대에 배속되었다.

처음 당해보는 육체적고통과 정신적고충을 눈물속에 참아내며 몇달이 흘러간 어느날 나는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다.

내가 사귀던 처녀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중대의 하사관들이 먼저 가로채여보고는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내용의 글을 적어 회답을 보냈다는것이였다. 내가 하사관들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보았으나 그놈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닌보살하는것이였다.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손찌검을 하려고 달려들기까지 하였다. 격분한 나는 중대장 표일수에게 찾아가 하소연하였다. 그런데 표일수는 편애편지에나 신경을 쓰는것을 보니 《화랑도》정신이 허약하다, 군의 기강을 손상시켰다고 하면서 토끼

뽕, 발바닥핥기기합을 시켰다.

그리고도 모자라는지 세놈을 휘둥해가지고 병영한구석으로 끌고가 집단구타를 들이대는것이였다.

퍽— 퍽— 놈들의 주먹과 발길이 사정없이 몸에 닿을적마다 모진 아픔에 몸을 뒤틀었지만 실지 참기 어려운것은 억울함으로부터 오는 마음속 아픔이였다.

이때 《야, 그만하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이어 묵직한 군화발자욱소리가 다가왔다.

코와 입으로 흘러내리는 선지피를 손으로 훔치며 고마운 구원자를 결는질로 살펴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름아닌 소령의 계급장을 단 창결이였던것이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조국으로 돌아온 창결이 민족의 주먹을 크게 하는데 분투하겠다고 옥버리며 육군사관학교로 들어가더니 벌써 이렇게 승급하다니...

나는 그를 만난것이 기쁘기보다 너무도 부끄러워 피자욱을 닦는체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무슨 일인가?》

창결이가 표일수에게 물었다.

표일수는 무슨 상관이나는듯 한껏 쪼프린 작은 눈으로 건방지게 흘겨볼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맞가지 않다는 태도였다.

어느새 불끈 들어온 창결의 주먹이 놈의 면상으로 날아갔다.

넘어질듯 비칠거리던 놈이 겨우 균형을 잡더니 울챙이배를 불쑥 내밀며 몸을 꼳꼳이 폈다.

《소령님, 저... 편애놀음으로 군풍을 흐리게 한 우리 중대사병놈에게 버릇을...》

《뭐, 편애놀음?!》

《예.》 하사관놈들도 덩달아 대답했다.

《일등병, 그게 사실인가?》

내쪽으로 눈길을 돌리던 창결이 나를 알아보았는지 주춤 놀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이내 본래의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다.

그 어떤 인연관계때문에 편심을 서는것처럼 보이 고싶지 않았을 창결의 심정을 충분히 넘겨짚으며 나도 아는체를 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저를 채용한 의사에게는 간호부로 일하는 외동 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은희였는데 우리는 함께 일하는 과정에 서로 정을 나누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은희한테서 편지가...》

나는 주저없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더 큰 보복이 차례진대도 어쩐지 두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창결의 얼굴이 더 험상궂게 이그러졌다.

온몸의 피가 다 우로 솟구쳤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으음—》 가볍게 신음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번개같이 몸을 날리며 단단한 주먹으로 표일수의 상통을 후려쳤다.

얼마나 타격이 세웠던지 굵은 통나무처럼 육중한 표일수의 몸통이가 몇결음밖으로 날아떨어지며 썰 늘어졌다.

달아날 차비를 하던 하사관놈들도 창결의 무자비한 주먹세례를 피할수 없었다.

여기저기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놈들에게 침을 뱉고 다가온 창결이 손수건을 꺼내어 내 손에 쥐여 주고 몸에 묻은 흙을 털어주더니 《가자!》하고 호기있게 소리쳤다.

나는 물어볼것도 못하고 그의 뒤를 따라섰는데 창결은 옆에 붙어있는 런던본부청사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한 방에 들어가니 말상의 런던장이 켜해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방금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한 창결이 나를 자기 대대의 위생병으로 쓰게 해줄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창결의 표정과 목소리에 서려있는 확고한 결심을 읽었는지 런던장은 동의하는듯 한 기색을 지으면서도 우유부단한 태도였다.

《인사문제는 미고문판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쩐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고문판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찰나에 손기척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격두룩한 키에 코와 눈이 류별나게 표독스러워 보이는 미고문판놈이 들어섰다. 런던장이 타다남은 숯등결같이 막 생긴 말상에 비굴하고 어쭙은 웃음을 띄우며 창결이 찾아온 이유를 매우 조심스레 설명하였다.

일본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을 늘 자랑하던 대령이라는 높은 직급의 런던장이 대위라는 미군장교 앞에 설설 기는 꼴을 맑은 정신으로 보기가 역겨워 당장 돌아나가고 싶었으나 나 자신을 위해서 참아내야만 하였다. 고문판놈이 움박눈을 지릅뜨고 한동안 창결을 노려보더니 뺨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다.

《소령, 거 뭐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을 너무 쓰는게 아니요. 장차 큰일을 치러야 할 남아대장부가 말이요.》

창결이 한결음 바짝 다가들며 단호한 어조로 대꾸했다.

《고문판님, 제가 대대장으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하는 요구이니 심중히 고려해주시시오.》

《첫 요구란 말이지. 첫 요구?!… 좋소. 데려가

도록 하시오. 그러나 언제부터 당신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처럼 인정이라는 거치장스러운 족쇄에 구속당해서는 성격과 취미, 처지가 서로 다른 군졸들을 하나로 통솔할수 없다는거요. 무자비성이라는 꺼칠한 쇠바줄만이 그들을 한줄에 꿰여 우리의 주먹을 크게 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알겠소?》

나는 등골을 쭉— 내리뻗치는 무서운 전율을 느끼며 몸을 웅송그리었고 창결은 가볍게 기척하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창결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후에도 은회에 대한 애모쁜 생각과 하사관들의 협잡편지가 그에게 안겨주었을 심리적타격에 대한 불안한 생각으로 늘 가슴이 무거웠다.

맹물만 먹어도 몸이 나는 체질이라고 자랑하던 육중한 몸이 펍 줄어들어 군복이 후줄근해지기까지 하였다.

그 정상을 보다못해 창결이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은회를 만날수 있게 보내주었으나 처녀와 부모들이 만나주지조차 않아 말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창결이 직접 찾아가 전후사연을 설명했으나 《그런 무지스러운 군대에서 찌들은 녀석이 어떻게 인간구실을 할수 있겠소?!》라는 가시아버지가 될 의원로인의 한숨쉬인 비난 한마디를 겨우 얻어듣고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몇번이나 더 찾아가서야 《군복을 벗으면 좀 생각해보겠네.》라는 확답을 받아낼수 있었다.

대대로 돌아오자 퇴물을 좋아하는 의무판에게 돈 봉치를 찢어주고 나의 병력서를 꾸며낸 창결은 조금만 기다리면 제대문건이 작성될것이라고 귀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것처럼 기다리는 제대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창결을 조용히 찾아가 물었다.

《창결이, 날 왜 제대시키질 않나? 내 병력서를 우에 올려보내기는 보냈나?》

남들이 볼 때에는 하늘땅 차이의 상급과 부하였지만 단들이 있을 때엔 야, 자들이를 하는 옛친구였다.

《경일이, 꼭 제대되어야 하겠나. 사내대장부라면 민족의 주먹을 크게 다지는 일에 분투해야 할 줄로 아네.》

나는 놀랐다. 아니, 격분했다.

《뭐라구? 민족의 주먹?! 저 대양건너의 노린내 나는 양놈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통채로 내맡기는 주먹?!… 그런 주먹은 나는 싫네. 내 주먹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개개의 주먹들이 가시돋힌 잔

등을 서로 마주대고 뺑기를 풍기는 그런 너절하고 싸늘하고 우악스러운 주먹에는 합치고싶지 않단 말이야.》

나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기합을 당하던 일과 애인이 본의아니게 당했을 마음속 아픔을 생각하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창결은 그 심중이 리해되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자네 말이 옳네. 이 땅엔 주먹과 주먹을 모아붙일 진정한 접착제가 없네. 더 중요하게는 모든 주먹을 하나로 끌어당길 구심점이 없지. 오직 강압과 멸시, 시기와 질투, 리기와 증오가 개개 주먹의 틈사이를 배회할뿐이지. 그래서 난 이 숨막히는 장글의 세계를 대담하게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네. 물론 자네와 함께. 그리고 저 불쌍한 사병들을 데리고 말일세. 풍랑을 만나 공화국에 갔다온 선원들에게서 내 들었는데 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별세상, 별천지라는거야.》

《뭐 공화국엘 간다구?!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나?》

《인민군대에 들어가야지. 인민군대에선 관병간에 친형제를 초월한 혈육의 정이 오간다는거야. 여기 〈국군〉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잘 리해되질 않네. 그렇게 해가지구 군대라는 폭력집단을 꽤 유지해낼가?》

《이건 그 선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일세.》

《난 암만해두 믿어지질 않네. 참, 우리 은희도 함께 가게 될가?》

《그건 힘들거네.》

《그렇다면 난 그만두겠네. 내가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나. 난 우리의 사랑만이라도 지키고싶네. 그것마저도 빼앗기면 나도 은희도... 흐흑...》

그후 창결이가 몇번 더 나를 설복했으나 경사급한 얼음길에 들어선 통나무처럼 외딴으로만 내리쬐리는 나의 생각을 멈춰세울수도 돌려세울수도 없었다.

그때 내가 창결을 따라나섰더라면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가?

또 은희의 운명은 어찌되었을가?...

나는 번거로와지는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날수 없었다.

×

내가 위수사령부 군의소에서 침식하며 치료사업을 도와주던 어느날 호령이가 불쑥 나를 찾아와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대답은 하지 않고 희여멀

쑥한 얼굴에 웃음을 함뱍 담고 재촉하기만 하는것으로 보아 무슨 기쁜 일이 있을것만 같았다.

마당에 나서기 바쁘게 호령이 가리키는쪽으로 시선을 주던 나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방금 와 몇어선듯 김을 문문 피워올리는 군용트럭에서 천천히 내려서는 인민군고급군관, 그는 분명 창결이였다.

나는 소리칠념도 못하고 뱀다 달려갔다.

발이 땅에 닿는지, 공중으로 날아가는지 그 감각조차 느낄수 없었다.

창결이도 마주 달려왔다.

마당 한가운데서 와락 포옹했을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말인들 한다면 상봉의 기쁨이 그 순간에 꿈처럼 흠 없어질것만 같아서였다.

그저 묵묵히 잔등을 어루쓸며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기만 하였다.

포연에 그슬려 검게 탄 살결, 그전보다 더 세련되고 날카로와보이는 부리부리한 눈, 두어깨에 무겁게 얹혀있는 상좌의 견장...

아무리 보아야 그전날처럼 허물없이 부르기가 저어지는 엄엄한 모습이었다.

나의 생각을 넘겨짚었는지 창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보고싶었네.》

《!...》

나는 눈물이 글썽하여 머리만 끄덕이는것으로 같은 뜻을 표시하였다.

《자, 저기 가앉자구.》

창결은 마당가 한켠에 있는 긴의자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호령동무에게서 자네의 이야기를 다 들었네. 일이 참 안됐더구만.》

나는 가슴아픈 상처의 딱지를 더 다치지 말기를 바라며 말머리를 돌리였다.

《그래, 전선에서 용맹을 떨친다더니 어떻게 이 후방에 불쑥 나타났나? 나를 만나자고 여기까지 온것은 아닐거고, 혹시 직무를 바꾼건 아닌가?》

《...》

창결은 저 멀리 남쪽방향으로 사색깊은 눈길을 돌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1950년 7월초.

대전을 축으로 한 금강계선의 전선정황은 참으로 긴박하고 착잡하였다.

서울에서 쫓겨난 적들은 《림시수도》로 선포한 대전의 외부방어선인 금강계선에서 어떻게 하나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발악하였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금강좌안에는 미24보병사단을, 청주남쪽과 소백산줄기에는 괴뢰군 1군단과 2군단을 배치하고 신행반땅크무기인 바주카포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술기재들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수송기로 직접 날라다 증강하였다.

적들이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 《3년간은 문제없이 지탱할수 있다.》고 흰소리를 칠 정도로 견고한 이 방어선에 파렬구를 내고 적종심깊이에 침투하여 놈들의 뒤통수를 후려침으로써 사단주력의 총공격을 보장할데 대한 어렵고도 중요한 전투임무가 창결의 런던에 하달되었다. 창결은 자기 런던에 대한 사단의 믿음과 기대를 여느때없이 크게 느끼며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여러 정찰조들이 은밀히 금강을 건너 적후로 들어갔고 도하기재들이 빠른 속도로 구비되었으며 공격전투를 가상한 훈련이 실전과 같이 맹렬히 진행되었다.

그날도 이른아침부터 작전지도를 앞에 놓고 전투계획과 준비에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따져보고있던 창결은 사단장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래 래일까지는 공격준비를 끝낼수 있겠소?》

《사단장동지, 오늘 밤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래일 새벽에는 공격을 개시하겠습니다.》

창결은 주먹을 불끈 틀어쥐며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아주 좋소, 중요한것은 적들이 정신을 차릴새 없이 불이 번쩍나게 들이치는것이고 보다 중요한것은 귀중한 전사들의 희생을 내지 않는것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장동무는 즉시 사업을 참모장동무에게 인계하고 전선사령부에 빨리 가야겠소.》

《예?!》

창결은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 하여 다시 귀를 강구었다.

사단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새로운 임무가 동무를 기다리고있소. 곧 떠나시오.》

《알았습니다.》

무의식중에 대답하고 송수화기를 놓았으나 한동안이나 못박힌듯 서있었다. 꿈속을 헤매다 나온듯 얼퍼름해졌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멀리 떨어진 전선사령부에서 무엇때문에?... 혹시 보다 중요한 임무가 우리 런던에?!...

창결은 굳게 틀어쥔 오른주먹을 왼손바닥이 얼얼하게 툭툭 내리쳤다. 언제나 사단의 주타격방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켜왔는데 이번에는 전전선적인 주

타격방향이 런던을 기다리고있는것이 아닌지?...

새로운 임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하여 마음이 촉급해진 창결은 참모장과 어떻게 사업을 인계하고 헤어졌는지, 언제 군용트럭에 올라왔는지 의식하지 못하였으며 폭탄과 포탄에 파헤쳐져 울퉁불퉁해진 신작로를 따라 달리느라 차가 얼마나 들추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깊은 상념에만 잠겨있었다.

전선사령부청사(옛 괴뢰 《중앙청》)에 도착한 창결을 전선사령관이 기쁨하고 강단이 느껴지는 얼굴로 맞아주며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중요한 문건이 들어있을상싶어보이는 그 봉투겉면에는 시내의 여러 도로들과 건물들이 표기된 략도가 그려져있었다.

전선사령관이 그 략도의 한 지점을 손으로 짚었다.

《런던장동무는 이곳에 있는 독립건물에서 얼마간 사업하게 되겠소.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이 봉투를 개봉하고 속지에 적혀진 지시대로 행동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자, 어서 떠나시오.》

전선사령관은 엄엄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밝은 웃음을 지으며 바래주었다.

전전선을 책임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창결은 여느때없이 어깨 무거움을 느끼었다.

어떤 어려운 임무일지라도 책임적으로 수행하리라 하는 창결의 굳은 결심을 믿고 차는 시내의 넓은 도로를 따라 경쾌하게 내달렸다.

차를 땀시있게 몰아가면서도 눈길을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 유심히 살피는듯 하던 운전사 금혁이가 차의 속도를 천천히 죽이였다.

《왜 그러오?》

《런던장동지, 저기 사모님이...》

금혁은 방금 지나온 뒤쪽을 가리키고는 차를 후진시키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현애가?!...)

창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뒤로 향하였다. 스무 걸음쯤 떨어진 곳에 서있는 큰 뽕뿌라나무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앉아 다리쉴을 하며 땀을 들이고있었는데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차림으로 어린애를 업고 서있는 젊은 여인이 유묘하게 눈에 안겨들었다.

(!)

분명 안해의 모습이였다. 가슴이 후두둑 뛰기 시작하였다. 느리게 후진해간 차가 멎어서기 바쁘게 성급히 뛰어내렸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엉거주춤 일어섰으나 창결의 눈에는 애기 업은

젊은 녀인만이 확대되어 안겨왔다. 단정하게 가리마를 타넘겨 간편하게 쪽진 머리, 도두룩할사 한 흰 이마, 반달모양으로 곱게 생긴 검고 큰 눈, 립체미가 나게 그려넣은듯 선이 뚜렷한 입술, 가름한 턱...

분명 일년 삼개월전 헤어진 안해의 모습이였다.

《현애!》 하고 불렀으나 목소리가 입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았다.

대여섯걸음앞에까지 다가간 창절은 두눈을 크게 떴다. 왼쪽눈섭아래에 있어야 할 깨알만 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녀인이 당황해하며 무슨 일인가 하여 자기의 몸차림을 더듬어보았다. 창절은 자기의 실책을 아니, 운전사의 실책을 깨달았다.

《이거 미안합니다.》 무겁게 손을 들어올려 거수경례를 하고 맥없이 돌아섰다. 차가 다시금 달리기 시작하자 금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런대장동지, 이젠 해방지구도 넓어졌는데 아주머니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쟁이야.》

단마디로 오금을 박았으나 그리운 안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확대되어 안겨오며 애뜻하면서도 짜릿한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그때 어떻게 해서나 데리고 떠났어야 하는건데...)

부득이 안해와 작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운명적인 저녁의 일이 눈에 삼삼 밝혀왔다.

은밀히 추진시켜온 의거입북계획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어 드디어 최종결심을 내렸을 때 창절이 제일 걱정했것은 해산한지 한달밖에 안되는 안해였다.

《공격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기동하는 군인대렬에 애기를 업은 아녀자가 끼운다면 누구에게나 쉽게 의심받을것이 불보듯 뻔하였다.

그렇다고 집에 남겨놓는다면 놈들이 가만두지 않을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것인가?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었으나 출발시간이 다 되어오도록 종내 뽕족한 수를 찾아내지 못한 창절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리었다.

《현애, 잠시후에 대대가 병영을 나서면 당신도 즉시 이 집을 떠나야겠소.》

오물오물 젖을 빠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정깊은 미소를 짓고있던 현애의 반달눈이 한껏 커지였다.

《왜 그러세요. 어디로 가려고 하세요. 네?》

《그건 말할수 없소.》

《나도 데려가주세요. 난 기어코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애기를 내려놓은 안해는 당장 남편이 없어질까 봐 겁이 난듯 외락 안겨들었다. 짝 기대인 부드러

운 얼굴과 봉긋한 가슴, 허리를 꼭 그러잡은 두손에서 전물에 가까운 짜릿한 무엇이 창절의 육신으로 흘러들었다. 창절은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직 몸이 불편한 안해가 자기때문에 겪게 될 고생과 고충을 생각하니 도무지 뭐라고 설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현애, 내가 가는 길은 목숨을 내대야 하는...》

안해가 창절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속삭이였다.

《일없어요. 나도 각오는 다 되어있어요.》

그 녀자는 녀성특유의 룩감과 안해라는 직분이 안겨준 다심하고 강렬한 의무감으로 남편이 단행하려는 거사의 내용을 이미전에 다 알고있는듯싶었다. 창절은 자기 입술에 와닿은 안해의 여린 손을 따듯이 감싸쥐며 말을 이었다.

《복상하는 대대에 당신이 끼운다면 놈들이 어떻게 생각할것 같소? 우리가 오늘 헤어지는 길이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는 길에 이어져있는지도 모르오.》

그 말에 안해는 한걸음 물러섰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그는 가까스로 웃음을 띄웠으나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였다.

담요우에 누워 손과 발을 바드락거리는 아들의 보통보통한 랑볼을 몇번 다독여준 창절은 안해의 두손을 꼭 쥐었다놓으며 집을 나섰다.

그후 의거입북이 성공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 환희의 순간에도 헤어진 안해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고 남진의 길에서 해방지구의 거리와 마을을 지날 때마다 혹시 우연중 다행으로 안해를 만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나치는 녀인들을 유심히 바라보곤 하였다.

(현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거요?!)

창절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창절은 《다 왔습니다.》 하는 금혁의 말을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머리를 쳐들었다. 차에서 내려서며 앞을 보니 토담으로 둘러막힌 아담한 단층집 한채가 나지막한 야산을 등에 지고 서있었다. 저 멀리서 쿵- 쿵- 울려오는 포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주위가 너무도 조용하고 공기가 청신한것이 놀라왔고 이렇게 아담한 집이 성한채로 아직 남아있을수 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저 집이 이제 자기가 새로운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전선이고 전투좌지라고 생각하니 온몸을 긴장하게 하는 어떤 위압감이 건물의 지붕과 벽체, 토담과 널대문에서 은근히 뿜어져나오는것 같아 저도 모르게 차렷자세를 취하게 되는것이였다. 절도있는 군인의 걸음새로 대문앞에 다가간 창절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품속에서 종이봉투를 꺼내들었다.

속지를 꺼내들고 글을 읽어내려가던 창절은 너무도 뜻밖의 사실앞에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일도 있을수 있는가?…)

두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다시금 초점을 모아 읽었다.

《…이 집에서 안해를 만날것. …》

그다음의 글줄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얼른거리기만 한다.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가 혹시 무엇에 홀리우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워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전에 타고온 군용트럭의 여가저기를 물결레로 닦아내고있는 금혁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모든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대문을 열어제끼며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어갔다. 방문을 열어제끼었다.

혼곤히 잠든 어린애를 다독여주던 젊은 녀인이 사뿐히 일어섰다. 가리마를 타넘긴 윤기나는 머리, 도두룩한 흰 이마, 반달눈, 눈섭아래 돌아있는 깨알만 한 기미… 분명 사랑하는 안해 현애였다.

창절은 다가갈념을 못하고 얼이 나간것처럼 바라보기만 했다.

현애도 역시 다가올념을 못하고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잠시후 둘은 와락 부둥켜안았다.

격렬한 포옹, 짝 잇닿은 몸과 마음에서 오가는 애뜻한 정과 정, 샘솟듯 터져나오는 눈물, 간간이 끊어지고 이어지는 속삭임… 감격적인 상봉의 순간은 길었는지 짧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멀리에서 울려오는 폭음소리가 아니었다라면 무수한 생명의 삶과 죽음이 판가리되는 전쟁의 준엄한 환경이라는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창절은 정수리에 얼음물이 닿았을 때처럼 정신을 번쩍 차리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전우들이 적진을 향하여 탄우속을 헤치며 내달리고있다. 귀중한 동지들이 피흘리며 쓰러지고있다. 그런데 너는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고있느냐. 네가 과연 한개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이란 말이나?!)

안해가 물었다.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될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 물음에 창절은 받은 임무가 확 생각키웠다.

창절은 옷주머니에서 종이를 다시 꺼내었다.

이 준엄한 전시환경에서 안해만 만날 임무 하나만 줄수야 없지 않겠는가. 조금전에 안해를 만나게 된 뜻밖의 충격에 너무도 놀라 미처 읽지 못한 내용이 종이 한면을 거의다 채우고있었다.

창절은 긴장하여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동무의 가족을 찾아낼데 대한 지시를 주시고 그 실행정형을 매일같이 알아보시면서 깊이 마음쓰시였소. 충청북도의 어느 깊은 골짜기 산전막에서 현애동무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동무들부부의 상봉을 한시바삐 마련해주자고, 런던장동무가 며칠동안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서 휴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였소. 전선정황이 어느때없이 긴박하고 긴장하여 한개 부대의 지휘관을 뽑아내면 작전계획수행에 빈자리가 크게 생길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인간의 사랑을 지켜주고 더욱 뜨겁게 부어주기 위한 전쟁, 사랑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다. 우리는 작전도를 마주하는 순간에조차 땅크나 대포와 같은 전투기술기재가 아니라 전사들의 모습을 먼저 그려볼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런던장동무의 성격에 며칠씩이나 쉬라면 말을 잘 안 들을수 있는데 최고사령관이 준 임무이고 명령이며 당부이라는것을 꼭 알려주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소. …》

《혁-》 창절은 자기도 모르게 흐느낌섞인 신음소리를 냈다.

왈칵 솟구치는 걱정을 미처 감당할수 없어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빠근해왔다. 동독이 터지길라도 한것처럼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리었다. …

이야기를 마친 창절은 그때의 걱정이 다시금 살아오르는데 물기에 축축히 젖은 두눈을 습벽이였다.

《어디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차있었는지 정말 놀라움고 의문스러울 정도였네. 가슴속 제일 깊은 곳에 눈물의 큰 호수가 있다더니 그 말이 맞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것과 함께 나의 심장이 아니, 이 나라 모든 전사들의 심장이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심장에 후더운 피줄기로 굳세게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심장을 이루고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였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심장과 똑같은 크기의 큰 주먹이 방불히 떠오르더군. 자네가 의학공부를 할 때 말하군 했지.

심장과 주먹의 크기는 신통히 일치한다고…》

《!》

나는 불시에 눈앞이 뿌옇해움을 느끼였으나 아주 선명하게 안겨오는 거대한것을 보고있었다.

그것은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뭉쳐지고 굳세어진 하나의 큰 심장, 그 심장과 똑같은 크기를 가진 거대한 주먹이였다.

그랬다. 주먹은 언제나 심장의 크기와 일치한 법이다.

지구라는 행성을 우뚝 누르고 솟은 그 거대한 주먹에 부딪칠 때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산산이 부서져나가는 온갖 악의 주먹들의 가련하고 비참한 물

끝도 확연히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에서 새롭게 끓어번지는 무서운 힘의 소용돌이를 가슴빠근하게 느끼며 생각했다.

(그 주먹의 타격력의 세기를 mv의 공식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정과 사랑을 백으로, 천, 만으로 제공한 새로운 상수를 더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 나도 저 성스럽고 위대한 주먹에 들수만 있다면... 아니, 대담하게 그속에 뛰어들자. 그래서 포악하고 파렴치하고 비열한 동물적본능을 지키려는 인간아닌 야수들 아니, 그것이 완전히 체질화된 저 악마의 무리들을 쳐엎애는 싸움에 나의 작은 주먹도 합치자. 이것이 나를 지키고 안해와 아이를 되찾고 인간의 자주적존엄을 유린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지금껏 가슴속에 엉키고 엉켜 나자신을 괴롭혀온 악성종양의 덩어리를 뿌리채 썩 뽑아던진듯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로 인민군입대를 탄원하였다.

며칠후 창결의 런던에 소속되어 대전해방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던 나는 해방된 거리에서 린점부대에 의해 구원된 안해와 딸애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의 나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었으랴.

정의의 큰 주먹에 대한 자긍심과 원쑤에 대한 증오가 엉키고 응축되어 끝없이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흘렸을 뿐이었다.

×

유럽의 한 유명한 군사평론가는 자기의 저서에 서 이렇게 썼다.

《요란한 군사장비와 팔라의 노예들을 강요와 기합, 돈이라는 녹슬대로 녹이 쓸어 당장 끓어질듯 위태로운 쇠바줄로 칭칭 동인 미국의 큰 주먹— 그것은 사실상 개개로 헤쳐진 작은 주먹의 산수적배열이었다. 반면에 정과 사랑이라는 특이한 접착제로 이어지고 웅쳐지고 다져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주먹— 그것이야말로 이 지구덩이도 단때에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위력이 축적되어있는 큰 주먹이었다. ...》

나는 군사평론가의 이 글에 나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더 첨부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거대한 주먹을 파괴할만 한 무기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다. 앞으로도 영영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많은 장군들이 그때의 교훈을 헛사리 잊어버리고 자기의 주먹이 크다고 착각하고 있다.

무엇때문인가?

〈유엔〉을 너무 크게 믿는 데로부터 생긴 과대망상증때문일 수도 있다. ... 언제쯤이면 그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류가 알고있는 행성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지고 억세어진 선군조선의 무쇠주먹에 얻어맞아 산산이 부서진 그 더러운 몸통이의 쪼각쪼각이 지구의 밖으로 내던져지는 비참한 순간에조차 허황한 망상과 착오의 세계에서 헤매일 수도 있다.

이것은 들짐승의 체질과 사고능력으로는 언제까지나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리치라 하겠다. ...》

가 사

무명고지의 철쭉꽃

박 철

그날의 무명고지 처절하던 싸움터에
옛 병사들 뉘인가 철쭉꽃 피어났네
고지를 사수하여 쓰러진 이 얼마더냐
송이마다 용사들의 그 모습 어려오네

용사들이 흘린 피 오늘도 뜨거워서
송이송이 붉은가 철쭉꽃 만발했네
그날엔 그들이 조국땅을 그러안고
오늘은 조국땅이 용사들을 품안았네

오늘도 보여오는 용사들의 그 얼굴들
그들의 숨결인가 철쭉꽃 설레이네
그 어떤 불비도 철쭉꽃 못 지우리
천만군민 마음속에 금별로 피어있네

아 철쭉꽃 무명고지 철쭉꽃
내 나라 산천을 붉게 붉게 수놓았네

전승의 축포속에 어려오는 《예쁜이》들의 형상

김려숙

축포가 오른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이날에 올랐던 승리의 불보라인양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높이 올려퍼지는 축포,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린 영웅조선의 기상을 시위하며 **김일성**장군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던 축포의 메아리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만세드높이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오늘은 무진막강한 핵보유국의 존엄과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위용떨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의 우렁찬 환호속에 온 세계, 온 우주를 뒤흔들어놓는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전에서 승리한 영웅전사들, 영웅적 우리 인민의 불굴의 모습이 저 축포속에 어려온다. 그중에는 이날을 믿어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이 나라의 평범한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혁명과 여성운동발전의 역사적과정에 수많은 여성들이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조선녀성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투지를 높이 떨치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선과 후방에서 전승승리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뜻깊은 전승기념일에 즈음하여 더더욱 영웅조선의 딸들을 그려보게 되는데는 필자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인것만은 아니다.

7월 27일! 제2해방의 날이 있는 7월에는 선군조선의 우리 여성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명절도 있다.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 이날은 조선녀성의 명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여성해방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이날이 있어 우리 여성들은 장구한 남존녀비의 역사를 끝장내고 남자들과 똑같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었다. 이날이 있어 《녀성의 노래》를 부르며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조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섰던 우리 여성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애국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령님 찾아주신 내 조국

을 지켜내는데서도 남성들과 함께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전승 60돐을 앞세우고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 맞게 되는 올해고보니 전쟁승리에 바친 이 나라 여성들의 숭고한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자연히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 붓을 들게 됨을 어쩔수 없다. 《전승의 그날에...》, 이렇게 다음말의 여운을 남긴채 하많은 꿈과 약속을 두고간 유명무명의 여성들의 고귀한 녀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이 땅에 총대숲이 일떠서고 선군시대 여성찬가가 올려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문학의 화원속에는 영웅적인 우리 여성들을 예쁜이라 부르며 그 수많은 예쁜이들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

조국위한 싸움에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여성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추억하게 하는 가사 《예쁜이》, 예쁜이는 이름 그대로 아름답다. 예쁜이란 이름만 불러봐도 예쁘게 생긴 처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예쁜이라는 이름에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집약화되어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지만 조국위해 바친 삶이 아름다와 더욱 예쁜 《예쁜이》는 조선녀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조국에 포연이 휘몰아칠 때
처녀는 전선에 탄원해왔네
어머니 내 조국 기어이 지키리
처녀는 전선에 탄원해왔네
그 이름 예쁜이 간호원 예쁜이
처녀는 전선에 처녀는 전선에 탄원해왔네

4개 절로 된 가사의 1절부터 3절에서는 간호원 예쁜이가 영웅적위훈을 세우기까지의 생활을 형상적론리를 타고 자연스럽게 펼쳐보이고있다. 가사는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으로 탄원해나갔으며 불타는 전호가에서는 병사들의 누이가 되었고 적땅크가 달려들 때에는 수류탄을 안고 맞받아나간 영웅전사, 간호원 예쁜이의 모습을 생동하게 시화하였다.

4절은 오늘이다. 우리는 지금 간호원 예쁜이가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땅에서, 고운 새 우짖고 꽃이 만발한 사회주의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영원할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과 부강번영속에 우리의 영웅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전화의 그날의 모습으로 살아있다.

조국은 예쁜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준엄한 전쟁시기에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한 우리 여성들을 길이길이 추억하며 영생의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더욱 만발하게 피워주고있다.

어제날 자기 가정의 울타리 하나 넘어서지 못했던 여성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라는 거창한 투쟁의 바다에 뛰어들어 남자들과 함께 전쟁승리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가사에서 형성된 예쁜이의 모습은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우리 여성들의 외유내강한 성격적특징, 아름답고도 영웅적인 모습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여성혁명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여성들의 강毅하고 영웅적인 모습은 예쁜이처럼 총을 메고 조국수호의 결전장에 달려나간 모습에서 제일 뚜렷이 생동하게 안겨온다.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체험과 해방후 5년간의 행복한 생활체험, 상반되는 두 제도, 두 생활에 대한 극적체험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운명선택의 길을 명백히 제시해주었다. 노예가 되는 길과 자주적인 참된 삶을 누리는 길, 이 두갈래 길은 결국 조국을 지키는가, 빼앗기는가 하는 문제였다. 조국을 빼앗기면 노예의 길이, 조국을 수호하면 자주적삶의 길이다.

그것을 사무치게 절감한 우리 여성들이였기에 총을 메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조국수호를 위한 정의의 전쟁에 떨쳐나섰다. 총대모만 지킬수 있는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 여성들의 운명이였다.

당시 병사였던 여성들이 쓴 시 《어머니에게》(방금숙 1953년), 《당의 목소리》(채경숙, 1951년), 《샘물》(리계심, 1951년) 등에는 인민군전사 녀병사들의 모습과 고상한 사상정신세계가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시 《어머니에게》는 철부지 딸로만 알고있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말라고, 싸움터에 나와 로병들속에서 흰 빨래 눈부시게 행구는 법도, 열무김치 알맞추 익히는 법도 배웠다고 하면서 《전투의 불길속에 자라/ 이 딸은 오늘은/ 녀대원들 거느린/ 녀성지휘관/ 비발치는 고지에 담가들고/비호처럼 날아드는/사내 다름없는 용맹으로/ 사단에 소문난 처녀》라고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시 《당의 목소리》에 펼쳐진 시적화폭에서는 당원이 된 기쁨안고 새벽길을 걷는 무전수처녀에게 원쑤를 무찔러나아가는 대오의 나팔수가 되라고, 빛나는 기수, 불타는 화불이 되라고 가르치는 당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전쟁시기에 창작된 시 《최후의 미소》(김영철,

1950년)는 담시적성격을 띤 시로서 열두명의 부상병들을 데리고 부대를 찾아가는 길에 오른 간호원 처녀가 적땅크를 까부시는 영웅적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감동깊이 시화하고있다. 수류탄뭉음을 안고 적땅크밑에 몸을 던진 그 간호원처녀가 예쁜이가 아닌지, 조순옥영웅이 아닌지. 하지만 구태여 그가 누군지 묻지를 말자, 필요하다면 누구나 것처럼 싸웠을 우리 여성들이다.

시에서 형상된것처럼 부상병들앞에 갑자기 나타난 적들의 땅크, 피하자니 그럴 겨를이 없는 그들의 밀친은 처녀의 허리에 매여달린 세개의 수류탄 뿐이였다. 간호원의 그 수류탄 세개를 묶으면 무한케도를 끊을수 있다고 성급한 병사 말할 때 동무는 아직 걸을수 없다고, 저 땅크는 자기에게 말기라고 침착하게 말하는 무를 동인 군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부상병들의 벗겨진 단추를 채워주며 풀어진 붕대도 다시 감아주는 간호원, 허나 그 순간 간호원의 숨결은 조용하면서도 거칠어진다. 시는 이렇게 서정을 극적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시적정황을 충분히 제시하여 영웅적행동의 밑바탕에 흐르는 강렬한 정서를 폭발어로 자연스럽게 승화시키고있다.

《…그담엔 빙긋이 웃어보였다/ 늘 보는 미소!/ 티없는 미소!/ 상냥한 미소!/ 약간 허리를 굽힌 채/개울가로 달려가누나/

...

마치 세면물을 길러가는듯/ 약국에라도 잠깐 다녀올듯/ 얼마후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땅크는 검붉은 불길에 휩싸이고/ 위생가방우에 단풍잎이 우수수.../간호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간호원처녀가 남기고간 최후의 미소, 그 미소에 담긴 높은 뜻이 바로 저 전승의 축포속에서 우렁이 떠오른다. 오늘도 처녀는 우리에게 그렇듯 밝고 상냥한 미소를 보내는것이다. 조국이 나에겐 그렇듯 귀중했다고, 나는 그렇듯 조국을 사랑했다고...

그 간호원처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순옥영웅을 보며 또한 그뿐만이 아닌 수많은 녀성군인들, 전선에서 병사들의 누이, 어머니였던 간호원들의 모습을 본다.

육탄영웅 조순옥의 형상은 시와 노래, 소설과 영화, 미술작품 등 거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에서 창조되었다.

우리 여기서 작가가 그렇듯 애정을 담아 그린 중편소설 《나의 사랑》에서 주인공 조순옥영웅의 최후장면을 보기로 하자. 그토록 생을 사랑하고 가정과 남편을 사랑하고 동지들을 사랑한 조순옥,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헌신도 행복으로, 락으로 여긴 영웅, 그래서 영웅은 그 사랑을 위해 조국수호의 길에 귀중한 생, 자기 사랑을 바친것이다. 그의 온갖 사랑은 곧 조국에 대한 크나큰 사

랑속에 있었다.

팔에 붓대를 감고 목에는 수류탄을 걸고 한쪽다리를 땅에 끌면서 한치한치 땅크를 향해 기여가는 조순옥, 몇시간전만 하여도 가름한 얼굴에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담고있던 눈이 사랑과 증오로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짱.》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조순옥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의 땅크를 까부셨다. 그러나 그의 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수령결사옹위대오의 전열에 서있는 육탄영웅이다.

마지막전파를 날린 무전수처녀를 노래한 시 《최후의 송신》(김철, 1953년)도 있다.

몰려오는 적의 전차들, 생사를 판가름하는 숨가쁜 격전장, 이미 심한 부상으로 더는 전진을 때릴수도 없게 된 무전수처녀, 허나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투명령을 하달하지 않고서는 죽을수도 없는 무전수, 그는 처녀이기 전에 영웅적인민군전사였다. 《너 전사는 번쩍 고개를 든다/ 흰 이마에 두줄기 붉은 피.../ 포연자욱한 전방을 바라보는/ 아, 충정과 애정에 끓는 눈동자/ 온몸의 힘을 강그리 모아/ 그는 최후송신의 전진을 치거니/ 끊어졌다가도 되살아나는 말—〈견지하라 10분만... 그러면 공격이다!〉》전파를 타고 최고사령관명령이 전선에 가닿는다. 전파를 타고 조국에 바치는 무전수처녀의 생이 메아리쳐간다. 얼마나 전승의 날을 기다렸던 처녀였으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최후의 송신을 날린 처녀의 영웅적모습은 안정희의 모습으로, 보비의 모습으로 더욱 뚜렷이 안겨온다.

최후의 반돌격을 앞둔 비장한 순간에도 자기들이 싸우고있는 월미도를 보고계실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을 그려보며 수류탄을 무전대우에 놓고 전진을 때리는 안정희, 《놈들이 내앞에 다가...》라는 채 맺지 못한 마지막무전문과 함께 여성자폭영웅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영웅들이여, 전승의 축포를 보시라. 그대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이 땅에 일떠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을 보시라!

우리 문화는 이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소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용감하고 대담한 여성들의 모습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쟁마당에서도 진하게 풍기는 여성들의 고유한 향기와 그 생활세계를 그리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전쟁에서 총대를 틀어쥔 우리 여성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용맹을 떨치었을뿐아니라 여성의 독특한 향기와 매력으로 전우들의 힘을 백배천배로 커지게 하는 신비한 힘을 발휘하였다. 여성의 힘! 그것은 그 크기와 무게를 잴수 없고 총과 대포도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힘이다.

작가 리계심이 자기의 생활체험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박우물》(2000년)은 간호원이나 무

전수녀성들을 그린것이 아니라 군단신문의 처녀주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보는것처럼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단발머리처녀주필이 적후에 나갔다가와서 부상당한 몸으로 써낸 기사와 함께 군단신문 《강철부대》의 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조선여성들이 전선에서 부상병들의 어머니노릇만 착실히 하는줄 알았더니 힘있는 붓대포로 미제승냥이놈들의 면상을 냅다 갈긴다고 못내 대견해하시는데이다.

주인공 림송화는 여성들이 남자들을 좌지우지하는, 말그대로 여성들의 세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군의소에 있다가 여자라고는 전혀 볼수 없는 남자들의 세계에 외톨리로 끼운 새 환경에서 신문주필로서의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소설은 여자라고 여러모에서 보살펴주려고 하는 동정에는 물론 여자라고 좀 알잡아보려는 사소한 기미에도 서슴없이 반발하는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도고성을 주인공의 주되는 성격적특성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여성의 고유한 향기, 매력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형상하고있다.

림송화의 향기,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생활세부만 보더라도 박격포탄 탄피에 꽂아놓은 들국화향기와 그 여운, 물없는 고지의 병사들을 위해 쓴 시 《내 고향의 박우물》과 한목숨 내대고 메고온 군용물통, 군단신문에 설정된 고향소식란, 《화선멀미》, 《화선목록》을 직접 채취하며 쓴 기사들 등이 있다. 이러한 세부와 연결된 정서적여운은 참으로 크다. 병사들을 위한 주인공의 투쟁모습에 감동된 전사들과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기체가 잘 돌아가는것이 배아링덕이라고 하는데 불타고 물 한방울 없는 이 고지에서 송화는 윤활유역할을 해주고있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림송화는 이처럼 병사들에게 사랑과 그리움의 모든 정서를 안겨주었고 그들을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고지의 꽃이었고 노래였고 시였다.

영웅적인 투쟁과 사랑의 힘은 결코 전선에서만 있었것이 아니였다. 후방을 지켜선 우리 여성들의 불굴의 형상, 강의한 이 나라 여성들의 아름다운 형상은 《우리 님 영웅되셨네》를 비롯한 전시기요들과 함께 전쟁시기에 창작된 조기천의 시 《조선의 어머니》와 김조규의 시 《당신을 보낸 샘터길에서》, 정문향의 시 《다시한번 그는 바라보았다》(1951년) 그리고 공화국의 첫 여성영웅 조옥희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조옥희》(안홍운, 2008년), 우리 나라 첫 여성포수이며 전쟁시기 평강군유격대대장 리수덕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숲의 노래》(정영종, 2007년) 등 작품들에서 집중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이들 여성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 해방된 조국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조국을 알고 행복을 알

전승의 세월

홍 민 식

일어났다면
열백번도 더 일어났을 전쟁
불을 달리는 전쟁도화선을 찍어버리며
걸음걸음 총대로 빛내여온 전승의 세월!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
대형간첩비행기 《EC-121》호 사건
판문점사건과 핵대결전...
세기를 이은 수치스런 참패를
미제야 정녕 망각했단 말인가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걸고
《제재결의》를 떠들다못해
전략폭격기를 하늘을 썰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동원시켜
끝끝내 핵몽둥이를 꺼내들었거니

어리석다 미제야
핵공감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네놈들에게 전쟁과 살육의 핵몽둥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꺾어 불태워버릴
평화와 정의의 핵보검이 있다
그 핵보검을 추켜들고
온 나라가 반미최후결전에 나섰다

미싸일이 몸부림친다
핵탄들이 노호한다
미제야 살아 숨쉴 곳을 찾지 말라

백악관은 물론 미국땅덩어리 통채로
우리의 전략로케트타격권안에 있다

우리의 전승은
50년대 전쟁승리의 추억만이 아닌
그 승리를 지키고 빛내이는것!
네놈들 씨종자도 없이 박멸하고
조국통일성전에서 승리하는것!

천하제일명장 **김정은**장군
이제 명령만 내리신다면
세기를 넘어 쌓이고쌓인 분노와 증오
핵불소나기로 쏟아지리라
미국땅덩어리가 불바다에 잠겨
이 행성밖으로 흩날려버리리라

속죄도 필요없다
자비도 필요없다
오직 정의의 핵보검에 의한 최후결산!
그 순간을 기다려 격동상태에 있다
그 순간을 위해 참호에서 산다

년대를 이어 세기를 넘어 빛내여온
오, 전승의 세월
김정은장군님의 탁월한 병진로선을 따라
한손엔 마치고 낫
다른 손엔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통일의 최후결전에서 승리하리라

았으며 수령을 위해, 조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
기를 서슴없이 바친 애국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선군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고있다.

전선과 후방에서 우리 여성들이 모두가 영웅이
되고 애국자가 되어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울수
있었던것은 그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
게 믿고 따른 억척불변의 신념이 있었고 수령님품
에 안겨있는 내 조국, 내 고향,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에 대한 사랑의 정에 사무쳐있었기때문이
다. 당시 병사였던 김철이 시 《**김일성**장군님께》
(1952년)에서 《만일 장군님이/ 우리 전사들의
가슴에/ 그렇게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만일
장군님이/ 이 나라 녀인들의 손목을 잡아/ 그렇게
이끌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전사들이/ 수류탄
으로 땅크를 막아내고/어찌 안해들이/ 남편 없는

고향을 지켜냈으랴》라고 토로한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군대와 인민, 우리 녀성들모두의 한결같은 심
정의 반영인것이다.

위대한 영웅, 만고의 영웅, 영웅중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우리 녀성들은 영웅적조선
녀성의 불굴의 모습과 그 위용을 온 세상에 파시
할수 있었다.

선군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전시 우리 녀성
들의 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 영원한 주제분야이
다. 애국에 불타는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녀성
들의 형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최후명령을
받들고 성스러운 조국통일대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최후승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
민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김 유 권

전승절을 앞두고 나는 전쟁로병 박종식영웅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쓴 장편소설이 출판되어나왔다고 알려주면서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못내 반가와 하는것이였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찾아갔던것은 몇년전, 조국해방전쟁시기 첫 추격기비행사영웅들을 그린 장편소설을 쓰려고 취재를 다니던 때였다. 전시에 비행사였던 박종식영웅만큼 공화국영웅들인 김기옥, 리문순, 리동규비행사들을 잘 아는 로병도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였다.

말복이 지난 뒤 수도교외에 있는 집으로 찾아가니 넓은 트랙에서 농립모를 쓴 그가 증손녀를 데리고 포도를 따고있었다. 무르익은 탐스러운 청포도송이들이 싸리바구니와 광주리에 그득그득 넘쳐나고있었다. 풍요하고 아늑한 농촌정경이라고 할가. 장령복을 벗고 집에 들어온지도 어느덧 15년... 이제는 한뼘 논밭을 가꾸어온 고령의 늙은이처럼 보이는것이였다. 어차피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로병을 만나게 되리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찾아올 때의 흥분과 기대가 저으기 스러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와 몇마디 말을 주고받고나서 나는 더욱 실망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쌍날개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하면서 추격기비행사였던 나의 주인공들과는 다른 부대, 다른 비행장들에서 전쟁을 치른 까닭에 소설을 쓰는데는 별로 도움을 줄수 없을것 같다고 미리 랑해를 구하는것이였다. 그에게서 내가 들은것은 추격기비행사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 뿐이였다.

나는 그자신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해온 그는 해방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가거거를 익힐수 있었고 그후 비행학교에서 교관들과 동무들의 도움을 받으며 고등수학의 초보를 깨우쳤다고 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갖 조종법을 배운 비행사들은 쌍날개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캄캄한 밤하늘로 날아가 적들의 비행장이며 부두, 지휘처들

을 폭격하였다. 야간폭격을 마치고 돌아와 비행장에 내린 다음에 좌실아래부분이 두군데나 고사포파편에 뚫린것을 발견하고 놀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포비행장을 폭격할 때 그는 앞서 날아가던 우리 폭격기가 대공포화에 맞아 기체에 불이 달리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되어 적의 연유창으로 내리쬐히는것을 보았다. 희생된 전우의 복수를 부르짖으며 결사적으로 급강하하여 적들의 머리위에 불벼락을 퍼붓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있었다.

그 순간 로병은 피끓던 청춘시절로 되돌아간듯싶었다.

그의 전투담을 들으면서 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주체적인 공중전법에 따라 프로페라식추격기를 조종하여 미제의 분사식전투기를 떨군 김기옥영웅이며 《하늘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전략폭격기 《B-29》를 처음으로 떨구었던 리문순영웅 그리고 한뫼이 방패가 되어 전우를 구원하고 적구에 락하였다가 적군 한놈을 포로하여 앞세우고 전선을 넘어온 리동규영웅의 모습을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볼수 있었다.

박종식영웅은 그후 장령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갔던 보람찬 나날에 대해서도 깊은 감회를 안고 돌이켜보는것이였다.

1969년 우리 나라 령공에 침입했던 미제의 대형 간첩비행기 《EC-121》을 떨군 우리 인민군비행대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그려. 흔히 말하듯이 이제 추억으로 사는 나이가 되었지요. 허허...》

열정에 넘쳐 이야기하던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허전한 느낌을 주는 웃음소리와 함께 끊어지고말았다.

나는 80살의 로병을 보며 생각했다. 누구나 오래 사느라하면 눈정기가 흐려지고 온몸에 끓던 뜨거운 기운도 식어가는 로년기를 맞이하기마련이다. 하지만 금별의 위훈을 세우던 청춘기를 돌이켜보는 생

은 말년에도 아름답고 복된 생이 아니라. 그래서 한창시절에 사람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려운 초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빛나는 공적을 쌓으려고 분투하며 열정을 불태우는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군복을 입고 하늘을 날던 그 시절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로병의 심정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채 그와 헤어졌다.

로병영웅은 그후에도 나에게 이따금 전화를 걸어왔고 장편창작에 관심을 보이였다. 나는 취재를 그럭저럭 끝냈지만 집필이 처음부터 잘되지 않아 애를 먹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자동차도 몰아보지 못한 내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주인공을 그리자니 글이 제대로 될리가 없었다.

그는 맥빠진 소리를 하는 나를 집에 초청하여 비행술의 초보를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방 한가운데 의자를 내놓고 앉아 비행할 때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좌로 선회할 때에는 조종간을 어떻게 당기고 조종간은 어떻게 누끼면서 어느 쪽 발디디개를 밟아야 한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급강하하다가 떠오르는 순간 온몸에 하중이 실려 눈앞이 새까매질 때의 느낌도 이야기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가 고마왔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나를 보고 고맙다는 소리를 하였다. 전쟁소설을 쓰는 나와 이야기를 하느라면 다시금 왕년의 그 시절로 돌아간듯 기운이 솟는다는 것이였다.

이제 영웅비행사들을 그린 이 소설책이 세상에 나오면 자기가 있던 부대비행사들도 읽어보겠는데 형상이 잘되도록 로병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말하기도 하였다.

내가 원고를 출판에 넘겼던 작년 5월초였다.

《로동신문》1면에 실린 기사를 읽던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야말로 경이적인 소식이었다.

항공 및 반항공군지휘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지휘관들이 올리는 보고를 받으시고 전쟁참가자인 박종식영웅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강사로 친히 임명해주신것이였다.

나는 그날 저녁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로병영웅의 집을 찾아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영웅은 자기를 축하해주러온 사람들앞에서 목이 메어 말을 잘 잊지 못하였다.

어느날 그는 자기가 복무하던 부대로 찾아갔다고 한다. 그는 지휘관들과 비행사들에게 위문품을 전하면서 전쟁때 싸운 이 로병의 뒤통까지 합쳐

최고사령관동지의 경도를 잘 받들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은퇴한 로병에게 다시 장령의 군복을 입고 대오에 서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주시는것이였다....

그후 날과 달이 지나갔다. 나는 군복입은 그의 모습을 보고싶었다. 이제 책이 나오면 한번 찾아가리라 버르기도 하였다.

드디어 그 시각이 왔다.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장령군복차림을 해선지 영웅은 몸시도 낯설어보였다. 근엄하고 패기있는 장년의 지휘관처럼 보였다. 실로 20년은 젊어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해빛같은 사랑과 은정이 고목에 꽃을 피우듯 로병에게 청춘의 생기와 활력을 안겨주는 기적을 안아온것이였다.

어찌 그 혼자만이 받아안은 사랑의 기적이겠는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항공군을 나의 비행대라고 불러주시면서 바람세찬 비행훈련장에 나오시여 백승의 비행전법도 가르쳐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우리 비행사들의 무적의 힘과 기적을 날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로병영웅은 지금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은 우리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적들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게 될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웁은 말이였다. 전승 60돛이 되는 올해에 우리 천만군민과 더불어 전쟁로병도 나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치렬한 반미대결전을 벌려 련전런승하지 않았는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경도가 있기에 승리의 력사는 대를 이어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는 긍지와 신념으로 우리의 심장은 높뛰고 있다.

영웅과 나는 흥분을 안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돌아보았다.

승리의 만세를 부르며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우리들을 새로운 승리, 최후의 승리로 부르는 인민군전사를 형상한 《승리》상앞에서 삼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 배경에는 개건확장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웅자가 찬연히 솟아 빛나고있었다.



류 영 기

전승절이다.

명절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한 나는 《승리》상 앞에서 진행되는 음악회관람석에 앉아있었다.

음악회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을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이끌어가고있었다.

나 역시 뜨거운 마음으로 그날에로 달려가고있었다.

잊지 못할 50여년전 나는 전승경축음악회를 지휘했었다.

그날 나는 울면서 지휘봉을 들었다. 내가 지휘하는 협주곡 《사랑하는 내 고향》을 지은 녀성을 생각하면서 울었던것이다.

전승의 노래를 조국에 남기고 이 광장에 오지 못한 녀성 연이...

세월의 흐름앞에는 영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 그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도 퇴색되듯이 귀중히 간직된 추억도 희미해지기마련이다.

무정한 세월은 나의 몸에도 80년의 년륜을 새겨놓았다. 그러나 연이의 모습만은 빼앗지 못하였다.

오늘도 눈만 감으면 어제날인듯 연이는 생생히 떠오른다....

1

조국해방전쟁의 1계단시기였다.

서울의 한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어느날 나는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무성협주단 지휘자 유철선생님 앞》이라고

밝힌 그 편지봉투속에는 《사랑하는 내 고향》이란 제목의 노래가 들어있었다.

곡이 소박하고 평범해보였다.

그즈음 나는 전체 인민과 군대를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는 열렬한 조국애로 충만된 폭이 큰 노래를 지어보려고 모태기고있던지라 그 노래를 별치 않게 스쳐보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그 은은한 선물이 내자신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음을 느끼고 은연중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다시 악보를 찾아 들여다보는 나의 눈앞에 나서자란 정든 고향산천이 떠올랐다.

자그마한 정든 고향집... 내가에 휘날어진 버드나무아래서 풀피리 불면 대답하는 누렁소의 방울소리... 전화에 싸여 그 고향이 불타버린다. 고향의 젊은이들 총을 잡고 전선으로 떠나간다. 잘 있거라 내 고향아! 원쑤 치고 돌아와서 너를 다시 일떠세우리라. 락원을 세우리라.

결전장에 나선 이 나라의 청춘들이 피흘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고향을 지켜, 조국을 지켜 싸운다....

홍분한 나는 뛰쳐일어나 피아노에 마주앉았다.

새날이 접어든 깊은 밤에 피아노협주곡으로 편곡된 악보를 켜 나는 잠자리에 누운 단장과 배우들을 흔들어깨웠다.

그밤으로 진행된 협주단심의에서는 노래를 곧 무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다. 창작가가 자기의 주소도, 직장직위도 밝히지 않고 편지봉투

한끝에 《연이 올림》이라는 몇글자로 자기 소개를 한것이다.

연이란 어떤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협주단의 그 누구도 이 물음앞에 대답하지 못했다. 나 역시 연이가 누구인지 몰랐다.

노래를 무대에 올리려면 창작가를 찾아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 전시에 이름만 가지고 어데 가서 찾는단 말인가.

나는 손에 전 새를 놓친듯 한 허전한 마음으로 편지봉투만 들여다보았다.

자기 소개를 다 하지 못한 연이의 심정은 이해할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지은 노래에 대해 자신심을 가지지 못했을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노래를 보낸것이라.

그러자 연이의 표상이 떠올랐다. 소심하고 부끄럼을 잘 타는 소박한 인간의 표상이었다. 이름이나 작품을 놓고 보건대 녀성이라는 추측도 갔다. 그가 자기의 작품이 우리 협주단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는것을 안다면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편지봉투에 찍힌 세개의 군사우편함도장을 보는 순간 불쑥 떠오르는 생각에 무릎을 치고 일어섰다.

그 우편소들을 찾아가느라 연이가 편지를 부친 첫 우편소를 알수 있을것이고 그 주변에서 얼마든지 연이를 찾을수 있다는 궁리가 떠올랐던것이다.

단장의 승낙을 받은 나는 곧 연이를 찾아떠났다.

9월의 높은 하늘밑에 끝없이 뻗어간 황토길, 서울에서 다시 조치원으로, 또다시 서울로 오가면서 겪은 일들은 기억에 삭막하다. 다만 전선으로 가는 수송차적재함우에서 소낙비를 만나 흠뻑 젖은채로 어느 한 군사우편소 문을 열던 일이며 산더미처럼 쌓인 편지봉투에 기계를 련상케 하는 솜씨로 도장을 찍고있던 특무상사 우편소장의 모습이며 어처구니없어하던 그의 말은 기억에 생생하다.

《허참... 서울서 박서방 찾기라더니 하루에 이 앞길루 지나다니는 군인들이 몇천명인지 아니까?... 차를 타구 오가다가 무데기편지를 부치는 사람들두 하나, 둘이 아니구요. ...》

내가 해낸 궁리는 지나가는 구름을 잡으려는 허망한 일이라는것이 뻔했다. 그러나 그대로 돌아설수는 없었다.

그 주변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이를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마지막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서 저으기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사단군의소를 찾아가는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야산들이 웅기종기 뭉쳐있는 한 골짜기의 송림속에 사단군의소가 자리잡고있었다.

음악을 무척 좋아한다고 자기를 소개한 사단군의소 소장은 이미전부터 나의 얼굴을 알고있었는지 귀빈처럼 맞이해주었다.

허나 사단군의소에도 연이란 이름을 가진 처녀는 없었다.

맥이 풀렸다. 노래가 아까왔고 연이의 재능이 아까왔다.

사단군의소 소장은 나의 기분에는 아랑곳없이 경리장을 불러 식사를 준비시키고 유명한 음악가가 온 기회에 군의소에술소조공연을 지도받겠다고 부산을 피웠다. 그는 이 기회에 나를 아예 친구로 삼을 잡도리로 고향이며 부모형제며 안해와 딸에 대한 이야기며 사단적으로 소문난 자기의 손퐁금숨씨며 끝날줄 모르는 이야기를 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군의소장이 정성껏 준비시킨 식사도 못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적의 대병력이 인천에 상륙했으니 즉시 서울방어계선까지 후퇴할데 대한 긴급명령이 군의소에 떨어졌던것이였다.

돌변한 전선정황에 나도 더 지체할수 없었다. 사단군의소의 약품마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돌아가는 나의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2

나는 그때까지 우연을 믿지 않았다. 모든 결과는 의식적인 행위의 결실이라고 믿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우연한 행운과 맞닿게 되었다.

마차를 타고 송림속에 난 길을 따라가던 나는 어데선가 먼곳에서 울리는 귀에 익은 선율을 들었다. 틀림없이 《사랑하는 내 고향》의 선율이였다.

마차를 세우라고 고향을 친 나는 채 몇지도 않은 마차에서 뛰어내려 내달렸다.

술가지가 옷자락을 채고 거미줄이 얼굴에 감기군 했으나 그냥 달렸다.

피아노의 선율은 산기슭의 호수가에 자리잡고있는 별장같이보이는 호화스런 건물안에서 울리고있었다.

아, 드디어 연이를 찾았구나! 나는 기쁨에 넘쳐 별장문을 쿵쿵 두드렸다. 피아노소리가 멎고 문

이 열리더니 별장지기인듯 한 나이지숙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내가 찾아온 사유를 들은 그 사나이는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난색을 지었다.

《피아노는 내가 랐는데요.》…》

《아니?… 그럼 아바이가 연이라는…》

《아니웬다. 그 노래는 얼마전에 읊에 장보러 갔다가 전선으로 가는 군대처녀들한테서 배웠는데요.》

나는 얼핏 별장지기의 손을 보았다. 거칠게 마디진 투박한 손이었다. 그 손으로는 내가 들은것과 같은 능란한 피아노연주를 할수 없다는것이 뻔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서툰 거짓말을 그가 서둘러 꾸며냈는지를 나는 후에야 알게 되었다.

20대의 한창나이였던 나는 그 사나이를 밀쳐버리고 별장안으로 뛰쳐들어갔다.

피아노가 있음직한 응접실문을 열어제낀 나는 큼직한 방수포배낭을 든 처녀와 마주쳤다.

나를 본 처녀는 놀라며 배낭을 떼구었다. 배낭 아구리가 터지며 톱밥과 진귀한 청자기가 굴러나왔다.

《난 내무성협주단 지휘자 유철이요. 이자 피아노를 동무가 랐지요?》

처녀는 내뒤에 따라선 사나이를 피끗 보더니 머리를 저었다.

《전 피아노를 탈줄 몰라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와있소?》

《여기 하녀예요.》

처녀는 나를 마주보기 두려운듯 황황히 눈길을 거두고 바닥에 주저앉아 톱밥과 청자기를 모아 배낭속에 넣었다.

이때 별장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총탁으로 문을 때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권총을 뽑아들고 창가에 뛰여간 나는 문앞에 몰려선 한 무리의 적특공대를 보았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 전투에서 뜻밖에도 나는 복부에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나한테 달려온 처녀와 《연이, 빨리 지하도로!》 하는 사나이의 웨침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었다.

내가 다시 의식을 차린것은 깊은 산속이었다. 나는 담가에 누워있었다. 방수포배낭을 멘 사나이가 앞에 서고 역시 방수포배낭을 멘 처녀가 팍투성이가 되어 뒤따르고있었다.

처녀는 피가 댄 입술을 감쳐물고 안간힘을 써 걸

음을 옮기고있었다.

담가가 멈춰섰다.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좀 쉬어갈가?》…》

《아니예요. 유철선생님을 살리자면 해주에 빨리 가야 해요.》

《견딜수 있겠소?》

《예, 견뎌내겠어요.》

담가가 다시 움직였다. 처녀가 발을 헛짚은듯 담가가 뒤척거렸다. 나는 뼈를 에이는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이 처녀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가 하는 어렵פות한 생각속에 혼수상태에 빠져버렸다.

얼마나 지났는지 나는 해주시내의 어느 청기와집 마루우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다.

아지랑이처럼 아물거리는 공간속에 처마끝의 제비둥지가 보이고 그 둥지속에서 누군가가 울고있는듯이 느껴졌다.

《한술만 넘겨주세요. 유철선생님! 잡수셔야 살아요. 선생님은 꼭 살아야 해요. 한술만 잡쉬요!》…》

그 울음섞인 애원은 제비둥지속에서가 아니라 내 곁에 앉은 처녀의 입에서 흘러나오고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입을 조금 벌렸다.

《아! 정신차렸군요.》…》

처녀는 서둘러 자기 무르팍에 내 머리를 베워놓고 미음을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때 《한술만 더요. 한술만 더요.》 하던 울음젖은 그 애원이 귀전에 쟁쟁하다. 그리고 내 입에 미음을 떠넣어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벌여지군 하던 그의 입술이, 연약한 몸으로 담가를 들고 헤쳐온 험난한 로정의 피로에 터지고 피가 영커불은 그 입술이 선히 떠오르군 한다.

오래간만에 먹은 미음에 취한 내가 졸기 시작하자 처녀는 주인집아낙네가 가져다준 부들부채로 파리를 쫓아주었다.

《에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혀를 차는 주인집아낙네의 그 말에 나는 고마움에 젖어 처녀를 바라보았다. 뛰여난 미인이라고는 할수 없어도 첫눈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처녀였다. 특히 크고 맑은 두눈과 티 한점 없는 살결은 십산속의 깨끗한 시내물을 방불케 하는 청신한감을 주었다.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이름이 뭐요?》

처녀는 머리를 외로 틀고 조용히 흐느끼었다.

《저때문에…》

이때 밖에서 자동차가 멎는 소리가 나더니 별장

지기로 짐작한 그 사나이가 인민군대 간호원처녀들과 함께 마당에 들어섰다.

내가 위생차우에 실렸을 때 처녀가 다가와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선생님… 꼭 살아… 주세요…》

그리고는 터지려는 울음을 막으려는듯 작은 주먹으로 입을 꼭 막고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이 나에게 수백수천마디의 말을 하고있는듯 느껴졌다.

그가 하고싶었던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어떤 처녀인지 그때 나는 몰랐다.

차가 떠나는 순간에야 별장에서 의식을 잃으면서 들은 말이 뇌리를 쳤다.

《연이, 빨리 지하도로!》

연이었다. 그 처녀는 연이었던 것이다.

3

수술 또 수술… 나는 후방병원에서 이듬해 봄에야 협주단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후방병원의 침대우에서 심혈을 기울여 다시 완성한 피아노협주곡 《사랑하는 내 고향》은 협주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연이를 협주단 작곡가로 소환할데 대한 내무성 소환장과 악보를 가지고 나는 곧 해주로 떠났다.

연이가 그리웠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는 연이…

갈라터지고 피가 엉킨 그 입술, 소박하고 진정에 넘친 그 마음, 눈물이 그렇하니 담긴 맑은 눈… 그 모든것은 후방병원의 나날속에 이미 가슴깊이 자리 잡고있었다. 상봉의 예감으로 내 마음은 한없이 들레이고있었다.

단장이 내어준 짜프차가 만족력을 내고있었지만 나는 그냥 운전사를 재촉했다.

드디어 낮익은 해주의 그 청기와와집에 도착하였을 때 주인집아낙네는 죽은 혈육이 다시 살아온듯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내가 연이에 대해서 묻자 그의 태도는 대변에 변했다.

《어이구 군관동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 화냥년을 찾아왔구만요. … 만나지두 말라요. 군관동문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그넌 돈밖에 먹을줄 모르는 불가사리예요, 불가사리…》

《예?!…》

나는 어안이 빙빙해서 그 녀인을 쳐다보았다.

칭천벽력같은 소리였던 것이다.

나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연이는 신분이 명확치 않은 사람들과 모리간상배들과 섞쓸려다니면서 청자기요, 백자기요, 금불상이요 하는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수집하고 장사판을 벌렸다고 한다. 그 때문에 내무서에 잡혀들어가 취조를 받다가 최근에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요즘에도 그노릇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녀인의 말을 듣는 나의 눈앞에 피땀 방수포배낭속에 톱밥과 청자기를 황황히 넣던 연이가 떠올랐다.

연이가 과연 그런 인간이란 말인가? 조국에 대한 사랑을 그토록 절절하게 노래한 연이가 설마?…

인간에게 두개의 얼굴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그토록 아름답고 선량한 얼굴이 더럽고 검은 얼굴로도 될수 있는가?…

나는 연이를 만나보기 전에는 그 녀인의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연이가 들어있다는 청풍려관을 찾아갔다. 려관 접수원녀인이 연이를 찾는 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안하지만 증명서를 좀…》

나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펼쳐본 녀인은 더욱 놀라와했다.

《평양에서 오셨나요?》

《예.》

《내무성협주단 유철지휘자?…》

《왜 그러니까?》

녀인은 믿어지지 않는듯 멍하니 나를 쳐다보기만 하더니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끼끗한 젊은 내무성군관이 연이를 찾아온것이 그 녀인에게는 암만해도 이상스러웠던지 뜨직뜨직 말하였다.

《그 녀자는 지금 없는데… 방에 가서 기다리겠어요?》

나는 거절하고 밖에 나갔다. 려관마당의 살구나 무밑에 서서 담배불을 붙인 나는 연이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나의 눈길이 접수실로 향하자 그곳에 모여들어 나를 내다보며 수군덕거리던 몇명의 녀인들이 흠칫목을 움츠리는것이 보였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들었다. 담배도 거덜이 났다.

저녁무렵 려관을 나서던 접수원녀인이 나를 그냥 지나치기가 미안한듯 주춤주춤하며 말을 건네었다.

연이는 일찍 들어오는 날이 없으니 어데 가서 저녁식사라도 하고 오라는 권고였다. 나를 동정하는 그 녀인의 어조에서 왜서인지 연이에 대한 경멸과 증오가 느껴졌다.

밤이 깊어갔다. 살구나무가지에 달빛이 걸려 앵두알만큼씩한 살구들이 달려있는것이 보였다. 무심히 손을 올려 살구 한알을 따는데 어디선가 녀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다가오더니 살구나무가 서있는 려판담장밑에서 멎었다. 왜서인지 그 웃음소리의 주인이 연이가 아닐가 하는 예감이 심장을 압박해왔다.

《진호씨, 오늘은 만점이었어요.》

《하하, 그러니 오늘은 연이씨의 방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구만?…》

《으음… 사방에서 눈총을 쏘고있어요. 래일 또 만나요.》

《연이씨한테 오늘이란 없구 래일뿐이니… 언제면 래일이란 말을 버리겠소?》

《호호, 그건 진호씨한테 달렸어요. 호호, 자 그럼…》

가까와오는 녀인의 구두소리와 향수내, 분내를 느끼며 나는 저도 모르게 으드득 주먹을 틀어쥐었다.

춤추는듯 한 걸음으로 려판마당에 들어선 녀인은 나를 보더니 귀신을 만난듯 흠칫 놀라며 딱 굳어졌다.

그는 분명 연이었다. 옷차림새며 얼굴가꿈새가 많이 달라졌으나 분명 내가 그렇게 보고싶어하던 바로 그 처녀였다.

그 크고 맑은 눈은 분명 연이의것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 눈은 겁에 질려있었고 애원에 차 있었다.

살구나무밑에 선 군관이 그토록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 사람이 옳지 않을가 확인하고싶은듯 한 걸음 두걸음 다가서던 연이는 한순간 전율하며 뒤걸음쳤다.

《유철선생님?…》

값진 세루양복… 진한 화장…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연이의 두번째 얼굴을 보았다. 아름답게 다듬어졌어도 추악한 얼굴이였다.

나는 품속에서 악보와 소환장을 꺼내 그의 앞에서 갈기갈기 찢었다.

《더러운 입으로 더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노래하지 말라!》

종이조각들을 그의 얼굴에 내던진 나는 돌아섰다.

협주단에 돌아온 나에게서 말이 없어졌다. 내 얼굴에 모든 사연이 썩여있는듯 사람들은 누구 하나 연이의 노래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호인인 협주단단장만이 이따금씩 찾아와서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 모든 사연을 다 안다는듯 뇌이곤 하였다.

《잊으라구… 없었던셈치면 돼.…》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내가 연이의 얼굴에 폭탄처럼 내던진 그 종이조각들이 파편마냥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나는 내무성 반탐국에서 자기 국의 예술소조공연을 지도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간 나는 뜻밖에도 회관이 아니라 국장실로 안내되었다.

대좌견장을 단 그 반탐국장을 나는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다. 본인이 상기시켜서야 반탐국장을 알아본 나는 아연해졌다. 그는 다름아닌 별장지기였던것이다.

반탐국장은 이제부터 둘사이에 오고가는 모든 대화가 비밀에 속한다는것을 강조한 다음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연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세살적 황해도일대를 휩쓴 열병에 연이는 일가식술을 다 잃었다. 불쌍한 어린것은 《연》이라는 이름 한글자만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살이를 하다가 여섯살적에 황해도 1등지주라고 하던 김인식의 첩의 집에 아이보개로 들어갔다.

첩녀는 음악광이였다. 베토벤이요, 바흐요 하며 밤낮 피아노앞에 마주앉아 세월을 보냈다. 여름철 하늬처럼 개였다 흐렷다 변덕이 심한 첩녀는 기분이 좋을 때면 애완용개한테도 음악을 가르친다고 피아노에 마주앉히곤 하였다.

그러다가도 연이가 엮은 애기가 조금만 칭얼거리기만 하면 손자리가 나도록 귀뺨을 후려갈기며 쫓아내곤 하였다.

어느 하루 첩녀한테 음악을 배워주고 돌아가던 음악선생이 피창밑에 쭈그리고앉아 악보를 그리고 있는 연이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너한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나.… 저 녀자를 백년 배워주기보다 널 한해만 배워줘도 더 나으련만…

망할 놈의 세상…》

연이는 그때 그 말의 뜻을 다는 몰랐다.

그러나 첩이 들면서 자기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부모도 친척도 형제도 심지어 성마저도 없다는것을 깨닫자 불현듯 세상이 무서워졌다. 아무

리 둘러보아도 어린 몸이 의지할 곳은 없고 차고 팽팽한 시선뿐이었다.

해방은 부모를 몰라 성조차 없이 이름만으로 불리우던 연이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전환시켰다.

새 조국건설의 바쁘신 현지도의 길에 벽성땅에 들리시었던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원으로부터 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날의 새 조국건설의 기둥감들이 바로 그런 청년들이라고, 학교에 보내어 꼭 공부시키라고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었다. 그후 연이는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하였고 3년후에는 벽성음악학교 음악교원이 되었다.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하던 날 연이는 《전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에 의해 다시 태어난 운명입니다. 전 영원히 장군님의 딸이에요.》하면서 자기의 성을 김가로 해줄데 대해 정식으로 청원하였다.

그후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연이는 불타버린 학교에서 선참으로 전선을 탄원했다. 내무성 반탐국에 입대하여 군복을 입으면서 그는 우리의 장군님, 우리의 공화국을 지키는 길에 자기의 목숨도 청춘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굳은 맹세를 다지었다.

공작상 별장지기로 가장한 반탐국장과 연이가 가 있던 별장은 괴뢰육군정보국장 장도영의 비밀별장이었다.

골동품수집가인 장도영은 그곳에 수십점의 진귀한 골동품을 진열해놓고 아껴왔었다. 전쟁 3일만에 서울이 해방되는 극적인 사변앞에 미처 별장안의 골동품을 돌아볼 사이없이 도주한 장도영은 그후 수십차례 첩자들을 파견하여 골동품들을 빼가려 했다.

내무성 반탐국에서는 장도영의 심복부하가 된 연이의 옛 주인 김인식을 리용하여 연이를 장도영에게 침투시킬 공작안을 세웠다. 연이는 그 별장에서 골동품에 대한 지식을 배웠고 그후 《골동품장사군》이 되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책상을 탕 치며 부르짖었다.

《국장동지! 국장동지는 내가 누구라는걸 알았지요? 왜 한마디 못해줍니까? 나도 당원입니다. 내무성 군관입니다. 그렇게도 못 믿는단 말입니까?... 난 연이에게, 그 처녀에게... 더러운 입으로 더는 노래하지 말라고, 조국을 더럽히지 말라고...》

국장은 아무말없이 창가에 가섰다.

그의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연이는 처음으로 공작규정을 어기고 날 찾아왔더랬소. ... 더는 못하겠다고... 유철선생

한사람에게서만은 사랑을 받고싶었다고... 협주단으로 보내달라고, 유철선생결로 보내달라고 쉼게 울더군. ... 어데 가서 마음놓고 울긴들 하겠소. 그래서 내앞에서나 실컷 울라고 내쳐두었소. 그날 오투도록 울고난 연이가 일어나서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실컷 울고싶었다고 할 때 나도 종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소. ...》

나는 내가 울고있다는걸 몰랐다.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연이동문 지금 어데 있습니까?》

《그의 공작조는 지금 적후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소. ... 유철동무, 이럴 때 연이가 평양방송으로 자기의 노래를 듣는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소. 그는 자기의 노래가 있는 이 땅으로 기어이 살아 돌아올거요.》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사흘만 기다려주십시오!》

협주단에 달려온 나는 그밤으로 배우들과 연주자들을 들볶으며 연이의 노래를 무대에 올렸다. 사흘만에 첫 공연의 막이 올랐다.

형상된 노래는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후부터는 전선에서도 후방에서도 연이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나는 매일 공연을 지휘하면서 먼곳의 연이를 향해 말하곤 했다.

《연이! 노래를 들어주오. 기어이 돌아와주오. ...》

하지만 날과 달이 흘러가도 연이에게서는 대답이 없었다.

4

전쟁의 세번째 해가 저물어가던 어느날이었다.

반탐국장이 전화로 공연초대장을 두장 보내달라고 부탁해왔다.

내가 연이가 돌아왔는가고 다우쳐물자 반탐국장은 웃었다.

《동문 나만 보면 연이, 연이... 그러다 정신이 잘못되었소, 허허. ...》

그날 저녁 공연을 앞두고 나는 실례는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자주 초대석을 내다보곤 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었어도 연이는 보이지 않았다. 팬한 기대였다. 쉽게 돌아올수 있는 길을 떠나간 연이가 아니었다. 형언할수 없는 애달픔이 차올랐다.

공연이 끝나고 요란한 박수속에 면막이 내려졌어도 나는 우두커니 지휘석에 서있었다. 무대감독이 재촉해서야 걸음을 옮기던 나는 혹시나 하고 면막을 들추고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가슴이 후두둑 뛴뛰었다. 텅 빈 객석의 한 구석에 누군가가 홀로 앉아있는것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나는 무대를 뛰어내려 달려갔다. 잠든 아이를 안은 여인이 머리를 파묻고 조용히 흐느끼고있었다.

여인은 내 발자국소리를 들은듯 급히 머리를 쳐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 그는 연이었다.

《연이!...》

나를 알아본 연이는 다시 머리를 파묻고 울음을 터쳤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받아안았다.

《보고싶었소. 용서해주오...》

《아니예요... 아니예요. 노래를... 고마워요.》

연이는 종내 격정을 참을수 없는듯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아이를 안고 그의 뒤를 따라섰다.

12월의 대동강기슭은 몹시도 추웠다.

찬바람 불어치는 강변에 나란히 앉은 우리들은 오래동안 할말을 찾지 못했다.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잠을 깬 아이가 소리쳤다.

《엄마, 오줌!...》

나는 그 아이를 안고 가서 바지를 벗겨주었다.

《출다야, 빨리 집에 가자!》

아이는 내 품을 파고들더니 인차 잠들었다.

《이 앤 누구요?》

《아들이예요...》

나는 놀랐다.

《결혼을 했소?》

연이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적후에서 돌아오지 못한 조장동지의 아들이예요. 아버지도 전사했기에 제가 찾아다 아들로 등록했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연이가 헤쳐온 그 나날들이 어떤것인가가 헤아려졌다.

나는 연이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 애의 아버지가 되고싶은데 허락해주오...》

연이는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연이의 손을 더 세게 틀어쥐고 재촉했다.

《어서 좋다고 해주오...》

그것은 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

나의 손아귀에 잡힌 연이의 손이 떨고있었다. 나의 손도 떨렸다.

연이는 나한테서 손을 빼려다가 뺨을수 없음을 느끼자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연이!...》

갑자기 연이가 나의 품에 꽉 안졌다. 그리고 더 세계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도 연이를 으스스하게 그리안았다.

이윽고 행복에 겨운 표정을 띄우고 연이가 머리를 쳐들었다.

《꿈만 같아요. 제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게 될줄은... 선생님의 곁에서 선생님과 함께 음악을 하는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나를 언제 알았기에?...》

연이는 웃었다.

《호호, 49년도 가을, 해주에 이동공연 오셨던 생각이 안 나요?》

《해주에?... 옳소. 소편대공연을 해주에서 한적이 있었소.》

《전 그때 벽성읍에서 중학교 음악교원을 했어요. 해주에 일보러 나갔다가 공연을 보고서 선생님을 만나고싶어 찾아갔었는데 선생님은 바쁘다고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호호...》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럴리 없을텐데...》

멋지게 웃고있는 나를 보며 연이는 눈을 흘겼다.

《음- 코대높은 내무성협주단 지휘자님이 촌학교 음악교원쯤 안중에 있었겠어요, 호호...》

《내 그 별칭을 단단히 해줄테니 우리 다신 헤어지지 말자구.》

그 말에 연이는 눈길을 떨구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죄스러운듯 나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전 얼마후에 또 떠나야 해요... 선생님, 전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약할수 없는 길을 떠나는 제가 팬히... 선생님의 가슴만 아프게...》

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졌다.

《하지만 제자신이 어떻게 돼서...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연이를 부여안았다.

《연이! 연이가 왜 그 길을 떠나오? 우리의 사랑이 있고 노래가 있는 이 조국이 귀중해서가 아니겠소. 난 일생토록 연이를 기다리겠소. 연이만을 사랑할테요...》

《고마와요... 고마와요... 꼭 돌아오겠어요... 선생님곁으로... 일생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바람은 우리의 옷자락이며 머리칼을 훑날리며 세 차게 불어쳤다.

이때 어둠속에서 한대의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반탐국장이 차에서 내렸다.

《젊은이들, 온밤을 새울 작정인가?

어서 가자구. 이제부터 내내 함께 있을텐데.》

얼굴을 붉히며 일어난 연이가 의아해하며 반탐국장을 바라보았다.

《그건 저?…》

반탐국장은 웃으며 연이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연이, 기뻐하랴구. 동무를 협주단 작곡가로 소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하던 공작은?》

《어쩌겠소. 힘들어도 다른 공작조가 대신해야지. 이제부터 동무 무기는 총이 아니라 오선지와 펜이야. 하하… 유철동무, 우리 연이를 행복하게 해주자구. 반대없겠지?》

《국장동지, 고맙습니다.》

반탐국장은 웃음을 띠운채 승용차에 올랐다.

《연이, 추운데 밖에 있지 말고 유철선생을 따라가랴구. 래일 아침 국에 와서 소환장을 받아가시오.》

승용차가 떠나가자 연이는 환희에 찬 얼굴로 꿈꾸듯이 나를 보더니 와락 품에 안겼다.

《선생님, 이게 사실인가요?… 꿈이 아니겠지요?》

《연이…》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선생님! 절 협주단에 데려다주시겠어요? 밤새껏 피아노를 치고싶어요.》

《그때, 어서 가자구.》

나는 한손에는 명호를 안고 다른 손에는 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연이는 걸음을 재촉하며 걸더니 어느새 거의 달음박질을 치고있었다.

이때 잠을 깬 명호가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엄마, 왜 뛰나? 폭격이나?》

순간 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동안 명호를 바라보고있던 연이는 천천히 나의 품에서 명호를 받아안더니 와락 품에 꼭 껴안았다.

《명호야, 엄마를 용서해라. 전쟁이란걸 잊고 내 꿈만 꾸었구나.…》

《연이! 그건 무슨 뜻이요?》

연이는 죄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한테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었어요. 성마저도 없이… 아이보개를…》

《연이, 그건 나도 다 알고있소. 그만하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시고… 고아의 작은 재능도 문헌세라 학교에 보내주고 음악교원으로 키워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집과 학교가 불타버릴 때 전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 조국을 지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용서하세요.》

전 생명을 버릴지언정 제가 지켜선 전호를 버릴 수 없어요. 그건 조국앞에 죄되는 일이에요.》

연이는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애원에 찬 눈앞에서 또 강인한 결심이 굳어져 있는 그 눈앞에서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그저 격동된 마음으로 뜨겁게 연이의 손만 짚 잡아주었다.

《고마와요. 고마와요.… 전쟁을 이기고 꼭 곁으로 돌아오겠어요.》

《국장동지를 설복할수 있겠소?》

《손을 들 때까지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냥 울지요 뭐. 국장아바인 내가 울면 꼼짝 못해요, 호호.…》

머칠후 연이는 밤이 깊어서 나를 찾아왔다.

남 다 자는 그밤, 텅 빈 극장무대에서 연이는 피아노를 쳤다.

희망대로 음악가가 될 자신의 미래가 펼쳐질 승리의 그날을 그려보며 오래동안 피아노를 치고 또 쳤다.

새날이 밝을무렵 연이는 아들 명호를 나에게 맡기고 적후로 떠나갔다.

정전을 며칠 앞둔 어느날 우리 협주단은 전승경축음악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온 협주단이 환희에 넘쳐 공연준비로 들끓었다.

그날 저녁무렵 반탐국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나를 찾아왔다.

《연이가 오늘 밤 돌아오오. 시간이 있으면 나하구 같이 마중나가자구.》

나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반탐국장을 껴안고 어린애처럼 돌아갔다.

해주로 가는 찌프차속에서도 나는 마냥 부풀어오르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고 웃고 떠들었다. 진중한 반탐국장도 나의 기분에 휩쓸려 이따금씩 우스개소리를 던지곤 했다.

해주에 도착한것은 깊은 밤이었다. 연이와 만나기로 되었다는 하오고개에는 한대의 무선차와 반탐 일꾼들이 먼저 와있었다.

고요한 밤의 정적속에 찌르레기소리와 어울려 먼 숲속에서 점동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어둠속에서 한개의 공작조가 나타나더니 서로 얼싸안고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그 공작조원들이 어디론가 안내되어가는것을 보면서 나는 솟구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연이도 지금 이 근방에까지 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둠속의 여기저기를 살피고 귀를 도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반탐국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더 자주 전지불로 손목시계를 보곤 하자 불안감에 가슴이 떨려나기 시작했다.

반탐국장이 무선차에 다가가 뭐라고 지시하자 무전수가 레시바를 끼고 무전기 주파수를 돌리었다.

그때 누군가가 《왔다!》하고 어둠속으로 달려갔다. 뒤따라 모두가 전지불을 확 비치며 그쪽으로 몰려갔다.

전지불속에서 두 처녀의 자태가 확 드러났다.

연이가 왔구나! 나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반탐국장이 다우쳐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연이는 어데 있소?》

나는 말뚝처럼 굳어졌다.

한 처녀가 울먹거리며 반탐국장에게 보고하는것이 보이였다.

《공작조가 철수명령을 받은 날 연이조장동지는 〈륙군정보국〉에서 공화국 여러 지역에 침투된 첩자들의 명단을 종합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귀중한 정보여서 그대로 떠나올수 없어서... 조장동지는 모험적으로 그 명단을 탈취했습니다... 적들의 추적이 인차 우리뒤에 달리자 그 문건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조장동지는 적들을 유인하여... 흑-》

처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었다. 다른 처녀가 품속에서 문건을 꺼내 반탐국장에게 넘겨주었다.

전지불을 비치고 문건을 몇장 번져보던 반탐국장은 무겁게 한숨을 폭 내쉬었다. 그리고는 두 처녀의 어깨를 량팔에 짊 끼안고 말없이 서있었다.

먼 숲에서 여전히 점동새가 울고있었다. 처량한 그 울음소리가 나에게는 피터지는 울부짖음처럼 들려왔다.

《국장동지!》

갑자기 무전수가 소리쳤다. 반탐국장이 무선차로 달려가 레시바를 빼앗아 귀에 걸었다. 그리고 따라선 사람들과 나를 보더니 음량조절기를 최대로 돌렸다.

귀익은 연이의 목소리가 들리었다.

《03번! 03번! 나는 72번! 나는 72번! 대답하라!》

《03번이다. 정황을 보고하라!》

《03번동지!... 전선을 거의 돌파하고 또 포위되었습니다... 적들은 계속 증강되고있습니다.》

《위치를 말하라. 구출조를 보내겠다.》

《필요없습니다. 전 치명상을...》

반탐국장이 벽력같이 고함을 쳤다.

《죽어선 안돼! 위치를 빨리 말하라! 위치를!...》

《03번동지! 알려주세요. 우리 새들이 도착했어요?》

《음, 왔어... 큰 금덩이를 물고...》

《그럼 됐어요. 전 웃으면서 죽을수 있어요. 03번동지, 적들이 가까이 왔어요... 유철선생님에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기어이 돌아가려고 했다고... 보고싶었다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

반탐국장이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레시바를 넘겨주었다.

내가 레시바를 넘겨받는 순간 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03번동지! 명호를 부탁드립니다! 적들이...》

나는 서둘러 부르짖었다.

《연이! 연이! 나 유철이요! 연이!...》

하지만 레시바에서는 연이의 대답인듯 요란한 폭음이 들려왔다.

전승경축음악회가 끝나고 축포가 터져올랐다.

아름다운 불꽃무리를 펼치며 편이어 터져오르는 축포성!...

저속에 연이가 마지막순간 자기 몸에 터친 그 폭음도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라.

문득 50여년전 전승의 그밤에 대동강반에서 명호에게 한줌의 흙을 쥐여주며 하던 반탐국장의 말이 떠오른다.

《부디 잊지 말아라. 이 땅의 한줌한줌의 흙에 얼마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가를...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거라.》

축포가 계속 터져오른다.

나는 아름다운 축포의 화광속에 연이의 모습을 보고있다.

그리고 행복에 겨운 무도장의 청춘들도 본다. 그들은 연이가 남긴 그 노래를 부르고있다.

나는 믿는다, 우리의 조국땅위에 그 노래가 오래도록 영원히 흐르리라고...

로병의 추억

박 태 설

고지에 노을이 불타는데

방금 세차레
적의 반공격 물리친 고지에
명령이 내렸다
배비변경

참나무 성글게 선 산중턱
꿀짜기숲속에 부대가 다 모였다
방금 전호를 내린 전사들
머리를 돌려 앞으로 뒤로
대렬을 돌려본다

아무리 세여보아도
중대는 모두 열다섯!
밤에 낮을 이어
원썬들을 쏘아눕히고 찢러눕히며
고지와 꿀짜기마다를
원썬의 주검으로 덮어놓은
영웅들 승리자들이
지금은 왜 말이 없는가

머리우를 납덩이마냥 누르며 흐르는
정숙 엄숙한 정숙이여!
오래도록 말없던 우리 부대장
입술을 깨문채
말을 떼지 못한다

하나 전사들은
그의 심장속에서 고평치는 말
다 들었나니
전우들은 죽지 않았다
승리한 고지와 더불어 영생하리니

전우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출발! 구령
산협을 흔들었다
조국을 위하여!
승리를 향하여!
높뛰는 가슴들
더 큰 싸움으로 줄달음치거니

오, 전우들이여!
우리 돌아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대들이 흘린 피 백배로 받아내어
그대들이 그리던 아름다운 꿈
이 땅위에 꽃피우기 위하여

전사들 고지를 내린다
포연결힌 산마루를 물들이며 타고르는
고요한 저녁노을 안고
또다시 승리를 마중하며

행군중의 오락회

서산마루에 떨어지는 붉은 해
불먼지 헤쳐온 행군길우에
랑랑히 울려퍼지는 행군휴식나팔소리

위장한 견인차들 산기슭에 불는데
저기서는 벌써 시작되었구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박수소리... 노래소리...

포성이 가까이 울리는
전선숲속의 오락회
또 한 병사 나온다
걸음 림림히 포차결에 다가가

머리 든 포신에 한손을 얹고
먼 하늘가를 바라보는 병사
시구절이 흐른다
기다리시라 어머니시여
승리하고 내 돌아가리라...

메밀꽃 하얀 발머리에서
원썬을 무찌르고 몸성히 돌아오라
목메여 이르시던
어머니의 당부를 안고 승리하고 돌아갈
병사의 심장의 말 가슴 흔들다

아, 또 나온다 이번엔 처녀병사!

군복짓 퍼당기고나서
머리들고 총총히 걸어나온다
조용하나 맑고도 은은한 목소리
노래가 흐른다
노을 편 하늘가에 여운남기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진가!
나서면 모두가 시인 모두가 명창
하나같이 가슴에 큰뜻 안은
이런 젊은이들 어디 가서 볼수 있으랴
이런 병사들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 있을손가!

박자 맞추어 치는 박수소리 노래소리
포성이야 울리건말건
하늘이야 병긋거리건말건
병사들의 노래소리 어둠을 가르며
드높이 울리어가라
새벽엔 고지에 가닿을 병사들
가슴은 싸움에로 줄달음치거늘
들먹이는 가슴그대로야
어떻게 잠재울수 있으랴!

아 저것 봐라 여기저기서 하나 둘
병사들 자리차고 일어선다

그러니 노래에 이어 춤판이라
곧추 든 얼굴에 눈웃음 담고
어울리며 흠어들며 빙빙 돌아간다
손뼉치고 땅을 구르고는
가슴을 펴며 하늘을 향해 웃는
저 얼굴들 보아라!

이제 아름다움과
젊음과 힘 넘치게 안은
저 가슴들 불이 되어 뿔으리라
강토를 더럽히는 원쑤를 향해
멸적의 불 섬멸의 불을

오, 아름다워라
달빛아래 춤노래 흐르는 전선의 밤
흥을 안고 불을 안고 그칠줄 모르는데
행군나팔소리 산자락을 흔든다

또다시 대오는 움직인다
포성이 우는 전방 하늘밑으로
전사들 어둠을 밝으며 나아간다
심장의 뚫는 피를 안고
전선길에 차흐르는
노래를 안고

전우들이 나를 부르네

이따금
남쪽하늘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때 있어라

싸움의 날 고지에 두고온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
지금도 살아있는것만 같아라
저기 남쪽하늘아래 어느곳
우리 싸우던 산중턱 전호가에서
기관총을 닦으며
군용밥통에 밥을 지으며...

그럴 때면
혼자 살아남은것이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앞에
자꾸만 죄스러워
잠들지 못하는 로병의 마음

그리도 꿈이 많고
열렬하고 다정하던 나의 전우들
온 마음 기울여 고향을 조국을 사랑한
이 땅의 아들딸 끝끝한 청춘들

그들 살았으면

많은 일 하였으련만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행복할 미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앞에 가슴을 내대고 간 그들

못다한 일 우리에게 맡기고
가슴에 품은 소중한 꿈도 희망도
청춘도 사랑도 소원도
그리고 누려야 할 복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긴 전우들

내 잠 이루지 못하네
그들의 몫까지 합쳐
조국위해 더 많은 땀을 바치지 못한것만 같아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조국통일의 날을 이루지 못하고
로병대우를 받으며 사는것이

전화의 날
불타는 전호가 나를 부르네
50년대에 다 쓰지 못한 총탄이
로병의 이 심장 뚫게 하네
조국수호의 심장 영원히 식지 말라고
아, 오늘도 전우들이 나를 부르네

화선의 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부른 노래—

리 명 호

반갑구나 잘있었느냐
세월은 60년 흘렀어도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옛 병사를
조국수호의 그날에 세워주는
1211고지강도속 화선의 집이어

그리웠노라
미제원썹놈들의 포격에
고지는 낮아졌어도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듯 꾸리고
전승의 날 앞당겨온 병사의 고향집이어

수류탄등잔불 밝은 강도속
수령님초상화를 높이 모신 건국실이어
멸적의 총창이 번쩍이는 무기가여
무기가의 무기와 함께 세워놓은
화선악기여 일기장이여

전우들 파스한 온기 어려있는 병실
구름노전우에 개여져있는 솜동복엔
가을철 선기를 먼저 헤아려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어려있고
벽에 걸어놓은 한줌 흙이 든 배낭은
두고온 고향인가 함께 온 고향인가

하루에도 수십차례
악착스레 달려드는 원썹들
함정굴에 처박은 그런 밤엔

포성을 짓누르며 높이 올린 화선악기소리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거니

고향집부엌인듯
강도식당엔 콩나물이 자라고
전사들을 기다려 가마에서 더운 국이
설설 끓던 강도식당

깊은 밤 습격의 길 떠나도
콩나물싸리바구니에 물 한바가지 붓고 떠났고
고지에 귀한 물도 고향집뜨락인듯
애슬포기에 주던 화선의 집

나서자라 고향집이던가
이 땅의 모든 집을 지켜
땅속에 세워진 위훈의 집
미제를 함정굴에 처박은
영웅을 키워준 집

김일성대원수님의 전승업적
만대로 길이 빛내며 솟아 빛나는 집

아, 50년대 전화의 그날 그때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조국통일 최후승리의 성전으로 부르신 명령을
받들고
벽에 걸려있는 배낭을 메고
무기가의 총을 들고 결전으로 달려갈
1211고지 화선의 집이어!

전승과 너인들

전 성 호

축포가 오른다
전승의 광장에 축포가 오른다
희생도 많았고
가슴속깊이에 새겨진
상처의 아픔은 또 어이 다 헤아리랴만
이겼구나 우리는

너인들이여 보아라

전승광장 높은 연단에 오르신
우리의 장군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을

손을 들어 축복해주신다
불멸의 위훈을 새겨
이 땅을 지켜낸
조국의 아들들—병사들과 함께

병사들의 고향—후방을 지켜낸
이 나라의 장한 딸들을

기나긴 3년 그 불타는 세월
군복입은이 모두 전선으로 떠나보낸
후방이었어도
들에선 소방울소리 울렸다
곡식이 자랐다

총잡은 병사들만이
어이 이 전쟁에 나섰다 하랴
폭격에 파헤쳐진 이랑들을 메우고
마지막밀보리파종을 끝낸채
기총탄에 피흘리며 쓰러지던 발머리가
그들이 지켜낸 고지였다

줄지어 날아드는 썩새기들
소이탄에 불타는 벼가마니를 몸으로 덮으며
식량바리를 전선으로 떠밀어보내던
가렬한 그 싸움은
죽음을 각오한 결사전이였다

평범한 날엔
어머니이고
안해이고
누이였던
이 나라의 녀인들

삶의 보금자리를 앗으려
강도무리들이 달려들기에
허리끈을 조여매고 나선 녀인들
자기의것을 지켜 병사가 되고
싸워이겨 승리자가 된
이 나라의 녀인들

조국의 장한 딸들이 있어
미제와 싸워
우리는 승리하였거니

위대한 령장의 장한 딸들
굴함없는 이 나라의 녀인들이 있어
승리의 날은 당겨진것 아니라

군관의 안해들

럼 정 실

군인사택의
꺼질줄 모르는 불빛
그 어느 집 창가에 다가가 보십시오
들려옵니다 칼도마울리는 칼장단소리
새로 나온 요리상식
한장두장 번져가는 모습

그것은 다가오는
병사들을 위한 날
그날의 푸짐한 식탁을 위해
준비하는거랍니다

이른새벽
남새밭에 물을 주는 소대장의 안해
손바닥의 굳은살을 보십시오
겨우내 진거름 나르며 흘린
그 땀방울이 모여 굳어진거랍니다

누가 달았는가구요
축산박사 그 별칭은
살찐 돼지며 토끼 오리...
한해에도 몇번 초소로 물고오는

중대장 안해에게
병사들 붙여준 애칭입니다

이제는 태어나 자란 고향보다도
남편따라 살림편 초소마을지명을
더 정답게 부르는 군관안해들
이마에 생긴 주름살들은
병사들과 함께 산 해와 달이런듯

아, 병사들 위해 군관이 있고
최고사령관이 있다고 하신
아버이장군님의 높이신 뜻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초소에 오시면 제일먼저 살피시는것이
병사들의 식탁이어서 병사들을 위함을
군관안해들의 본분으로 받아안은 녀인들

누구에게나 직무의 한계는 있어도
군관의 안해에게만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에 끝이 없듯
병사들을 위한 헌신은
군관안해들의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조선의 자리길

조인영

세상을 깨치기 시작하던 소년시절에 나는 자칭 천문학자였다. 신비롭기도 한 무한대의 우주는 나의 애어린 심혼을 송두리채 앗아갈만 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해와 달과 별들, 살별이라고 하는 혜성, 순간에 빛을 내며 허공을 질주하다가 존재를 마치고 마는 별찌, 개가 집어삼키려다가 뱉어버린다는 일식과 월식... 이 모든 우주천문학의 매력을 하나하나 깨친다는 것은 자못 흥미진진한 일이었다.

소년시절에 나는 우주천문학의 책자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다.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저서로부터 수백만광년 밖에 있다는 오리온별자리와 안드로메다별자리, 큰곰별자리와 말대가리암흑성운들, 온밤 까딱않고 총직한 파수병마냥 한자리를 지켜 서있다는 북극성, 먹칠한듯 시커먼 밤의 하늘과 해가 솟으면 감빛으로 불타다가 점차 새파랗게 물드는 아름답고 눈부신 하늘...

그 시절 많은 책자들의 접촉을 통하여 나는 막막한 우주에 널려있는 수억만의 천체들이 모두 자기의 자리길과 영역을 가지고 끊임없이 운동하고있다는 것을 깨치기 시작하였다.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한창 밝아지던 그 시절에 과학과 기술이 먼저 발전한 나라들과 타민족을 랍탈하고 침략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일떠세운 나라들이 우주에다 인공천체들을 쏘아올리면서 자기만의 자리길과 영역을 하나하나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엇비슷한, 불안하기도 한 우주에로의 첫걸음이었다.

그 시절 우리 나라는 아직 우주에 자기의 자리길을 새길수 없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락후한 경제에 미제를 괴수로 편입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승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으로 나라가 아직 허리를 펴지 못하던 때였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나의 우주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은연중에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남의 나라 인공지구위성들의 자리길을 더듬으며 남의 나라 우주천문학저서들을 읽어야 하는 일이 나의 자존심을 자극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반세기 지난뒤 시대는 달라졌다.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조국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와 국방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천만군민이 줄달음쳐온 나날 우주정복의 길에 들어설수 있는 막강한 국력과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도 반드시 우주정복의 길로 나아가야 했고

막막한 우주만리에 자기의 자리길, 자기의 영역을 새겨야만 했다. 이것은 최첨단을 돌파해나가야 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이기도 했고 주체철학의 심원한 진리로 온 세계 자주화위업을 실현해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존엄높은 위력의 과시이기도 했다. 하여 우리는 《광명성》 계열의 인공지구위성들을 우주로 날려보내어 보무당당히 주체조선의 자리길을 우주에 새기기 시작하였다.

조국이 우주정복의 패승의 역사를 새기고있는 시대에 작가생활을 하고있는 나는 소년시절에 인생의 자리길을 우주탐구의 길에 이어놓아 우주정복자가 되었던라면 지금쯤 앞가슴에 금별이 빛날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희떠운 공상도 해본다. 또 한편으로는 어린시절의 우주와의 실낱같은 인연으로 하여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남다른 관심과 호기심을 지니고 잠시나마 이러한 공상에 잠길수 있다는 자그마한 긍지도 더불어 떠오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가장 까다롭고 효과적인 극궤도에 진입하자 와들 놀라서 발버둥치는 적대세력들이 등장했다. 늘 그러했듯이 미제가 그 앞장에 섰다.

오늘 우주에는 남의 땅을 정탐하고 남의 전파를 교란하며 우주를 군사화하기 위하여 떠올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위성이 수없이 떠돌고있으며 폐기된 그것들의 우주오물로 우주공간의 자리길은 점점 좁아져 우주통행은 심히 교란되어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지난 세기 40년대에 이미 핵무기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썩운 미제, 오늘도 여전히 미싸일과 무인비행기로 약소국가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주고있는 미제가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시비하면서 강권과 전횡으로 유엔 《제재결의》까지 날조해낸것은 어느 나라나 차별없이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리용할데 대한 국제법적권리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우주는 절대로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난 세기 중엽부터 발전된 나라들이 제나름의 목적으로 제나름의 자리길을 우주에 새겨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인류공동의 성과로 환영하였으며 단 한번도 시비한적이 없다.

그 어느 나라든 우주공간을 나라의 번영과 이 행성의 복리를 위하여 무제한하게 리용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우주에 력력히 새겨지는 조선의 존엄있는 자리길

을 지워보려고 발악하는 날강도 미제의 논리아말로 삼척동자에게도 통할수 없는것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온 나라가 경축의 분위기로 들끓던 나날이었다.

취재길에서 나는 우연히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주과학자를 만난적이 있었다.

오랜 나날 잠자던 우주천문학에 대한 나의 열망은 드디어 잠을 깬듯싶었다.

나는 그에게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제작과 발사 전과정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들었다.

우주정복자들은 긴장한 연구제작전투를 진행하였다.

남의 나라 재질이나 재료, 남의 기술이나 프로그램 등 우주로켓발사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참작하거나 모방하는것을 주체조선의 과학자된 랑심들이 허락치 않았다.

로켓자리길연구사들과 인공지구위성궤도연구사들은 수십일에 걸치는 고심어린 분투속에서 드디어 이웃나라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나라 위성 자리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우리 식의 완벽한 자리길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 없고 감히 뒤흔들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완전무결한 로켓자리길이었으며 《광명성

-3》호 2호기의 궤도프로그램이었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100프로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조선의 존엄있는 자리길인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일찌기 우주공간을 과학활동에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는 국제법적권리를 행사하여 우주에 조선의 자리길을 개척해주셨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에 반드시 실용위성을 발사할데 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또다시 우주에 조선의 자리길, 조선의 령역을 개척해주신것이다.

우리의 화제는 종횡무진으로 공간을 날았다.

더불어 난도높게 궤도를 룬무하는 《광명성-3》호 2호기의 자리길이 행성의 위도와 경도를 바둑판처럼 한눈에 누비며 뚜렷이 안겨온다.

적대세력의 그 어떤 기술로써도 요격할수 없고 가로막을수 없는 우리 위성의 자리길은 당당한 선군조선의 령역이며 우리의 우주인것이다.

우주과학자와 함께 나는 생각하였다.

이 조선의 자리길, 그것은 우주에 무한대하게 이어질것이며 영원불멸할것이다라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주에 가로세로 새겨지는 우리 위성들의 무제한한 자리길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억제력이 있는 한 적들은 그 어떤 수단으로써도 주체조선의 자리길을 결코 지워버리지 못할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창작된 소설문학에서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한 형상 창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소설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있습니다.》

인민군전사들이 지닌 대중적영웅주의는 숭고한 애국심과 영웅성, 완강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인민군전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1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고 반공격에로 넘어가 진격함으로써 전쟁사상 일찌기 찾아볼수 없었던 기적을 창조하는 위훈을 세웠다.

이 시기 우리의 작가들은 충격적인 체합과 진지한 탐구속에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형식인 단편소설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대표적작품으로서는 유항림의 단편소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를 들수 있다.

단편소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는 남진의 길에서 두 전사가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휘한 숭고한 투쟁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한 인민군전사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치는 거기에 전사의 참된 행복과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의 병사로, 계급의 전위로 성장하는 모습을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초인간적인 기적을 발휘하는 이야기, 전우들과의 뜨거운 교감, 적포로병의 비굴한 모습과의 대조, 동생에게 보낸 편지 등 감동적인 세부들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소설문학은 전쟁 제2계단과 3계단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영웅들의 개성적인 성격적특징을 다양한 시점에서 형상한 성과작들로서는 단편소설 《사냥군》(김만

선), 《벼랑에서》(박태민), 《분대장》(윤세중), 《고향의 아들》(천세봉), 《화식병》(김영석) 등이다.

단편소설 《사냥군》은 농민출신의 평범한 전사의 영웅적모습을 통하여 인민군전사들이 지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과 자기 임무에 대한 성실성, 완강성, 락천적인 전투적기백을 실감있게 보여주어 비행기사냥군 조활동의 정당성을 생활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단편소설 《분대장》은 주인공 분대장 김덕성과 그의 대원들이 언제나 어려운 전투임무를 맡아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한 계급적자각과 영웅주의를 일반화하였다.

단편소설 《화식병》은 전투원들의 식사를 보장하는 자신의 전투임무에 대한 옳은 자각과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서 전사의 보람과 영예를 찾을줄 아는 인민군전사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자기희생정신을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준 성과작이다.

단편소설 《벼랑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불의에 적과 맞다든 수송대운전사 원주의 숭고한 희생성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와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의의있는 해답을 주고있다. 작품은 원쑤앞에 비굴하게 사는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한 원주의 비장한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는 오래 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비록 짧게 살아도 보람있게 사는데 있다는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숭고한 애국심과 영웅적위훈의 창조자의 형상은 단편소설 《고향의 아들》에서 특색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조국해방전쟁 제3제단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재진격의 길에서 고향을 해방하는 습격전투에 참가하여 미제원쑤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김으로써 고향의 아들된 영예를 떨친 인민군전사의 영웅적위훈을 형상하였다.

소설은 극적정황속에서 사랑과 증오의 극한점에 선 영웅적성격을 창조하면서 주인공이 발휘하는 불굴의 투지와 원쑤에 대한 비타협성이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영웅주의와 숭고한 희생성의 사상정신적기초를 해명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한 소설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4제단의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시기에 더욱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우수한 작품들로서는 《구대원과 신대원》(1952, 윤세중), 《분대장과 신입대원》(1952, 윤세중), 《불타는 섬》(1952, 황건), 《나팔수의 공훈》(1952, 윤시철) 등의 단편소설들과 황건의 중편소설 《행복》(1952)을 들수 있다.

단편소설 《구대원과 신대원》은 이 시기 창작된 작품들중에서 이채를 띠는 성과작의 하나이다.

작품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인민군용사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통하여 굵

임없이 강화되는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과 대중적영웅주의의 생활적기초를 해명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혁명전사의 대오가 대를 이어 곳곳이 자라나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인민이 필승불패한다는 사상을 심오히 일반화하였다. 그리고 구성조직의 간결성과 감정조직의 치밀성, 사실주의 적전형화에서 극적예리화수법의 효과적리용, 세부의 표현적효과와 개성화의 솜씨로 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효과성을 보장하였다.

중편소설 《행복》은 운명의 판가리에 나선 인간들속에서 제기된 인생관문제, 애정륜리에 관한 문제를 비교적 폭넓고 진지한 생활화폭속에서 특색있게 해명한 작품으로서 이 시기 소설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발전하여 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성격적책으로 한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성격을 형상한 소설문학은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내다보게 된 주체 42(1953)년에 이르러 더욱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작품들로서는 작가 엄홍섭의 단편소설 《다시 넘은 고개》(1953)를 들수 있다.

작품은 전선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우고 표창휴가로 고향에 다녀가는 모범전투원 윤수의 시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의 불패의 힘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으며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사상을 감명깊게 일반화하였다.

단편소설 《소년통신원》(1953, 유항림), 《고지의 영웅들》(1953, 리충진)과 같은 작품들에서도 승리의 래일을 확고히 내다보며 기세충천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전선영웅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과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이 한전호숙에서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면서 맺어진 뜨거운 우정관계를 형상적으로 구현한 소설작품들도 창작되었다.

이러한 작품들로서는 단편소설 《나의 옛 전우》(1951, 윤시철), 《전우》(1953, 리윤영), 《돌아온 전우》(1953, 박태민) 등을 들수 있다.

이 소설작품들에서는 인민군전사들과 중국인민지원군전사들사이에 맺어진 우정이 결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비로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이미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던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맺어진것으로서 그것은 오늘 피어린 전쟁행정에서 더욱 깊이 있고 열렬한 혈연적우정으로 공고발전되고있다는 사상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위훈과 불멸의 공적을 재현한 소설작품들은 그가 거두고있는 높은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이 시기 전선용사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이후 시기 전쟁주체소설문학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과 토대를 축적하였다.

리 순 철



어머니의 품속에서

석 남 진

1

엄정화는 조용한 실험실에서 새로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실험에 여념이 없었다. 팽팽한 긴장속에서 측정계기를 보는 그의 눈은 예지롭게 빛나고 내쉬는 숨소리는 가느다랗게 울리었다.

제품의 기술적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의설계를 하고 실험하는 과정은 며칠째 계속되고있었지만 지금처럼 그의 정신이 고도로 양양되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렇게 몇시간이 흘러가고 몇날밤을 지새워도 힘들지 않을것만 같았다. 그것은 그가 이날 오전에 많은 동지들과 함께 참으로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기때문이었다.

갑자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문가를 바라보는데 밖에서 《연구사선생,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하는 말소리가 울리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는 급히 실험실을 나서 전화기가 있는 앞방으로 달려들어갔다. 책상위에 내려놓은 송수화기를 들고 말하였다.

《현주냐?》

《어머닌 뭐예요?》

딸 현주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목새기기 힘든 듯 첫마디부터 항변조였다. 《어머닌 날 무슨 꼴로 만들어놓았나 말이에요?》

그 순간 엄정화는 딸과의 중요한 약속을 잊고있음을 깨달았다. 심한 자책감이 머리를 세차게 들

이쳐 미쳐 대꾸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망실했는지 알아요. 어머닌 나와 철석같이 약속을 하구선...》 딸은 울먹거리고 있었다.

딸은 달포전에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성악학부에 입학하였다. 학급동무들중의 한명이 대학에서 새로 창조하는 가곡의 단역으로 뽑혔다고 한다. 대학기숙사생활을 하는 녀동무여서 딸은 그를 집에 초청하여 축하해주고싶다고 하였다. 엄정화는 딸의 생각이 기특하여 패히 칭을 받아들이었다.

《네 생각대로 하자꾸나. 그까짓거 어려울게 없다.》

《아이, 좋아라. 그럼 나 친한 동무 몇명을 데려오겠어요.》

《그렇게 하려무나. 네가 대학에 입학해서 첼하는 부탁인데 다 들어주어야지.》

《어머니, 잘 준비해야 해요. 부끄럽지 않게...》

정화는 약속의 표시로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자고 하는 딸의 청도 받아들이었다. 딸의 동무들을 청하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정화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찌감치 퇴근하여 상을 잘 차려놓으리라고 속다짐했었다.

그런데 어느새 가맏게 잊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하기야 오늘 오전에 것처럼 큰 경사가 들이닥치리라고야 어찌 상상이나 했으랴. 그것은 말그대로 엄정화의 정신을 뒤흔들어놓았다. 온몸을 휘감는

감격과 흥분에 포로된 그는 모든것을 잊고 오직 보답의 일념에만 몰두있었던것이였다.

《내가 그만 그걸 잊었었구나. 하지만 현주야, 오늘 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듣고싶지도 않아요. 정말 어머니 너무해요.》

딸은 어찌나 서러운지 흑 흑느낌소리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화는 마음이 아릿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로서 딸에게 뜨겁게 정을 주지 못한것만 같은 자각지심에 자주 잠기는 정화였다. 눈귀에 실주름이 가고 얼굴피부의 탄력이 스러지기 시작했으나 더욱더 풍부해지는 리지와 지성의 빛이 단정한 이목구비에 여러 세련된 중년의 아름다움을 이룬듯싶은 그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서둘러 퇴근준비를 하는 정화의 머리속에는 지난날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현주는 어머니의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암죽을 먹으면서 커야 했다. 탁아소에 젖먹이러 오던 다른 어머니들이 때없이 현주에게 자기들의 젖을 물려주곤 하였다.

다른 어머니들에게는 자기 아이를 안고보내는 시간이 푹푹했지만 늘쌍 시간이 바쁜 엄정화는 탁아소에서 제때에 애를 찾아오지도 못하여 현주는 뒤늦게 달음박질쳐오는 어머니를 울면서 맞기가 일쑤였다.

아침일찍 출근하는 날이면 남편이 애를 안고 탁아소로 갔다. 남편은 인민군대 초기복무사관이었는데 장난기가 발동되면 가끔 회초리 하나를 꺾어 들고 애를 물고가기도 했다.

《자, 곧바로 가야지. 잘한다.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돼요. 옳지, 그렇게 가야지.》

애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되뜯되뜯 잘도 반달음을 놓았다.

그런 모양을 본 정화가 성이 나서 핀잔을 주면 남편은 꺹꺹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연구사선생, 애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립성을 키워줘야 하는거요.》

《그래도 그제 뭐예요. 돼지몰이하듯...》

《뭐라고. 애만 잘 크면 그만이지.》

남편은 한팔에 애를 안아들고 다른 팔로는 정화의 어깨를 다정히 그러안았다.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다정한 부부였다. 인민군대 초기복무사관과 처녀연구사가 알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연구사업때문에 먼길을 걷던 처녀시절, 엄정화는 갑자기 배가 아파 길가에 주저앉게 되었다. 날이 어둑해지는데 도움을 청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비쳐진 차전조등빛, 그것은 구원의 빛이었다. 그의 옆에 《갱생》승용차가 멎어섰다. 급히 뛰어내린 인민군대운전사가 그를 부축하였다. 《갱생》은 달리던 방향을 바꾸어 병원으로 달리었다.

엄정화는 병원에 입원하여 맹장수술을 받았다. 레의 그 인민군대운전사는 면회까지 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그췌한 미남자총각이었다.

(너무 잘생겼는데... 눈을 보니 톡톡치 않겠어.) 하고 엄정화는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미남자총각은 벌써 처녀연구사에게 반해서 어쩔줄 몰라하고있었다. 그는 자꾸 엄정화를 찾아왔다.

한번은 밤늦게 퇴근하는데 그가 모는 《갱생》이 길가에 세워져있었다.

어째서 여기 서있는가고 물으니 차가 고장났는데 방금전에 수리를 끝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합숙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다. 합숙이 멀지 않은데 걸어가겠다고 하니 그래도 태워주고싶다고 하기에 올라탔다. 차는 질풍같이 달렸다. 합숙을 지나쳐 계속 달렸다. 더럭 겁이 나서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무슨 모진 마음을 먹었는지 그냥 차를 고속으로 몰았다. 하여 어느 집엔가 들이닥쳤는데 집안에 들어가보니 음식상을 잘 차려놓고 집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주인은 운전사청년이 복무하는 인민군대병원 정치부장이었다.

《정치부장동지, 명령대로 데려왔습니다.》하고 총각은 이마의 땀을 씻으면서 말하였다.

처녀의 집도, 총각의 집도 다 지방에 있었다. 총각이 복무하는 군대병원 정치부장은 스스로 그들의 부모노릇을 하려고 밤늦게까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린것이였다.

그날 밤 정치부장은 엄정화에게 국방과학연구사를 사랑하는 총각의 심정을 대변하여 많은 말을 해주었다. 정치부장이 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엄정화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마음은 정열적인 총각에게 끌리우고있었다.

연구소의 실장아바이가 자기의 조카를 선보이려고 하였을 때 엄정화는 자기가 더는 다른 총각을 보고싶은 생각이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정화는 남들이 보란듯이 행복한 웃음을 머금고 인민군

대 초기복무운전사청년과 결혼식을 하였다.

남편 신용진은 결혼하면서 안해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생활과정에 안해에게 불만을 품고 당장 연구사를 그만두라고 소리치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그들의 외딸인 현주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다. 현주는 젖을 적게 먹고 자란 애치고는 다른 애들보다 컸는데 처녀애로서는 보기 드물게 벌찬 애로 자랐다. 거기에 제 아버지가 딸이라도 세차게 키워 씩씩한 인민군대 녀병사로 준비시켜야 한다면서 권투 훈련까지 시켰다. 방벽에 해면을 붙이고 그우에 가죽을 씌워놓아 주먹단련판을 만들어주고는 딸애가 하루에 주먹으로 백번을 치도록 했다. 딸애는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주먹질을 하다가 맥을 다 뺏고 할딱거리곤 했다.

그 애는 말그대로 사내번지개였다. 엄정화의 가정이 첫살림을 폈던 단층집은 나지막한 산언덕에 있었는데 겨울이면 애들이 썰매를 타기 좋게 얼음판을 만들곤 하였다. 스키장처럼 급한 경사가 진 얼음판에서 썰매에 배를 대고 엎드려 소리치면서 지쳐내리는 애가 현주였다. 어떤 날엔 동무네 집에 갔다가 그 애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창문을 두드린다는게 그만 깨버리고말았다. 딸애가 깨뜨린 창문을 변상하느라 정화는 유리를 구해서 목수에게 잘라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딸애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연구소의 사람들은 누구나 웃어대면서 말하였다, 대단한 녀장부라고. ...

그런 애가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제 눈을 마구 비비는 바람에 왼쪽눈을 심하게 앓게 되었다. 남편이 출장을 가있고 정화는 일에 몰리다보니 언제 애에게 관심을 돌릴새가 없었다.

어느날 밤 출장길에서 돌아온 신용진은 탄불이 죽은 싸늘한 방에서 어린 딸이 밥도 먹지 못하고 지쳐 잠든것을 보게 되었다. 그 애를 안아일으키니 애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면서 애처롭게 울었다.

《아버지, 나 눈 아파.》

그제야 애의 왼쪽눈에 심한 병조가 생긴것을 발견한 신용진의 가슴속에서 격랑이 일어번졌다. 그는 잠시후에 집에 들어온 정화에게 큰소리를 쳤다.

《당신이 이 애 어머니가 맞긴 맞소?》

정화는 흐느껴 울었다. 모진 자책으로 울었고 어머니의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는듯 한 남편의 말이 서러워 울었다.

그러나 정화는 결코 자기의 연구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후 현주는 앓던 왼쪽눈의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로 하여 어떤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고개를 가웃하고 오른쪽눈으로 건주어보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날 애가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정화는 가슴이 덜컥했다. 애의 버릇이 점점 굳어져버리면 큰일이였다. 어떻게 하면 고쳐줄수 있을가 하고 궁리해보니 바이올린을 타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머리를 여차피 왼쪽으로 기울여야 할것이니 자연히 나쁜 버릇을 고쳐줄수 있을것만 같았다.

정화는 남편이 구해온 아동용바이올린을 딸애에게 메워 유치원에 보냈다.

어느날 유치원을 찾아가니 유치원음악선생이 속이 상한다면서 딸애의 바이올린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바이올린의 공명통에는 모래가 잔뜩 채워져있었다. 처녀교양원은 애가 바이올린 연습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장난질만 한다고 했다.

《난 애에게 음악을 시키자는게 아니라 그저 머리를 가웃하는 버릇을 떼주자는거예요. 그러니 좀 배워주세요.》하고 정화는 사정했다.

《해보겠어요.》 몸매 자그마한 처녀교양원은 주근깨가 다문다문한 귀여운 얼굴에 딱한 표정을 짓고서도 애써 웃어보이였다.

그때 현주는 마당에서 애들과 뛰어놀고있었다. 딸애에게 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입혀 유치원에 보냈었는데 지금 그 애는 더워서인지 웃저고리를 벗어 들었다. 빨간색치마를 어깨에 걸치고 발깃하고 포동포동한 어깨를 드러낸채 웃저고리를 마구 휘둘러대는 애의 모양은 우습기 짝이 없었다.

(저렇게도 세차다구야.)

정화는 혀를 차며 웃었다.

그런데 애가 점차 음악에 취미를 가지게 되자 옆에서 남자애들이 치근거려도 웅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애들을 발로 차밀면서 열성적으로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것이였다. 현주는 천성적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었던것이다.

유치원음악선생은 진정을 다 바쳐 애를 키워주었다. 엄정화는 딸이 그렇게 음악의 세계에 심취될줄은 미처 몰랐었다.

1998년에 엄정화는 연구사업으로 분망하게 뛰던 중 심하게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아픔속에 정신적으로도 지쳐 우울한 상념속에 잠겨있을 때 입원실문이 빠르게 열리더니 몸매 자그마하고 얼굴이 귀여운 유치원교양원이 들어왔다.

《현주 어머니, 어떡세요?》

정화는 유치원교양원이 찾아온것이 놀라와서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어떻게?...》

《애들이 면회를 왔어요.》

정말 곱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은 유치원애들이 입원실로 들어왔다. 먼저 들어온 현주가 다가와서 정화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린 엄마를 위해 공연하러 왔어.》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너희들이?...》 정화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이윽고 병원의 정원에서 선생의 지휘에 따라 애들이 줄지어섰다. 한 애가 나서서 말하였다.

《신현주동무의 어머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과학탐구의 초소에 서기를 바라서 우리들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마예술단의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기악중주를 하였다.

산보를 나왔던 환자들이 누구나 감탄을 하면서 애들을 칭찬하였다. 정화는 불쑥 눈물이 나왔다.

아, 세상은 얼마나 좋은가. 난 우리 현주에게 젖도 변변히 먹이지 못했고 그 애를 키우는데 품 한자루 들인것이 없다. 그 애에게 많은 얘기어머니들이 젖을 먹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애를 키우는데 정을 기울였다. 이 유치원선생은 장난이 너무 세차 사람들을 놀래우던 딸애에게서 음악적재능을 찾아내고 키워주었으며 오늘은 앓는 나를 위해 애들과 같이 예술소품을 준비하여가지고 왔다.

(정말 고맙구나.)

무엇인지는 딱히 모르겠으나 이 세상의 모든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정화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두달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엄정화는 위성제작에 기여한것으로 하여 그렇게도 바라마지않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뜻깊은 당원증을 수여받으면서 자신을 믿어주고 모든 생활을 굶어보며 보살펴주는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정화는 눈굽을 적시었다.

입원실을 찾아와서 공연하던 유치원선생과 애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고마움도 훌륭한 제도를 마련해준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로 이어졌음을 새삼스럽게 깨닫는것만 같았다.

연구소에서는 그가 앓는 몸으로 산언덕의 단층집에 오르내리기 힘들겠다고 구역소제지에 있는 보다 생활조건이 유리한 아파트의 집과 바꾸어주었

다. 당원증을 품고 그 집으로 들어가니 이웃들과 동지들이 그를 축하해주겠다고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어린 현주만은 어머니가 어떤 영광을 받아안았는지도 모르고 단잠에 들어있었다. 숨을 쉰거리며 자고있는 그 모양이 귀여워 한참 내려다보다가 담쑥 안아드니 애는 자기를 깨운다면서 투정질이었다. 정화는 웃으면서 애를 다시 눕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 어엿한 대학생이 된 딸애가 새로 사귀는 동무들앞에서 얼굴을 들수 없게 했음을 자책하면서 퇴근준비를 하는 엄정화에게 있어서 지난날의 추억은 보람차고 즐거운것이면서도 사랑하는 딸애에게는 미안스러운 일들로 차있는듯싶었다.

그는 지금껏 딸애를 위해 이렇다하게 공력을 들이지 못한데 대해 자신이 몸을 잠근 연구사업이나 거기서 이룩한 성과를 가지고 변명하려들지 않았다. 하여 송수화기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해보던 딸애의 목소리는 그 애가 어린시절 눈병을 앓을 때 자기를 꾸짖던 남편의 그 목소리와 엇바뀌면서 그 낯 귀전을 울리었다.

2

엄정화는 조급한 심정으로 자기 집이 있는 아빠트현판에 당도하였다.

한아빠트의 녀인이 웬일인지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정화에게 말하였다.

《그 집 딸애가 제 동무들과 함께 나가더구만. 현대 현주는 무엇때문인지 운것 같아.》

《그래요?》

가슴은 더욱더 쓰러졌다.

집안에 들어가서 구력에 사들고온 식료품들을 맥없이 꺼내놓았다.

(이 애들이 어디 갔을가?)

엄정화는 딸의 책상우에서 전화번호를 적은 수첩을 찾아들고 딸 동무들의 집들에 전화를 걸었다. 하여 자기 집에 왔던 딸의 동무들이 어느 한 집에 몰려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딸은 그 집에 갔다가 인차 돌아갔다고 한다.

(애가 펴 기분이 상한 모양이지. 이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을가?)

정화는 부엌에서 저녁식사를 짓기 시작했다.

밥을 하느라니 다시금 추억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현주는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고 아버지는 먼거리

수송길에 올라 자주 집을 떠나 살다보니 혼자서 집을 지키는 때가 많았다. 그 애는 동무들의 집에 가 놀다가 밤늦게 어머니가 찾아와서야 따라나서는 때가 드문했고 동무들을 집에 데려다가 밥을 해먹는 다거나 소꿉놀이를 한다거나 하면서 집을 란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현주는 소학교시절 방학이 되자 자기가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병원정치부장의 집에 가서 며칠간이고 살았으며 또 자기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다.

그 삼촌들중에 현주 아버지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현주를 갓 낳았던 때 신용진은 먼거리은행길에서 그 사람을 사귀었다. 그도 운전사였는데 길가에서 차가 고장나서 애를 먹고있었다. 신용진이 그를 도와 차가 움직일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들은 자기들이 전연에 위치한 어느 한 인민군사단에서 함께 복무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신용진은 전연사단에서 복무하다가 평양지구의 군대병원 운전사로 대령조동되었고 그 사람은 그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제대된것이였다. 한사단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그렇게 가깝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이 엄정화의 집에 놀러 왔는데 적지 않은 기저귀감과 띠개를 가지고옴으로써 엄정화를 크게 감동시키었다.

《나야 뭐 압니까, 우리 처가 준비해주더군요.》

알고보니 그의 안해 한선희는 갓 결혼하여 아직 자기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녀인이였는데 한 가정의 주부가 국방과학연구소이면 얼마나 수고 많겠는가고 하면서 각별히 마음쓰더라고 했다.

한선희의 남편은 신용진보다 나이가 몇살 아래였기때문에 현주의 삼촌이 되겠노라고 했다. 하여 선희는 자연히 현주의 삼촌어머니가 되었다.

어느해 설날에 엄정화의 집에 놀러 왔던 한선희의 부부가 겨울방학을 보내는 현주를 자기 집에 데려갔다. 현주는 방학기간을 그 집에서 보냈다.

방학이 끝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주는 이전과는 다른 애로 변해있었다.

애는 제 손으로 밥도 하고 찜계도 만들었으며 란볼도 알아주는것이였다.

《제 손으로 일을 할줄 알아야 한단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늘 바쁜 사람들이니 어쩌겠니. 네가 집살림을 해야지.》 하고 말하면서 한선희가 그 모

든것을 현주에게 배워주었다고 했다.

신용진은 현주의 작은 손이 만들어낸 밥과 찜계를 먹어보면서 깜짝 놀라는 시늉을 했다.

《아니, 이거 우리 현주가 제 어머니보다 더 밥을 맛있게 하는구만.》

엄정화는 딸애를 대견한 눈길로 보다가 등을 두드려주었다.

《네가 용쿠나.》

그리고 슬그머니 눈굽을 훔치면서 중얼거렸다.

《이 엄마가 벌써 네가 해주는 밥을 다 먹다니...》

《일없어요. 엄마, 밥을 하는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현주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를 도와줄수 있는것이 기꺼운듯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자랑스러운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부터 현주는 어머니가 늦게 오면 혼자서 밥도 짓고 탄볼도 보고 방안도 거들줄 알았다.

이렇게 현주는 일찍부터 자립성을 키웠지만 배고픈 아이가 밥을 찾듯 늘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다. 엄정화가 어쩌다 휴가를 받고 집에 있는 때이면 현주는 더없이 행복감을 느끼곤 하였다. 정화는 연구사업에 분투하느라 딸을 돌봐주지 못한 봉창을 하고싶어 딸을 옆에 끼고 함께 숙제문제도 풀어주고 맛있는것도 해주었으며 바이올린 타는것도 즐겁게 들어주었다. 정화가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는 날이면 딸애는 시무룩해졌다.

한번은 딸애가 정화에게 연구사를 그만두고 자기네 학교 물리교원이나 수학교원으로 오라고 졸라댄적이 있었다.

《난 늘 엄마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학교 선생을 하면 함께 학교에 가고 공부가 끝나면 함께 집으로 오고 얼마나 좋을가. 어머니, 교원을 할수 있지요?》

딸애의 천진스런 말을 듣는 정화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리었다.

《엄마도 늘 너와 함께 있고싶구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게 나라를 강하게 하는거란다. 그래서 어머니 국방과학을 연구하고있단다. 네가 이제 크면 이 어머니의 심정을 알게 될게다.》

딸애는 어머니가 중요한 연구사업을 한다는걸 짐작할테지만 아직 미숙한 리성으로는 치미는 욕망을 눌러버릴수가 없었던것이였다....

엄정화가 부엌에서 볶아치는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먼거리수송길을 달리는 남편은 오늘 밤 집에 들

어오지 못한다. 딸이 오면 함께 식사를 하겠는데 딸애는 오지 않는다.

(현주야, 지금 어디 가있니? 이젠 돌아오렴. 내 너한테 할 얘기가 많단다.)

딸이 어디에 갔겠는가 생각해보니 대뜸 한선희가 짊여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선희의 딸 미홍이가 받았다. 선희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딸딸 미홍은 현주보다 두살아래였다.

《큰어머니, 언니가 여기 와있어요.》 하고 미홍이가 말하였다.

《현주가 지금 뭘하고있니?》

《지금 잠들었어요. 깨울가요?》

《그래라.》 정화는 인차 도리머리를 하며 다시 말했다. 《아니, 깨우지 말아.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런데… 네 엄만 아직 퇴근 안했니?》

《예, 이제 곧 온다고 전화왔었어요.》

정화는 서둘러 집을 나서 걸음을 다그쳤다. 자기가 직접 선희의 집에 가서 딸애를 깨워 함께 집으로 오면 한결 마음이 개운해질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도 선희에게 오늘 있는 감격과 기쁨에 대해 터놓고싶은 심정도 강하였다.

한선희의 집은 한 30분가량 걸어가면 가닿을수 있었다.

문득 어느 명절날 온 가족이 함께 한선희의 집에 놀러 갔던 일이 떠올랐다.

한선희의 남편이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한 일꾼이 되고 정화의 남편은 군복을 벗고 어느 한 기업소에서 계속 운전사로 일하는 속에서도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이 두터워졌다. 하여 그들의 가족도 자연 혈육처럼 가까와져서 서로 찾아가고 찾아오곤 하는것이였다.

《우리 현주가 노래를 잘한다고 했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원체 술을 마실줄 모르는 선희의 남편은 한잔의 술에 거나해져서 현주에게 청하였다. 현주는 묻는듯한 눈길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내었다. 신용진이 기분이 좋아 환히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해봐라, 해봐.》

현주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현주가 성악을 배운다는 소릴 들었는데 저렇게 잘하는줄은 몰랐군요.》 하고 한선희가 감탄했다.

당시 정화네 집은 평양시 교외에 있었는데 현주가 다니던 중학교(당시)가 가까이에 학생소년회관이 있었다. 현주는 이 학생소년회관 소조에 다니였다. 음악대학을 졸업한 소조선생이 현주에게 노래를 시켜보고는 현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보다는 성악

으로 발전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성악을 배워주었던것이다.

《현주가 이러다 예술계로 진출하는게 아니에요?》

선희의 말에 신용진이 머리를 흔들었다.

《무슨 소릴… 예술할 사람이야 따로 있는거지. 우리 현주는 인민군대에 나갈거요.》

정화도 자기 딸이 음악에 대한 천성적인 소질을 지녔다고 해도 그 부문 학교나 대학에 간다는것은 꿈같은 일로 여기고있었다. 그는 현주가 기술부문 대학에 갈것을 바라고있었다.

《현주 아버지말이 맞아요. 예술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지요.》 하고 정화는 말하였다.

하여 현주의 전망을 놓고 좌중에서 진행된 론의는 그런 식으로 끝나고말았다.

그런데 현주가 중학교 4학년생이 되었을 때 소조녀선생이 집에 찾아왔다. 체통이 크고 굵실굵실한 머리칼을 어깨우에 드리운 녀선생은 두살잡이아들을 키우고있었는데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별스레 아이들을 고와한다고 하였다.

그 소조선생이 현주를 평양동안중학교(당시) 조기성악반에 보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엄정화부부에게 제기하였다. 현주가 더 수준이 높은 선생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것이였다.

《글쎄 그렇게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게 가능할가요?》

정화는 이런 말밖에 더 할수가 없었다.

조기성악반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급을 구성하여 성악을 배워준다는데 현주는 중학교 4학년생이 아닌가. 너무 늦었다.

《선생님의 심정은 고맙게 받아들이니다만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지요.》 하고 남편도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왜 벌써부터 항복선언을 하는가요. 우리 현주를 위해 뛰어봐야지요.》 소조선생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소조선생은 팔을 부르짖고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평양동안중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 교원들을 설복하고 호소했는지 정화는 다는 알지 못한다. 어쨌든 소조선생은 끝내 현주를 데리고 그 학교에 가서 조기성악반 분과장선생을 비롯한 여러 교원들앞에 내세워 재능을 보여주게 했고 현주가 편입시험을 칠수 있게 했던것이다.

현주는 편입시험에서 통과되어 조기성악반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정화는 입학통지서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꿈같은 일로, 그림의 떡같은 일로 여겼던 것이 현실로 된것이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사심없이 뛰어다닌 소조선생이 고마웠고 현주를 받아준 평양동안중학교 교원들이 고마웠다.

어떻게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단 말인가. 특히나 소조선생에게 크게 절을 하고싶었다. 온 가족이 소조선생의 집에 찾아가서 무엇인가 성의를 표시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입학통지서를 받은 그날 현주는 저녁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동무들과 노는가부다고 여겼는데 밤에 새 학습장이며 필기도구와 함께 새로 나온 노래집까지 들고 한껏 기분이 들떠서 들어왔다.

《어머니, 내가 어데 갔됐는지 알겠어요? 어디 맞춰보라요.》

알고보니 학생소년회관 소조선생이 현주가 조기 성악반입학통지서를 받았다는것을 알고 더없이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것이였다. 그 선생이 현주를 집에 데려가니 시집식구들이 귀한 며느리의 어린 손님이 왔다면서 환대해주더라고 했다. 소조선생은 제 손으로 현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조기성악반에 가서 공부 잘하라고 하면서 학습장과 원주필, 새로 나온 노래집까지 안겨주었던것이다.

《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정화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 선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겠는데…》

《선생님은 내가 조기성악반에 가게 된것이 정말 기쁘대요. 선생님은 앞으로 내가 음악대학에도 갈수 있다는거예요.》

엄정화는 감동으로 눈곱이 찌릿이 젖어들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아름다울수가 있단 말인가.

현주에게 바이올린을 배워준 유치원선생도 현주에게서 바란건 발랄하게 자라며 재능을 키우는것이였고 내게서 바란건 연구사업에서의 성과였지. 정말 그외에 바란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 학생소년회관의 소조선생은… 이거야말로 바치는것이 그대로 기쁘이고 보람이라느 어느 서정시의 구절그대로가 아닌가.

엄정화는 딸애가 들고온 학습장들과 노래집을 뒤적거리면서 슬며시 젖어든 눈곱을 닦아냈다. …

엄정화는 딸이 가있는 한선희의 집으로 가고있었다.

거리엔 어스름이 깃들고 가로등이 켜지였다. 희

미한 가로등의 불빛이 사람들이 웃음을 띤, 하루로동의 보람이 한껏 어린 얼굴들과 활기찬 걸음걸이를 비쳐준다. 정화에게는 어쩐지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정답고 친근하게 안겨왔다.

3

엄정화가 한선희의 집에 들어가니 현주는 침대우에서 몸을 쭉 편 자세로 곤히 잠들어있었고 선희의 두 딸은 앉은뱅이책상을 펴놓고 마주앉아 수학문제를 풀고있었다.

정화는 미홍이자매에게 몇마디 다정한 인사말을 하고나서 침대머리맡에 가서 물끄러미 딸애를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술많은 머리칼을 쓸어넘겨주고 보동보동한 살결도 쓸어주었다. 감겨진 두눈에서 살눈썹이 부채살처럼 일어섰다. 눈을 뜬다면 크고 고운 눈을 볼수 있을것이다. 딸애는 눈이 크니 겁이 많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난히 큰눈을 가지고있었다. 코는 고집스러운 성격을 시위하듯 오뎅하네 처들렸고 가지런한 흰 이발이 보이게 약간 벌린 입술은 어른스럽게 들쭉해보인다. 딸애가 그 입술을 크게 벌리고 목에 힘을 주면 청아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올것이다. 정화는 치미는 정을 어쩔수가 없어 딸애의 볼에 살그머니 입술을 가져다댔다. 딸애는 꿈 하고 돌아누웠다. 정화는 미소를 짓고서 불렀다.

《현주야.》

어찌나 곤하게 자는지 딸애는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 일단 잠들면 엮어가도 모른다.

이때 문열리는 소리가 나고 한선희가 들어섰다.

《어머니—》

미홍이가 냉큼 일어서서 한선희에게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아이참, 현주 엄마가 오래간만에 왔군요.》

풍만한 몸매의 선희가 달덩이같은 얼굴에 웃음을 지을 때면 그 정다움과 진실함이 별스레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것이여서 정화는 기분이 좋아지고 속을 털어놓고싶어진다.

정화는 먼저 선희에게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딸이 난처한 일을 당하게 했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잘 왔어요. 좀 앉아있어요. 내 제깍 뭘 처리겠어요.》

선희는 료리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정화네 집에 손님들을 청하여 대접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선희가 와서 솜씨를 보이곤 했다. 지금 선희는 정화와 그

의 딸 현주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숨씨를 보이려고 앞치마를 두르며 서둘러댔다. 정화는 일어서서 한 사코 선회를 만류하였다.

《제발 그만두세요. 집에다 저녁식사준비를 다 해놓고 왔어요. 딸에게 미안한 심정에 우정 여기까지 온거예요. 미홍이 엄마 보기에도 내가 참 한심한 여자지요?》

《현주 엄마가 한심하다니요. 어느 여자가 현주 엄마처럼 나라위해 그렇게 큰일을 할수 있겠어요. 난 정말 현주 엄마가 부러워요. 현주 엄마처럼 될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한심한 여자라는 말을 들겠어요. 난 우리 애들에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큰어머니처럼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지요.》

제 어머니의 말을 긍정이라도 하듯 미홍이자매는 머리를 맞대고 열성스럽게 공부를 하고있었다.

《현주가 제 엄마에게 해봤다니 내가 참을수 없군요.》 선희는 정어린 눈길로 침대우의 현주를 바라보다가 정화에게 눈을 끄쩍했다. 《내가 현주를 한번 혼내올가요? 아프게 종아리를 쳐야겠어요.》

《미홍이 엄마에게야 우리 현주 종아리칠 자격이 있지요, 호호...》

정화의 눈앞에는 벌써 못 잇을 추억이 떠오르고 있었다.

현주는 조기성악반에 다니던 초기 집이 멀어 통학에 애를 먹기도 했는데 정 늦어지면 한선희의 집에서 숙식했다. 다음해에 남편이 시내에 건설된 새 아파트를 배정받게 됨으로써 현주는 통학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다. 유명한 성악가들을 많이 키워낸 조기성악반 분과장선생이 품을 들여 현주에게 성악을 가르쳤다.

현주는 중학교 5학년시절에 전국청소년개인예술큐연(성악)에 나가 3등을 했고 또 그 다음해 전국청소년개인예술큐연(성악)에 출연하여서는 1등이 없는 2등의 영예를 쟁취하여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입학수험자격을 획득했다. 음악대학입학시험을 칠 때 엄정화는 자기가 연구개발한 제품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에 설치되어 한창 련동시험을 진행하던중이어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어느 한 기업소에서 회계원으로 일하고있는 한선희가 휴가를 받고 현주를 따라다니면서 뒤바라지를 했다. 신용진도 마음이 안 놓여 딸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딸에게는 살뜰한 녀인의 손이 더 필요한것이였다.

입학시험의 마지막날 오전에 인공지구위성 《광

명성-2》호가 위성발사장으로 운반되였다. 자기의 의무를 다한 정화로서는 이제 《광명성-2》호의 발사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날 오후에 정화는 음악대학으로 현주를 찾아갔다. 정화를 보고 선희가 나무람했다.

《아니, 왜 왔어요? 우리가 어련히 현주를 봐주지 않을라구요.》

《그래도 어머니된 마음이 그렇지 않군요. 애가 후날 너무 무관심하다고 욕할가봐 두렵기도 해요.》 정화는 톡조로 말하였다.

선희는 별다른 대꾸가 없이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어쩐지 선희에겐 웃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정신적여유가 없는듯 했다.

현주가 마지막시험을 치고 대학건물밖으로 나오자 선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면서 서둘렀다.

《현주야, 시험을 잘 치렀으니 이제 됐지? 난 빨리 가야 할데가 있다.》

덤벼치는 선희를 신용진이 만류하였다.

《미홍이 엄마, 왜 그러오? 이제 내 친구가 차를 가지고 올거요. 그 차를 타고 가지요.》

선희는 진정하고 기다렸다. 정화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어도 선희는 그저 쓸쓸하게 웃을뿐이였다. 그제야 정화는 선희를 괴롭히는 그 무엇이 있으며 선희가 그에 대해 애써 숨겨왔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잠시후에 남편의 친구가 승용차를 몰고왔다. 그들은 승용차에 올랐다. 선희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누가 입원했어요?》

정화가 거듭 물어서야 선희는 근심스러운 낮으로 말하는것이였다.

《3일전에 미홍이가 입원했어요. 제 동무들과 업어줄내기를 하면서 놀다가 발목이 부러졌지요 뭐.》 선희의 두눈에 눈물이 고이고있었다.

미홍이가 입원했다는 소리에 정화도 신용진도 그들의 딸 현주도 깜짝 놀랐다. 어쩌면 제 딸이 입원해있는데 그런 내색을 전혀 않고 남의 딸을 위해 시간을 바친단 말인가. 사실 선희는 현주의 대학입학시험을 봐주고는 병원으로 가군 했던것이다.

《일없어요. 너무 걱정하지들 말아요. 낮엔 미홍이 외할머니가 와서 돌봐줘요. 그리고 간호원들도 얼마나 열성인지 몰라요. 다 잘됐어요.》

선희는 웃으려고 했으나 흘러내리는 눈물은 어찌지 못하고있었다.

병원입원실에 들어가니 정말 미홍의 곁에는 선희

의 어머니가 와있었다.

《그래, 우리 현주 시험 잘 쳤느냐?》

선희의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을 때 정화는 울고 현주도 흐느껴울었다.

신용진은 일어나앉은 미홍의 발목을 쓸어보면서 꺾꺾 막히는 소리로 말했다.

《우린 네가 이렇게 된줄도 몰랐구나.》

그리고 선희를 보고 성이 나서 소리질렀다.

《정말 너무하오. 이렇게 하면 우린 어떻게 되오?》

그러는 신용진에게 선희의 어머니가 대범하게 말하였다.

《됐네, 연구사선생의 딸이 대학에 붙는게 중요하지. 우리 미홍이는 돌봐주는 사람이 많아.》

정화는 목이 짝 메여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솟구치는 눈물때문에 자꾸 부엌에 흐려지는 눈으로 선희 어머니의 친근한 모습을 찾아보니 그 모습우에 선희의 아버지의 모습이 겹놓인다.

한선희의 아버지는 특류영예군인이었다. 선희의 어머니는 특류영예군인청년을 사랑하여 결혼한 후 선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한생을 바치었다. 선희는 어려서부터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예군인 아버지를 도와주는 과정에 스스로 형제가 되고 자식이 되는것을 목격하였다. 선희의 아버지는 늘 딸에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넌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에서 살고있는가를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당을 받드는 그 한길에서 하나의 대가정이 되는 이 제도를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

어느해 전승절에 엄정화는 선희의 부모들에게 인사하려고 찾아갔던적이 있다. 그때 선희의 아버지가 정화의 손을 꼭 잡고 어찌나 반가와 하는지 몸둘바를 모를 정도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락동강까지 갔다왔다고 하는 선희의 아버지는 격한 어조로 말하였다.

《지난 전쟁시기 우리 군대는 무장장비가 약했어. 미국놈들의 비행기가 제멋대로 지랄을 해댔단 말이야. 온 락동강이 전우들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겠지. 우린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길에 올랐었지. 지금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강력한 국방공업을 꾸려주시여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지. 무엇보다도 국방이 중요해. 군사력이 강해야 우리 제도를 노리는 원썬놈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지. 그러니 국방과학연구에 몸바치는 연구사선생을 모두가 도와야 해. 압, 그렇구말구. 내 그래서 우리 선희가 연구사선생을

친언니처럼 따르는걸 대견해하는거요.》

몇년전에 사망한 선희의 아버지의 얼굴이 왜 자꾸 눈앞에 떠오르는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선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마음한뜻이기때문이라. 그분들의 피줄을 이어받은 선희인데 어련하겠는가. 그들은 사랑과 정으로 이 나라, 이 제도를 지키고저 하는것이 아닌가.

아, 좋은 사람들,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있는것일까. 내 딸 현주가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는대로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될수 있을가.

엄정화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어내면서 선희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고마워요. 선희 어머니...》

엄정화가 그들과 함께 보낸 그밤은 참으로 마음이 거뜬하고 행복스러운 밤이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랑과 정으로 산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음악대학이 현주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현주가 대학강의실에서 수업에 열중하던 때인 2009년 4월초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딸애가 대학의 학급동무들에게 제 어머니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제작에 참가했다고 하니 어떤 동무가 미덥지 않다는듯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수 있는가고 말했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사이면 다 위성제작에 참가하는가고... 하긴 그 말도 영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현주는 당당히 동무들에게 할 소리가 있을것이다. 정화는 우선 선희에게 말하였다.

《미홍이 엄마, 오늘 내가 왜 현주와의 약속을 잊었는지 알아요? 사실 말이에요.》

정화는 저도 모르게 미소하면서 말을 이었다.

《우린 오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글썽 인공지구위성제작과 발사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던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찌...》 정화는 걱정이 북받쳐올라 더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어느새 선희는 별똥 일어섰고 미홍이자매는 원주필을 놓고 눈이 휘둥그래져서 정화를 보고있었다.

《아니, 그런 영광을 받아안고서도 너무나 태연하군요. 아이, 이 일을 어찌면 좋담. 끝내 현주 엄마가...》

선희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제잡담 달려가서 자

고있는 현주를 두들겨깨웠다. 딸은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뻔해있다가 드디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환성을 내지르면서 정화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닌 정말 대단해요. 난 래일 대학에 가서 동무들에게 자랑할래요. 이제 누구도 내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수 없어요.》

《원, 애두...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딸은 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는데... 어머닌 이제야 겨우 그 영광을 지녔는데두...》

《그래도 인공지구위성이 간단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리의 위성을 찾아보지 않아요. 우리의 위성이 하늘에 뿔소 하고 노래부른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기쁜 날 엄마에게 아픈 소리를 한 날 용서해요. 사실 우리 동무들은 다 리해했는데 내가 괜히 투정질했던거예요.》

딸은 다시한번 정화의 목을 그러안았다. 정화의 두눈에는 눈물이 고이였다. 그것을 보는 선희의 두눈에도 물기가 어리였다.

미홍이자매는 주춤주춤 다가와서 정화의 손과 팔을 신기한듯 만져보고 그의 얼굴을 황홀하게 쳐다보았다.

4

복은 끊임없이 찾아들었다.

신용진이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를 수여받아 온 가족이 환희에 휩싸였다.

그 행복한 분위기가 가시기도 전에 엄정화는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이 모셔진 금반지를 수여받게 되었다. 정화는 연구소의 사람들에게서도, 아파트의 이웃들에게서도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 또 집에 축하전화들도 걸려왔다. 정화는 송구스럽기만 했다.

신용진은 뜻깊은 금반지를 수여받은 안해의 어깨를 한팔로 껴안으며 큰소리를 쳤다.

《우리 집에 또 경사가 났소. 경사가 겹친단 말이요.》

금반지를 수여받은 다음날에 엄정화가 퇴근해오니 한선희의 부부가 와있었다. 그들은 식료품들을 가득 들고왔다. 이제 축하연을 벌린다는것이였다. 한선희는 벌써 주부처럼 부엌을 차지하고 지지고볶고 야단이였다.

엄정화가 퇴근해오기를 기다렸던듯이 무엇인가 한구럭씩 든 사람들이 찾아들어왔다. 그들모두는 벽에 모셔진 기념사진, 엄정화가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그 기념사진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고 정화가 수여받은 금반지를 돌려보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엄정화의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지방의 먼곳에서 살고있는 부모들과 친척들은 미처 오지 못해도 벗들은 어김없이 찾아와 축하해주곤 하였다. 엄정화네도 또한 그렇게 벗들을 찾아갔고 초청받아 가곤 했다.

엄정화는 지금 자기 집에 모여온 사람들, 혈육처럼 가까운 그 한사람, 한사람들을 여겨보았다. 자기가 오늘의 영광을 받아안게 되기까지엔 그 한사람, 한사람의 지지와 고무, 도움이 얼마나 큰힘이 되었던가.

정화의 주위에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중에는 전연부대의 사단장도 있었다. 그는 평양에 왔던 기회에 어제날에 사단에서 복무했던 운전사(정화의 남편)네 부부가 살던 산언덕의 단층 살림집에 우정 찾아와 하루밤을 보내면서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그 사단장의 운전사도 체대된 후에 남편의 동생이 되었고 현주의 삼촌이 되어주었다.

《그저 우리 현주 엄마가 제일이란 말이요.》하고 화기로운 좌석에서 큰소리치는 다부진 체격의 사람이 바로 그였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집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남편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 정치부장동지, 자기들의 약혼식을 차려주고 현주를 친딸처럼 돌봐주어 그 애가 큰아버지로 따르던 그 정치부장동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살아있어 오늘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가.

그리고 현주의 재능을 키워준 유치원음악선생, 학생소년회관의 소조선생, 조기성악반의 분과장선생에게서도 큰힘을 받았다.

정화는 문득 현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것을 발견했다.

《현주 아버지, 현주가 아직 대학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벗들과 축배를 들다가 호기있게 소리쳤다.

《우리의 위성이 우주를 돌고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위성과학자답지 않구만. 내 심장은 우리 위성이 현주가 집으로 오고있는걸 포착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전파를 듣고있단 말이요. 걱정말라, 당신네 딸은 지금 집으로 가고있다, 이렇게...》

좌중에 유쾌한 웃음이 터지였다. 남편은 유모어를 즐기는 사람이였다.

《현주 아버지를 이제라도 최첨단과학을 연구하

는 과학자로 소환해야겠습니다.》 도고한 기쁨이
엿보이는 한선희의 남편이 통조로 말하였다.

《그럼 공혼자동차운전사칭호는 어쩐다?!...》 하
고 신용진이 능청을 피우는 바람에 웃음소리는 더
욱 높아졌다.

이때 문소리가 나더니 현주가 들어섰다. 그는 생
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안겨준다.

《어머니, 축하해요.》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서 딸이 주는 꽃다발을 받
아안았다.

《고맙다.》

정화는 온갖 복을 혼자서 받아안은것만 같았다.
현주는 어머니의 귀가에 입을 가져다대고 무엇인가
소곤거렸다. 그 소리를 듣고 정화는 소리쳤다.

《너도 참... 그걸 왜 이제야 말하니? 다 들어오
게 해라. 어서...》

정화는 마음이 급해나서 허둥지둥 나들문가로 다
가는데 딸이 제지시킨다.

《어머닌 위신있게 여기 서있어요.》

그리고 딸애는 나들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말
하였다.

《자, 어서 들어와.》

하나같이 싱싱하고 아릿다운 남녀청춘들이 꽃다
발들을 안고 들어섰다.

그들은 엄정화에게 꽃다발들을 안겨주면서 겨끔
내기로 말하였다.

《현주 어머니, 축하합니다.》

현주는 방안의 사람들에게 사연을 설명하였다.

《우리 학급동무들이예요. 내가 대학에 가서 어
머니가 선군시대의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고 사랑의
금반지를 수여받았다고 자랑했지요 뭐. 그랬더니
동무들이 꼭 우리 어머니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
겨주고야 집으로 간다고 날 따라왔어요.》

방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요청하는 바람에 현
주의 동무들은 인차 가지 못하고 자기의 재간을 발
휘하기 시작했다. 노래소리가 울리면서 좌석은 더
욱더 흥겨워졌다.

《어쩌면 애들이 하나같이 꿈군요.》 엄정화는
한선희에게 말하였다.

《정말 기특한 애들이예요.》 한선희가 전에 없
이 젊어진듯 한 엄정화를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웃
었다.

엄정화에게는 불현듯 노래를 부르는 애들의 밝은
모습이 우리 로동당시대가 창조한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주도 그 그림속
에 한송이의 고운 꽃으로 피어났다.

아, 밝은 햇빛, 따뜻한 공기, 진동하는 인간미의
향기속에 우리가 살고있는것이다.

마치 엄정화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거나 한듯이 한
선희가 한마디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일이에요.》

2012년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 호 2호기
가 발사되었다.

엄정화는 위성제작과 발사에 참가한 수많
은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초청을 받고 평양 시내 여러곳을 참
관하였다.

그들이 든 고려호텔에서도 여러 참관대상들에서
도 만나는 사람마다 열렬하게 환영해주었다.

길가는 사람들도 엄정화네가 탄 버스가 지나가면
손저어주었다. 온 나라가 하나의 기쁨을 안고 설
레이고있었다.

하루는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엄정화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학생인 신현주가 찬조출연하여 독창을 하는것을 보
게 되었다. 딸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정화의 가슴속
깊이 젖어들었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 품에 안고 보살피며

어머니의 천만사랑 다해가는 당이여

...

노래부르는 현주의 두눈에서 맑은것이 반짝이었
다. 그는 관람석의 중심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
을 떠올렸을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걸어온 생
애의 자욱자욱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어머니를 이끌
어준 우리 당의 사랑을 절감했을것이다.

현주의 노래소리는 더욱더 절절하게 울리었다.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들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그 이름은 조선로동당

...

(어머니...) 하고 정화는 조용히 입속으로 불러
보았다.

그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땅의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키워주는 조선로
동당, 그 품속에 안겨 네가 자랐고 이 엄마도 자
랐구나. 그 품속에서 이 땅에 행복의 화원이 만발
했구나.

아, 고마운 당이여! 위대한 어머니이시여!)

시 초

화 선 그 리 음

리 정 태

락 동 강

내 남다른 잠버릇인듯 소스라치며
때없이 밤잠을 깬다
배밀이 모지름에 불모래를 움키고쓰러져
저편 대안을 갈망에 애타 바라보며
마지막도하를 숨결 다해 부탁하던
그날의 전우들 꿈에 보이며

감겨주지 못한 그들의 눈빛이
심혼에 편뜻편뜻 섬광으로 마주치며
못다 쓴 탄알을 넘겨주고간
그들의 운명전 부르짖음 유언이
피터지게 심장을 두드려올리며

세월의 백발에 문흔들 잇으랴
선혈로 뱀람했던 락동강을
마지막 한결음앞에 남해를 두고
원썬들 발악에 피비린 죽음을 준
백병전의 그 기습을

비분에 치떨며 가슴허비며
물러는 못 선다! 피눈물로 울부짖으며
우리 어찌 발길 돌릴수 있었으랴
기어이 돌아오리 기다려다오 락동강아!
건느고야말리라 믿어다오 락동강아!

그 맹세 낮과 밤 되새겨져
작별 못한 락동강 붉은 물 끓는 사품에
오늘껏 잠기어 지새는 내 한생
그 맹세 사무친 뉘를 안고선
죽어도 락동강다리되어 뚝을 베고 누우리라!

물결 일어일어 끝없는 민음의 숨결 이어
우리 남긴 최후공격목표를 지키어

세월 거스르듯 달리는 남해로의 흐름
락동강이여 너는 기다림에 머문듯 재촉하느냐
오고는 못 가는 50년 여름의
피치 못할 최종임무계선으로

도하장 밤하늘에 섬섬히 오르던
신호탄 화광 총포탄 불줄기
그보다 더 붉게 결전의 피가 타번지여
연연히 비껴오던 남해의 새벽노을
그보다 더 질게 통일전승 러명을 물들여
이글이글 불물인듯 번뜩이던 강물!

오, 그냥은 못 두리라 락동강을
거기에 두고온 빠져린 아픔을!
거기에서 안고온 기나긴 절통함을!
거기에도 안고갈 가슴에 묵고쌓여
이제 더는 돌곳 없는 철천지원한을!

백번 쓰러져도 땅을 안고 일어서며
두번다시 아낌없이 피를 뿌려도
육탄작열로 강을 말리며
원썬들 천만죽음을 딛고넘어서도
건너가리라 건너가리라
락동강! 락동강!

전우들령전에서 다진 그 약속
락동강 더불어 한껏 두팔로 남해를 그리안고
열광에 파도쳐 드높이 만세를 터쳐울릴
최후전승의 길 그 한끝을 가리키어 흐르는
우리를 불러불러 홀러흐르는
오, 락동강!
오, 락동강!

마지막 보고

기다린다 부대는
포위속에서도 적정을 날려
승리의 열쇠를 보내온 전사를
기다린다 한결같이 굳게 믿어
간절히 바래여
이제나... 저제나...

무전수들 분초를 애태워
안타까이 허공에 불려불려
—수리개! 수리개!—
찾고찾아 사흘낮과 밤

일각이 천추이던 지나긴 기다림에
못이겨 마침내 화답함인가
장애파 란무의 회오리속에
어슴푸레 간신히 귀를 스치는
가느다란 한가닥 실오리전파
—나 수리개...

무변의 대자연 광막한 품이어
고요 고요를 안아주렴
초목들도 숨을 죽이게
새들아 우짖지 말아 잠간만
가슴조인 부대가 귀기울여 듣게

폭음사나운 전구의 심연을 뚫고온
애오라지 소원이던 전승을 그리여

전승의 열병단상 우러러 그리여 목메인
적구전사의 목소리
—**김일성**장군 만세!
산천도 숙연히 따라부른다
—**김일성**장군 만세!

그다음...
그다음엔
수화기를 찢는 뜻밖의 폭음
웬 폭음인가
추연히 들먹이는 누리의 진동...
흐느끼여 떠도는 먼 공간 긴 메아리...

오, 적구전사의 장렬한 최후숨결
영웅한 전사의 장엄한 운명의 박동
자폭의 수류탄을 터치는
자랑드높은 마지막보고여!
무궁에 어우러져 울려가고갈
영생의 거룩한 교동소리여!

그다음...
그다음엔 찾아도 불려도
기척없는 정적...
기다려도 기다려도 대답 오지 않건만
날아옴다 수리개 전사의 녀은
김일성장군 만세의
영원한 하늘깃을 펼치고!

지켜낸 고향땅

총과 함께 이 가슴 지켜준 고향
마음의 진지 참호였던
고향땅이여!
못내 간절히 불러 그리면
어머니목소리를 빌어
승리의 당부를 되뇌여준
위훈의 품이여!

아, 어머니! 어머니 저기 계시는구나
앞내벌 밭가운데서
김을 매시는구나 어머니는 오늘도

땅에 두신 평생정에
어머니는 오늘도 발이랑을 안으시고

전승꿈과 나란히 내 마음에 계시며
고향땅과 더불어 사무쳐오던 모습
어머니는 나를 바래시던 발머리를 못 뜨시여
어머니는 오늘도 어제런듯 밭고랑에 안기시여

훈장메달 절령이며
무릎치는 감자술을 헤쳐
한달음에 다가왔건만

웬일인가 모르시네 어머니는 잊은듯이
어머니는 인기척도 못 알아채시고

한팔엔 흰 꽃떨기 감자포기
애지중지 어루쓸어 안으시고
다른 손엔 한자루 호미가락
흙을 듬뿍 움켜올려
두둑이 포기들에 북돋우시며

아, 내 어이 알라
이 별에 오셨던 장군님께서
토질 헤아리시려 손에 드셨던 그 흙을
어머니 알알이 정히 고루시는지

꺼집없을 심장으로
털사들 품고숨진 한줌 그 흙을
목숨보다 귀중히 전사들 피로 적신 한치 그 땅을
어머니 갈피갈피 헤쳐더듬으시는지

애국미증산에
전선원호 앞장에서
농사일로 희여지신 머리를

앞새들에 잠그시며
이 향토에 뉘을 심는 일손에
어머니는 우뢰쳐도 모르시리

놀라실가 저어해
목청놀러 어머니를 부르며
어푸러질듯
어릴적 걸음새로
어머니품 찾는 이 아들

어머니손에서
내 불에 목덜미에 떨어지는
보슬흙의 애무를 눈물로 적시며
나는 떠나던 날의 맹세
승리와 함께 어머니 두팔에 안긴다!

정든 고향산천
메아리로 화답해 반겨올리도록
나는 자랑 큰 기쁨에 넘쳐 부른다
지켜낸 고향땅 이름처럼 부른다
—어머니!

군복이상 없다

전투공로만이라
싸움준비 완성
부대관리 모범
위훈으로 혁신으로 이름높던 로병
어언 생일 여든륙이라
큰상을 받으려나

아들 딸 며느리
전우들과 이웃들
인사로 기념으로 지어온 옷가지
색갈이며 형식을 화제에 올려
저마다 권한는 양복도 여러벌

싸워이긴 보람 분에 넘쳐와
초연배인 군복설에 받아안던 맘이
군인집안 장손을 낳아키운 며느리
아무렴 그들이 지은 옷을 입어야지 응당
그야 물론 전래의 판레이구 말구

아버지 뒤를 이어 오빠를 따라나선

어엿한 녀성군관 딸의 대견함을
언제 일러주랴 오늘 아니면
살뜰히 그가 지은 옷도 반드시
입어야 하지 않을까

삶과 죽음의 불비광란을
거연히 휘여잡아 승리를 안아온 로병의 마음
기쁨의 사태에 묻혔어라
행복한 번민에 싸였어라
어느 옷을 입고 생일상에 앉을까

이 궁리 저 생각 고르고 미루며
로병답지 않게 궁짓거리더니
아들 딸 며느리 성화를 마다하고
지극한 성의들에 극진히 사례하고
군인가문 가장다운 적중한 단마디로
—군복이 나는 좋다

열여섯 초년에 폐를 써서 입은 군복
몇번이나 쥐여쥔가

흠뻑 젖은 땀을 내배인 피를
 몇몇번이나 기워매었던가
 총탄에 뚫리고 파편에 찢기어
 격전 3년 그 술한 전투들에서

잊지 못해라 백발에 묻히었을망정
 고향 다름없는 남녘의 거리거리 마을들에서
 군복앞가슴에 젖어든 눈물들을
 다시 오라, 기어이 돌아오마
 그러안고 못 놓았던 혈연의 포옹들을
 살점때듯 헤어졌던 언약의 작별들을

로병은 벽에 걸린 군복에 다가선다
 지나온 나날이 갈피갈피 깃들어

천발의 날과 씨 옷의 술기들
 회고의 글발인듯 만단사연 읽혀지는
 훈장메달 무겁게 누비여진
 성스러운 제복을 벗겨입으며
 -군복이상 내겐 없다

아, 한생을 하루같이 감싸준
 육신의 피부인듯 정든 군복이어서
 죽어서도 벗지 않을
 녀를 둔 옷이어서
 대를 물려 입고입을
 길이 이어 입고싸울
 조국수호의 전투복이어서
 -군복이상 없다!

화선그리움

군복입고 떠나는 신입병사들
 열혈젊은이들 불같은 청에
 전쟁로병동지 회고를 더듬어
 기다림칸 정숙을 조용조용 흔들어

오늘도 우린 그린다오
 언제든 다시 갈 불타는 일념으로
 꿈에도 그린다오 두고온 고향처럼
 피흘린 화선천리
 옛 싸움터를

철과 불로 원썬들과 겨룬
 준엄한 결전의 성스러운 마당
 흐르는 선혈도 증오에 타붙고
 꺼지려던 숨결도 적을 두고선
 불벼락을 울부짖어 노호했던 화선!

아, 화선을 못 잊소
 거기서 우린
 기개높이 세계에 뒤울렸소
 항일의 충성메아리 반미포성을
 선렬들 뒤를 이어 멸적에 나선
 이 나라 아들딸들
 만만찮은 판가리선언이었소!

조국을 휩쓴 불속에선
 한몸 육탄되기를 서슴지 않은
 마지막피 한방울마저

마지막탄알과 함께 뿜은
 장렬한 불사신의 그 녀들이
 격전의 불길보다 무섭게 타번졌소!

육박에 무딘 총창을 바위돌에 갈다가도
 가랑잎담배 한대 돌려가다가도
 전호속에 구성지는 탄피금소리에
 더덩실 실었소
 싸움의 날개돋는 선거날 추던 춤!
 에루화 불렀소
 원썬들을 이랑짓듯 끌어놓힌
 《발같이노래》!

적들 무리죽음 산더미를 짓밟고
 만세의 폭풍으로 공화국기를 휘날렸거늘
 실로 위대한 패승이었소! 우리의 전승은!

김일성 장군님의 백두산강국
 조선은 신성한 자주적존엄수호의
 새 세계 새시대를 력사에 열었소!

태를 묻진 않았어도
 피어린 애국의 심혼 사무친 곳
 불멸의 우리 영광 항일의 전통
 필승의 영웅정신 살아있는 곳
 전우들을 묻으며 맹세를 묘비로 세웠거니
 최후승리를 찾아 기어이 다시 갈
 아, 화선!
 아, 화선이 그림소!

새 화선 주인들 신입병사동무들!
노래를 부르자구
전승함성으로 우리 이어부른 노래
최후의 전승함성으로

동무들 이어부를
용맹의 피끓는 화선의 노래를
《결전의 길로》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내 군모를 썼던 머리에
백발을 이었던만
은빛총창 갈던 청춘병사시절로
성스럽던 격전시절로 전승시절로
다시 돌아왔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탑이여!
60년세월을 거슬러 꿰뚫고
그립던 화선천리를 한껏 펼친
너의 사랑과 영광의 열화속에서
내 갱생의 행복에 젖어
위훈의 언덕에 다시 세워준
그 은정 고마움에 뜨겁게 젖어

기쁨의 눈물로 피와 땀을 씻으며
육박창격에 터치던 목청 다하여
웨쳐부르짖은 만세의 그 함성
꿈같은 형상으로 여기 내려뵈는가
하늘 땅 사이를 가득히 채워쏘은
경탄에 휩싸인 장엄한 모습!

서로 불러 마주달려 안고안기며
상봉의 걱정 감회의 열풍속에
탑의 군상 전우들을 목메여반기며
피어린 정을 둔 화선을 찾는다
그날의 총을 잡고
그날의 싸움길에 오른듯
전화의 그 시절을 찾는다 전승로병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쳐간
아름다운 청춘의 노래를
육탄폭음으로 울려울려 장렬했던
영웅의 노래 불패의 노래와 노래를
전우들이 부르자 우리 함께
전투의 설참 전호속의 합창 그대로

후대들 전설속에 새겨지리라
군적을 떠난지도 몇수십년
사람들 기억에도 이젠 삭막해
그 누가 불러줄념도 잊은 우리 이름을
점검명부 펼친듯이
조국이 불러주었거니!

백두의 산악같은
전승수호의 성새를
이 땅에 세우시고
천년전승의 새봄으로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신
태양의 빛과 열을 다하시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사랑!

태어나고 자라나는 대대손손을
조국은 여기서 위훈으로 전승하리
백승의 본분 백두의 넋을 지켜
싸워이긴 아들딸들을
조국은 여기서 자랑으로 맞이하리
영원한 전승의 고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드넓은 탑의 광장 경축의 환희에
설레이는 마음 날아옴다
끊을수 없는 정 그리움을 안고
은혜로운 그 품 믿음의 한품
경애하는 원수님 품으로 품으로
애오라지 깃을 치며
시간과 공간을 누비며
다함을 모르며...

전승절의 이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드리는
전승로병들 불타는 심장의 인사
대를 이어 맥맥히 굽이칠
피끓는 충정이어!

조벽암의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려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아야 한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은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 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한 감정이다.》

조벽암의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는 당시 1950년대에 있어서 조국통일주제작품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의 발악적인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통일주체의 시가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통일애국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면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는 시 《서운한 종점》, 《삼각산이 보인다》, 《가로막힌 림진강》, 《확성기소리 들리는 남녘마을》, 《새로운 손길》로 묶여졌다.

시 《삼각산이 보인다》의 시대적배경은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제1차 5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받아안았던 1956년의 벽찬 현실이다.

시에서 말하는 삼각산이란 서울의 북쪽에 있는 산이다.

시는 북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삼각산을 두고 조국통일의 갈망을 절절히 노래한 시로서 남녘형제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시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뜨거운 호소로 일관되어있다.

내 요즘 남쪽창을 열면
의례껏 찾아보는 버릇이 들었다

맑게 개인 날씨면 신기루인양
아득히 솟아오르는 삼각산

그도 내가 반가운지
창앞으로 가까이 다가선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언만
멀게만 여겨져 가슴이 미여지누나

《나》와 《그》-이는 곧 북과 남, 한지맥에서

한피줄로 살아온 우리 인민의 뉘수 없는 정의 표시이다.

《나》는 의례껏 창문을 열어보고 《그》-삼각산도 반가운듯 창앞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마치도 피를 나눈 형제가, 정을 나눈 친우가 손과 손을 내밀며 미소와 미소를 주고받으며 가까이 다가서는듯한 생동한 느낌이다. 시인-《나》에게 있어 삼각산은 단순한 산봉우리가 아니라 바로 혈육-남녘겨레-살과 피와 뉘를 가진 산 생명인것이다.

하건만 《나》와 삼각산은 가깝고도 먼 거리에 있다. 《나》는 창을 열고 《그》는 창앞으로 달려왔으매 손과 손을 잡을수 없고 부둥켜안을수 없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이는 단순히 지리학상의 원근때문이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강요당한 민족의 분렬때문이다.

그때문에 《나》는 삼각산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애비없는 어린것들이/헐벗고 굶주리는 신음소리》를 듣고 《아들잃은 늙은 어머니의/미체의 발길에 채우는 소리》를 듣는다.

그를 삼삼히 새겨드는 《나》-북녘인민들의 가슴에도 《설음의 소나기》가 내린다.

분렬은 북에도 남에도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 쓰리고아픈 분렬의 상처를 진실하게 내보이며 눈물에 젖던 시인이 후반부에서부터 설음의 소나기를 가시고 통일조국의 해빛을 안아올 굳은 결의와 신심을 토로한다.

시인은 분렬의 장벽을 뚫고 통일의 길을 열 돌파구가 5개년계획의 설계도에 있다는 사상을 밝혔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이 곧 북반부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여 통일의 지름길을 닦는 길이다.

이렇게 남녘에 고향을 둔 시인자신의 《설음의 소나기》만을 눈물로 그리지 않고 통일을 갈망하는 북남 온 겨레의 절절한 소원을 북반부에서의 5개년 계획완수에도 승화시키고 5개년계획의 설계도가 그들 남녘땅 인민들에게 곧바로 뚫린 통일의 길이라는 신념을 확신성있게 토로한데 이 시의 사상주제적의의가 있다.

시 《서운한 종점》도 진실한 작품이다. 시에서 분계선으로 가로막힌 렬차의 마지막종점에

서 내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아픈 체험세계를 노래하고있다.

조국의 분렬로 하여 남녘의 고향땅에 갈수 없는 한없이 서운한 심정.

헐떡이며 내닫는것은 너뿐이라
가까이 다가올수록
벽차만지는 나의 숨결
...

《나》의 숨결은 왜 벽차만지는가.

이제 이 길로 곧바로 가면 그리운 고향 남녘이다. 《미역내 구수히 풍겨오고/동백꽃 붉게 타는/남쪽바다가》-고향! 이 길로 곧바로 부산으로도 가고 려수로도 가고싶은 마음은 시인개인의 심정에서 벗어난 북반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덜커덩!》렬차는 서고야만다. 저도 안타까운듯 길게 우는 기적소리, 김삿눈 소리...

종점아닌 종점에서 더는 움직이지 못하고 목메인 고동만을 울리는 렬차에서 어쩔수없이 내려야만 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정은 서운하다는 한마디로 다

대신할수 없다.

그리하여 시는 조국땅에 장벽을 가로질러놓은 미제원썹들에 대한 사무친 저주와 규탄으로 넘어간다. 나아가서 시는 기어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닦을 시인-서정적주인공-북녘겨레의 결의로 이어진다.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민족지상의 파업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펼쳐나설 불타는 자각을 가지게 한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굳센 의지와 드센 배짱,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담력에 의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벽암의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를 비롯한 조국통일주제시작품들은 비록 수십 년전에 창작되었지만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으며 북남 온 겨레의 통일로로의 걸음을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김 향 금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7호 (루계 제789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7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7월 5일

ㄱ-3634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37